

발간등록번호 11-1550159-000053-01

문화유산 가이드북

충주의 보물지도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Jungwo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A detailed pencil-style illustration of a river valley. In the foreground, a long bridge with multiple spans crosses a wide river. The river flows from the background towards the foreground. On the left bank, there are fields and some buildings. On the right bank, there are more buildings and a road. In the background, there are rolling hills and mountains under a sky with soft, wispy clouds.

문화유산 가이드북

충주의 보물지도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Jungwo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충주의 문화재 위치도



발간사

우리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가 위치한 이곳 충주는 한반도의 중심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남한강과 하늘재와 같이 육상·수상 교통로가 잘 발달되어 있어 동서남북 어느 지역으로든 뻗어갈 수 있는 천혜의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중심으로서 그 중요성은 ‘충주(忠州)’ 또는 ‘중원(中原)’ 이라고 하는 지명에서도 느낄 수 있으며, 그러한 지명에 걸맞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고대 삼국 각축의 중심지이기도 했으며, 통일신라 제2의 도시 중원경(中原京)이 있던 곳이었습니니다. 또한, 고려시대 몽골군의 침입을 무찌른 곳이었으며, 임진왜란 당시 신립(申瑾)장군이 왜군에 맞서 장렬히 전사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유구한 충주의 역사는 유·무형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옛 고구려의 ‘충주 고구려비’와 통일신라의 중앙탑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을 비롯, 모두 105건의 국보, 보물 등 많은 문화재가 산재(散在)해 있습니다.

이 책자는 충주를 방문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 이러한 문화재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가는지를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연구소를 방문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충주지역의 역사와 문화, 유물·유적에 대해 알기 쉽게 전달하고자 애쓰는 자원봉사자 여러분이 추천하는 답사코스를 아울러 수록하였습니다. 충주에 오신 여러분들이 이 지역을 답사하면서 보다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은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직원 여러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충주를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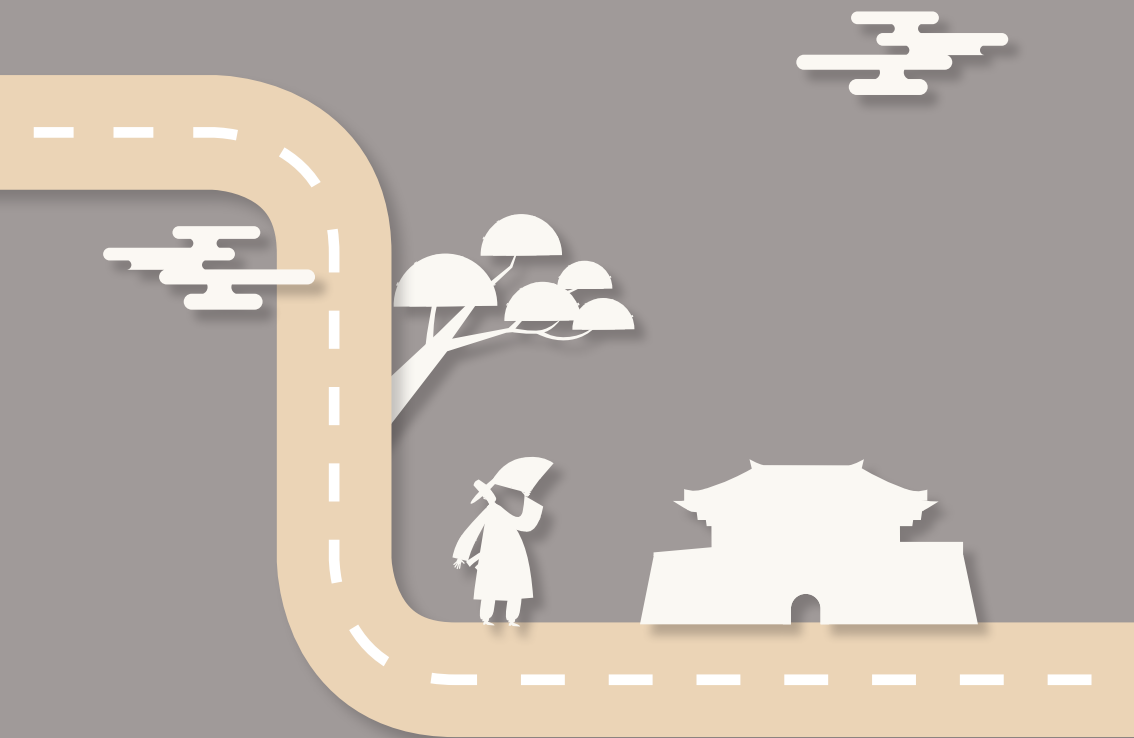
2018년 12월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장

노 명 구

문화유산 가이드북

충주의 보물지도

문화유산 가이드북 충주의 보물지도는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 가치를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제작되었습니다.





CONTENTS

03 · 발간사

07 · I. 충주의 자연과 역사

15 · II. 문화재 소개

16 · 국보

25 · 보물

44 · 사적

55 · 명승

59 · 국가무형문화재

66 · 국가민속문화재

72 · 시도유형문화재

135 · 시도무형문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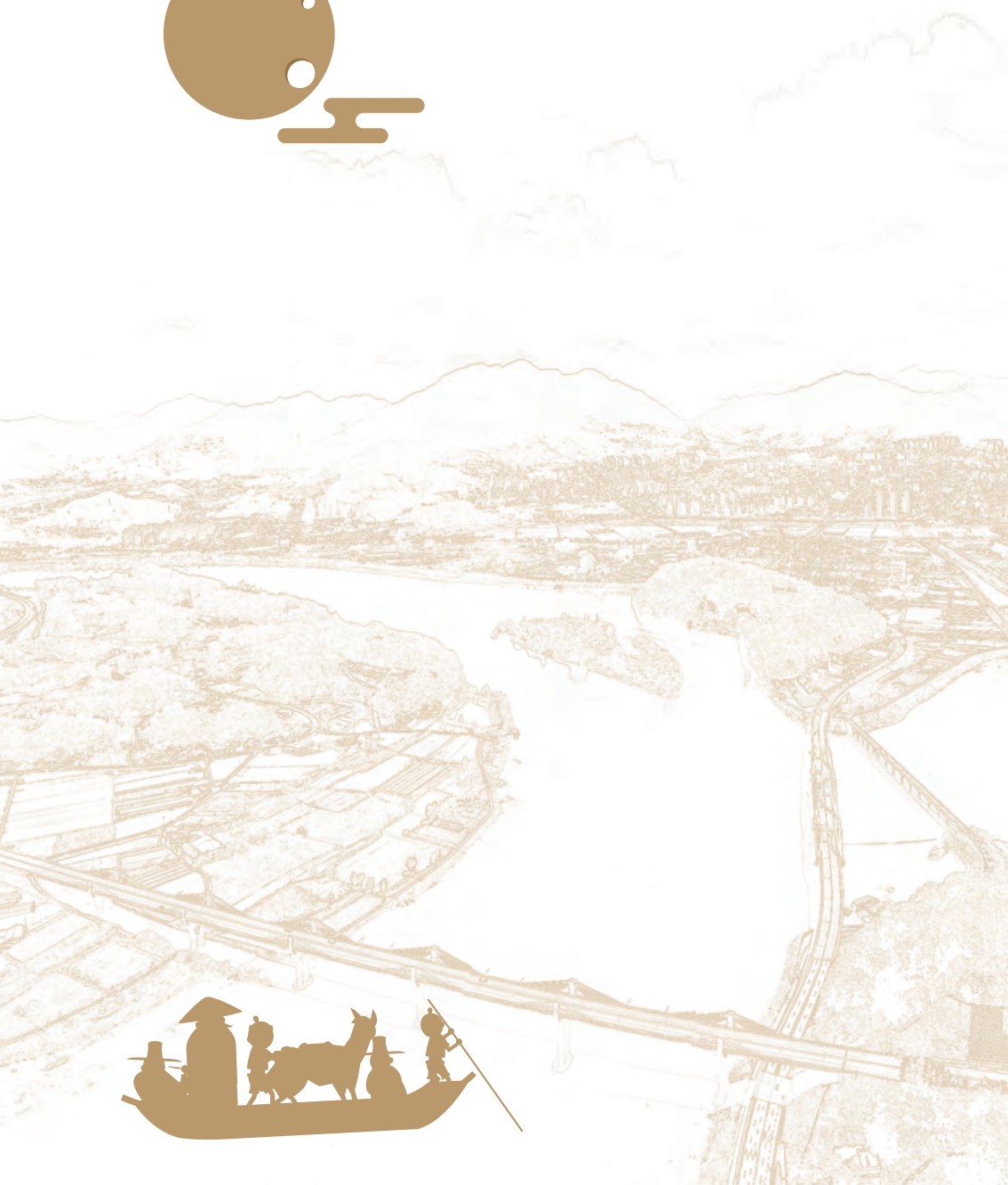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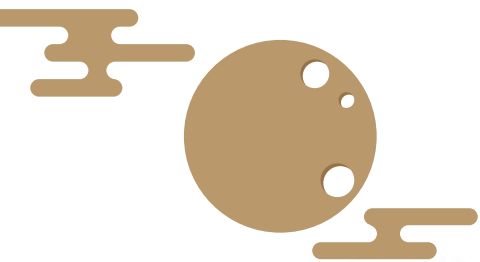
140 · 시도기념물

168 · 문화재자료

186 · 등록문화재

189 · III. 문화재 현황표

197 · IV. 충주 지역별 지도와
답사코스 소개



I. 충주의 자연과 역사



I. 충주의 자연과 역사

충주는 충청북도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중원 문화권의 중심도시이다. 동쪽은 제천시, 서쪽은 음성군, 남쪽은 괴산군, 북쪽은 강원도 원주시와 경기도 여주군에 접하고 있다.

1. 충주의 자연환경

동쪽으로는 태백산맥의 주봉 태백산에서 갈라져 나온 소백산맥이 남서쪽으로 뻗어나와 경상북도와 자연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북쪽은 역시 오대산에서 갈라져 나온 차령산맥이 남서쪽으로 뻗어나와 북서쪽으로 강원도와 경기도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충청북도는 이 두 줄기의 산맥 중앙부에 독립되어 있으며 충주지역은 그 북반부를 점하고 있다. 이 지역의 산세는 소백산맥의 줄기에 죽령, 월악산, 계립령, 조령, 이화령 등 험준한 산들이 충주의 남쪽을 가로막고 그 남쪽으로는 경상북도와 자연의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그 잔구(殘丘)인 대림산(大林山), 금봉산(錦鳳山), 계명산(鷄鳴山)이 병풍처럼 남동쪽을 두르고 있다. 북서쪽으로는 차령산맥의 잔구인 음성쪽의 부용산(芙蓉山, 500m), 가엽산(加葉山, 710m)과 노은보련산(寶蓮山, 764m)이 가로막고 있어 남고북저의 지형을 이루고 있는 중앙부의 충주분지가 바로 충주평야이다.

한편, 그리고 이와 함께 남한강과 달천강 유역에 범람원과 자연제방이 발달되어 있다. 남한강이 강원도 오대산(五臺山, 1,430m)에서 발원하여 영월, 단양을 거쳐 충주호에 흘러들고 있다. 또, 달천(達川)이 속리산(俗離山)에서 발원하여 곡류하고, 충주시에서 북류하여 탄금대 부근에서 합류하면서 달천평야를 형



성하고 있다. 요도천(堯渡川)이 가엽산에서 발원하여 신니면·주덕면을 지나면서 곳곳에 넓은 평야를 이루고 있다. 복성천(福城川)이 보련산에서 발원하여 양성평야를 이루며 수레이산(679m)에서 발원한 봉황천(鳳凰川)과 한포천(漢浦川)이 노은평야를 이루고 천등산에서 발원하는 원곡천(院谷川)이 산척평야와 엄정평야를 형성하여 미곡을 비롯한 농업지대를 이루고 있다. 충주 다목적댐 건설로 동량면의 일부, 살미면의 일부, 산척면의 명서동 등 총3개 면, 13개 리가 수몰되었다. 그리하여 동량면·살미면 일대에는 많은 농경지가 수몰되게 되었다. 충주 분지는 소백산맥의 연봉인 계명산(775m)·남산(南山, 636m)·대림산(680m)이 병풍처럼 가로막고 있다.

충주는 내륙에 위치하여 대륙성 기후의 성격이 강하다. 연평균 기온 12.4℃, 1월 평균기온 -3.1℃, 8월 평균기온 25.6℃이며, 연 강수량은 1,425mm이다. 그러나 늦새바람의 영향으로 여름철에 가끔 가뭄 피해가 심하다.

2. 충주의 역사적 환경

신석기 시대의 유물·유적이 가주동·풍동·칠금동, 중앙탑면 탑평리, 금가면 월상리, 동량면 용교리 등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어, 신석기 시대부터 이곳에 사람이 살았음을 알 수 있다. 선사 시대 유적으로는 산척면 명서리, 동량면 하천리·지동리에서 빗살무늬토기 조각과 민무늬 조각 및 집자리터와 초기 철기 시대의 유물이 충주댐 건설로 인한 발굴조사 과정에서 조사되었다. 특히 동량면 조동리 강가에서는 1996년~1997년의 발굴 조사과정에서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의 유적지임이 확인되었는데, 대표적인 유적으로 충주 조동리 유적(충청북도 기념물 제126호)·충주 조동리 고인돌(충청북도 기념물 제119호)가 있다.

삼한 시대에는 마한(馬韓)의 한 나라가 이곳에 있었던 것으로 전하며, 금릉동 유적에서 당시의 토광묘가 발견되었다.

삼국시대에는 백제(百濟)가 먼저 이 지역을 차지하였다. 현재의 칠금동(탄금대)와 탑평리 지역에 다수의 백제유적이 확인되었는데, 칠금동 유적에서는 철기를 가공, 제작할 수 있는 제철로가, 탑평리에서는 '凸'자형 주거지와 같은 백제의 대표적인 유구가 발견되었다. 이후, 5세기에 고구려(高句麗) 장수왕의 남하 정책으로 고구려에 속해 국원성(國原城) 혹은 완장성(蕪長城)으로 불렸다. 장수왕 69년(481)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충주고구려비(忠州高句麗碑)가 중앙탑면에 남아 있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고구려유적은 고구려비 외에도 탑평리에서 고구려식 온돌유구가, 두정리에서 고구려 석실분이 확인되어 일정기간 고구려의 점유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세기 중엽에 신라(新羅)의 영역이 되었는데, 진흥왕 12년(551) 우륵(于勒)이 가야에서 신라로 귀화하자 왕이 그를 대문산(大門山)에 살게 했다고 한다. 대문산은 탄금대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 이는 우륵이 이곳에서 가야금을 탔다고 하여 생긴 이름이다. 탑평리 유적에서 신라의 주거지 역시 확인된 바 있어 백제, 고구려, 신라가 모두 그곳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증명하여 그 중요성이 입증된 바 있다.

진흥왕 18년(557)에 국원소경(國原小京)으로 삼고, 문무왕 13년(673)에는 국원성을 쌓았다. 경덕왕 1년(742) 중원경(中原京)으로 삼고 통일신라의 중앙임을 표방했는데, 탑평리 7층석탑이 중앙탑으로 불리는 연유도 그 때문이었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서예의 대가 김생(金生)과 학자 강수(强首) 등이 손꼽힌다.



고려 시대에 들어와 태조 23년(940) 충주로 개칭하고, 성종 2년(983) 전국에 12목이 설치되면서 충주목으로 승격되었다. 성종 14년(995) 10도(道)·12절도사(節度使)체제로 개편될 때 절도사가 파견되어 창화군(昌化軍)이라 했으며, 충주도(忠州道)에 속하였다. 현종 3년(1012) 도사가 안무사(安撫使)로 바뀌었으며, 1018년 전국에 8목이 설치될 때 충주목이 되었다.

고려 중기에 5도·양계의 지방제도가 확립되면서 양광도(楊廣道)에 속했고, 괴주(槐州)·장연현(長延縣)·음성현(陰城縣)·청풍현(淸風縣) 등을 속현으로 거느렸다. 고종 41년(1254) 몽골군이 침입했을 때, 김윤후(金允侯) 등의 의병군이 충주성 싸움에서 야고(也古)가 이끄는 적병을 크게 무찔렀기 때문에 국원경(國原京)으로 승격되었다.

한편 관내 다인철소(多仁鐵所)가 또한 몽골군을 물리친 공으로 1255년 익안현(翼安縣)으로 승격되었다. 충렬왕 7년(1281)에는 국원성을 개축하면서 초석에 연꽃무늬를 조각했기 때문에 이로부터 예성(藥城)이라는 별칭을 갖게 되었으며, 태원(太原)이라고도 하였다.

이성계가 조선을 개창한 이래, 태조 4년(1395) 한양천도와 동시에 양광도의 일부가 경기에 이속되면서 충청도의 계수관(界首官)이 되었다. 세종 31년(1449)에 관찰사가 충주목의 판목사(判牧事)를 겸직하게 했다가 곧 폐지되었다. 세조 4년(1458)에는 충주진(忠州鎭)으로 바뀌고, 영춘·단양·제천·청풍·괴산·음성·연풍 등 7개 군현의 군정을 관할하였다. 명종 5년(1550) 유신현(維新縣)으로 강등되었다가 1567년 충주진영으로 회복되었다.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 때 신립(申砮)이 관군을 이끌고 탄금대에서 배수진을 쳐 왜군과 대적했으나 중과부적으로 패사하였다. 그러나 조웅(趙熊) 의병군의 항전은 활발하였다.

광해군 5년(1613) 이곳 출신 유인발(柳仁發)이 역적으로 주살되면서 충원현(忠原縣)으로 강등되었다가 인조 1년(1623)에 충주목으로 복구되는 등 이후 영조 40년(1764)까지 7차례에 걸쳐 강등과 복구를 거듭하였다.

역대실록을 보관하는 4대사고(四大史庫)의 하나인 충주사고가 동량면에 있는 개천사(開天寺)에 있었는데,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 1624년 이괄(李适)의 난이 일어났을 때는 이곳 출신 임경업(林慶業)이 공을 세웠다.

임오군란(壬午軍亂) 때 명성황후(閔妃)가 장호원으로 피난 와서 한동안 머물렀다. 고종 32년(1895)에 행정구역 개편으로 관찰부(觀察府)로 승격, 관찰사가 파견되어 충청북도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러나 교통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1908년 도청이 청주로 이전되고, 충주는 군청소재지로 되었다. 1914년 서부의 8면을 음성으로, 남부의 2면을 괴산으로, 동부의 1면을 제천으로 이속시켰으며, 1931년 충주면이 읍으로 승격되었다.

1956년 충주읍이 시로 승격됨에 따라 충주군이 증원군으로 개편되었다. 1958년에는 충주비료공장이 건설되어 농산물 증산에 큰 몫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활석·제분공장이 세워져 산업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1963년 괴산군 상모면이 증원군에 편입되었고, 1973년 이류면 하문리가 괴산군에, 신니면 광월리 일부가 음성군에 이속되었다.

1985년에는 충주다목적댐이 완공되어 농업·공업·식수원이 됨은 물론, 호반의 관광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1995년 도농통합에 따라 증원군이 충주시에 통합되어 새로운 충주시가 되었다. 2005년 4월 1일 상모면이 수안보면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12년 이류면(利柳面)이 대소원면(大召院面)으로, 2014년, 탑평리 칠층석탑이 위치한 가금면(加金面)이 중앙탑면(中央塔面)으로 개칭되었다.



〈출처 및 참고문헌〉

-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국토지리정보원, 2010, 충주시 [忠州市, Chungju-si] 『한국지명유래집』.

충주시 행정구역

구분	지명	계
읍	주덕읍	1
면	금가면, 노은면, 대소원면, 동량면, 산척면, 살미면, 소태면, 수안보면, 신니면, 양성면, 엄정면, 중앙탑면	13
동	성내 · 충인동, 교현 · 안림동, 교현 2동, 용산동, 지현동, 문화동, 호암 · 직동, 달천동, 봉방동, 칠금 · 금릉동, 연수동, 목행 · 용탄동	10



Ⅱ. 문화재 소개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忠州 塔坪里 七層石塔

종 목 국보 제6호

지 정 일 1962. 12. 20.

시 대 통일신라시대

소 재 지 충주시 중앙탑면 탑평리 11
(중앙탑사적공원)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411 → 중앙탑 정류장 하차, 10개 정류장

자전거 충주IC → 중원대로(0.9km) →
첨단산업로(5.8km) → 중앙탑길(0.6km)



개설 화강암 석재의 탑으로 통일신라시대 석탑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높다.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의 중앙부에 위치한다고 하여 ‘중앙탑(中央塔)’이라고도 불린다. 충주 지역은 삼국시대부터 교통의 요지였던 곳으로 삼국은 모두 이 지역을 전진기지로 중시해왔다.

주변 경작지에서는 가끔 기왓장이 출토되고, 또한 석탑 앞에는 석등하대석(石燈下臺石)으로 보이는 8각 연화대석(蓮華臺石)이 남아 있어 이 일대가 신라시대의 절터임을 짐작할 수 있으나, 이곳 유적지에 대하여 아무런 기록이 없으므로 사찰명(寺刹名)은 알 수 없다.

역사적 변천 중앙탑과 관련하여 전해오는 설화 가운데 통일신라 원성왕(재위 785~798)과 관련된 설화는 탑의 건립시기와도 관련된다. 내용은 원성왕 때 신라 국토의 중앙 지점을 알아보기 위해 국토의 남북 끝 지점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보폭을 가진 잘 걷는 사람을 정하여 출발 시켰더니 항상 이곳에서 만났기에 이곳에 탑을 세우고 중앙임을 표시했다고 한다. 중앙탑면에 있는 지명 중 ‘안반내’라는 지명이 있는데 여기서 반내[半川]라고 하는 것은 남북 끝에서 반이되는 내라고 해서 반내라고 했으며 본래는 ‘한반내’였으며 이는 한국의 반, 곧 중앙을 뜻하는 것이 된다는

뜻이라고 한다.

1916년도의 조사에 의하면, 기단부의 일부가 파손되어 점차 기울어지고 있으며, 심할 경우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하여 다음 해에 이 석탑에 대한 전면적인 해체복원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해체 도중 탑신부와 기단부에서 유물이 발견되어 현장에서 수습되었다.

탑신부의 제6층 탑신에서 기록이 있는 서류편(書類片)과 동경(銅鏡) 2점, 목제칠합(木製漆盒), 은제 사리합(銀製舍利盒) 등이 나오고, 기단부에서는 청동제 뚜껑 있는 합[靑銅製有蓋盒] 등이 나왔다. 그리고 탑신부에서 발견된 은제사리합 안에는 유리로 만든 사리병(舍利瓶)이 있고, 그 주변에 몇 개의 사리가 흩어져 있었으며 사리병 안에도 몇 개의 사리가 들어 있었다 한다. 이상의 유물들은 모두 같은 장소에서 출현된 것이나 그 조성연대에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동경 2점은 고려시대의 조성품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이 석탑은 통일신라 건립 이후 고려시대에 이르러 추가로 사리장치가 봉안(奉安)된 것으로 추정된다. 1992~1993년 탑의 북쪽지역 일대를 한국교원대학교박물관이 발굴조사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건물과 관련된 유구들이 일부 확인되었으나 절의 가람과 같은 대규모의 유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형태와 특징 높이 14.5m인 이 석탑의 구조는 2층의 기단 위에 7층 탑신을 형성하고 그 정상에 상륜부(相輪部)를 구성하였다. 기단부는 10여 개의 장대석(長臺石)으로 구축한 지대석 위에 놓였는데 상층·하층의 면석(面石)과 갑석(甲石)이 모두 여러 장의 판석으로 짜여진 것은 이 석탑의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하층기단 면석은 양쪽 우주(隅柱)¹와 탕주(撐柱)² 3주가 정연하고, 상층기단 면석에는 양쪽 우주와 탕주 2주가 모각³(模刻)되었으며, 상층 갑석에는 하면에 부연(副椽)⁴이 마련되어 신라식의 특징을 잘 보이고 있다. 그리고 갑석 위에는 별개의 돌로 마련된 2단의 각형 받침대가 탑신부를 받치고 있다.

탑신부도 하층부에서는 여러매의 석재로 구성하였고 상층부에 이르면서 1매의 석재로 건조하였다. 각 층의 탑신에는 양쪽 우주가 정연하게 모각되었는데 초층은 우주가 별석으로 조성되었고 면

1 모서리기둥

2 받침기둥

3 이미 존재하는 조각 작품을 그대로 본떠 새김.

4 탑 기단의 갑석 하부에 두른 쇠시리

석도 별석이며, 2매의 판석으로 조립되었다.

2층 이상의 탑신은 우주가 모각된 4매의 판석을 엇물림식으로 조립하였거나 혹은 앞뒤 양면에만 양쪽 우주를 모각한 판석을 세우고 그 양쪽(좌우)에는 단순한 판석을 끼워서 면석을 삼았는데, 상층부인 6층과 7층의 탑신석은 1석으로 조성하였다.

옥개석은 초층이 낙수면부와 처마 밑의 옥개받침부가 도합 8석으로 조립되어 있는데, 상층부로 올라감에 따라 낙수면부와 옥개받침부가 1석으로 되어 전체가 2석으로 조립되었으며, 6층과 7층에 이르러서는 1석으로 되었다.

옥개받침은 각 층이 5단씩이고 옥개석 상면에는 각형 2단의 받침대를 만들어 그 위에 탑신을 받치고 있어 신라석탑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낙수면이 평박하고 추녀가 수평이며 네 귀퉁이 전각의 반전(反轉)도 잘 표현되어서 대규모의 석탑으로서는 경쾌한 탑신부를 이루고 있다.

특히, 전각부에는 풍경을 달았던 작은 구멍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창건 당시에는 웅장한 규모에 장엄도 잘 갖추었던 당대의 우수한 석탑이었을 것이다. 상륜부에서 특이한 것은 노반석(露盤石: 탑의 최상부 옥개석 위에 놓아 복발·양화·상륜 등을 받치는 장식)을 이중으로 놓고 그 위에 복발(覆鉢)과 양화(仰花)를 구성한 점이다.

복발 측면에 한 줄의 띠를 돌리고 양련⁵(仰蓮)을 조각한 양화석을 얹은 것은 신라석탑의 전형적인 상륜양식이라 하겠으나, 노반석 2석을 겹친 것은 아직 그 유례를 보지 못한 특수한 형식이라 하겠다.

〈출처 및 참고문헌〉

- 문화재대관 (한국문화재보호협회, 대학당, 1986)
- 국보 (진홍섭 편, 예경산업사, 1983)

5 단청에서, 꽃부리가 위로 향한 연꽃 무늬

충주 청룡사지 보각국사탑

忠州 靑龍寺址 普覺國師塔

종 목 국보 제197호

지 정 일 1979. 05. 22.

시 대 조선시대

소 재 지 충주시 소태면 청룡사지길 147
(오랑리, 청룡사)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입만**
354 → 오랑 정류장 하차, 52개 정류장
자가차량 동충주IC → 충원대로(9.8km)
→ 구룡고개길(2.3km) → 주치길(2.8km)



형태와 특징 높이 263cm, 팔각원당형(八角圓堂形)을 따르면서 새로운 양식이 도입된 부도이다. 지표에 높은 8각지대석이 있고 그 위에 하대석이 놓이는데, 하대석에는 8각의 높은 킴 위에 복판(複瓣) 단엽(單葉) 16판(瓣)의 복련(覆蓮)이 조각되었다.

중대석은 8각으로 배가 볼러서 편구형과 비슷하며, 각 면에는 안상(眼象)을 조각하고 그 안에 사자와 운룡(雲龍)을 교대로 조각하였다. 상대석에는 하대석과 같은 양식의 양련(仰蓮)을 조각하여 마치 하대석을 뒤집어놓은 것 같다.

탑신(塔身)은 구형(球形)에 가까워 회암사지 부도(檜巖寺址 浮屠(보물 제388호))를 연상하게 하나 그 보다는 8각의 형태가 뚜렷이 나타나 있다.

우각(隅角)마다 반룡(蟠龍)¹이 돌을새김된 원주(圓柱)를 강한 부조로 모각하였고, 각 면에는 안상 안에 무기를 든 신장상(神將像)을 1구씩 조각하였으며 기둥 위에는 목조 건물의 가구(架構)를 모각 하되 옥개석(屋蓋石)의 이면까지 연장되었다.

옥개석은 8각으로 이면에는 탑신에서 연장되는 목조 가구가 모각되고 밖으로 16판의 단엽 연화가

¹ 아직 하늘에 오르지 못하고 땅에 서려 있는 용

조각되었으며, 낙수면(落水面)은 급한 경사를 이루고 높은 우동(隅棟)²이 내려와서 끝에는 용두(龍頭)가 조각되었다.

처마 밑은 호선(弧線)³을 그려서 추녀가 높이 들렸고, 꼭대기에는 8판 복련이 조각되었다. 상륜부(相輪部)에는 복발(覆鉢)⁴·양화(仰花)·화염보주(火焰寶珠)가 차례로 얹혀 완형을 이루었다. 이 부도는 원위치에 무너져 있던 것을 1968년 복원하였고, 상륜부는 지하에 파묻혔던 것을 원위치에 복원하였다.

또한, 지대석 밑 지하와 탑신 상면에는 각각 사리공(舍利孔)이 있으나 장엄구들은 일제강점기 말기에 도난당했다. 보각국사 혼수(混修)의 묘탑인 이 부도는 옆에 있는 탑비에 의하여 태조 3년(1394)에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부도의 귀중한 일례로서 회암사 부도·신륵사 보제존자석중(神勒寺普濟尊者石鐘) 앞 석등 등과 양식상 상통하는 바가 있어 조선 전기 석조미술의 표본적 유물로 꼽힌다.

〈출처 및 참고문헌〉

- 문화재대관 (한국문화재보호협회, 대학당, 1986)

2 옥개석의 귀마루

3 활등 모양으로 굽은 선

4 탑의 노반(露盤) 위에 바리때를 얹어 놓은 것처럼 만든 부분.

충주 고구려비

忠州 高句麗碑

종 목 국보 제205호

지 정 일 1981. 03. 18.

시 대 삼국시대

소 재 지 충주시 중앙탑면 감노로 2319
(용전리, 충주고구려비전시관)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411 → 입석삼거리 정류장 하차, 16개 정
류장

자가차량 충주IC → 중원대로(0.9km) →
첨단산업로(5.9km) → 탄금대로(0.6km)



개설 높이 203cm, 너비 55cm이다. 중원 고구려비라고도 하였다. 입석마을에 글자가 새겨진 돌이 있다는 정보에 따라 1979년 4월 8일 단국대학교 학술조사단에 의하여 발견, 조사되었다.

발견 당시 전면(全面)에 바위가끼가 많이 끼어 있어 육안으로는 물론 탁본을 하여도 판독이 어려울 정도였다. 석비의 형태는 석주형(石柱形)으로서 자연석을 이용해 각자면(刻字面)을 갈고 비문을 새겼다.

앞면과 한쪽 옆면에서만 글자를 확인했으나 뒷면과 또 한쪽의 옆면에서도 글자의 흔적을 볼 수 있다. 석질은 견고한 화강암으로 글자의 흔적이 뚜렷하게 보인다.

이렇게 볼 때 4면에 모두 글자를 새긴 4면비(四面碑)로서 글자는 앞면이 10행으로 각 행 23자씩이고, 한쪽 옆면은 7행 23자씩이며, 또 한쪽의 옆면은 6행이 분명한데 뒷면은 너비로 보아서 9행 정도로 추측된다.

내용 비문의 서두에 ‘고려대왕(高麗大王)’이라는 문자가 보이고 ‘전부대사자(前部大使者)·제위(諸位)·하부(下部)·사자(使者)’ 등 모두 고구려의 관등뿐이며, 비문 중의 ‘고모루성(古牟婁城)’은 광개토왕릉비에 보이는 성이므로 고구려의 비임이 분명하다.

석비의 형태가 광개토왕비와 흡사해 두툼하고 무게가 있어 보이며, 자체(字體)도 고졸한 예서풍(隸書風)이다. 자경(字徑)은 3~5cm이며, 마멸이 심해 정확한 글자수는 알 수 없으나 대략 400여자로 추정되었다.



충주 고구려비 전시관 전경

문헌적으로 고찰해 볼 때,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의하면 광개토왕(廣開土王)의 북벌남정(北伐南征) 못지않게 장수왕(長壽王)은 남하정책을 단행해 평양성 천도를 비롯해 한강 유역에까지 이른 전성기를 이루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이곳 한강 유역을 따라 상류에까지 국경을 개척하고 그 기념으로 석비를 세울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이 석비의 건립연대를 5세기대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비는 비문의 마멸이 심해 연구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지금까지 비문의 판독, 그에 따른 내용 해석과 용어, 건립연대, 건립목적 등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문자와 판독 내용 가운데 하나는 다음과 같다.

면	행	원문	
		번역문	
전면	1	원문	五月中高麗太王祖王令 [□] 新羅寐錦世世爲願如兄如弟上下相和守天東來之
		번역문	5월에 高麗太王(長壽王 : 필자주, 이하 생략함)이 祖王의(律) 승으로써 新羅寐錦과 세세토록 형제처럼 상하가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守天할 것을 원하여 동쪽으로 왔다.
	2	원문	寐錦은太子共前部大使者多亏桓奴主簿貴德 [□] 類 [□] 安 [□] □□去 [□] □□到至跪營 [□]
		번역문	(신라)寐錦 은, (고구려) 太子 共과 前部大使者 多亏桓奴 主簿 貴德, ... 가서 ... 跪營에 이르렀다.
	3	원문	太子共 [□] 向 [□] 上共看節賜太霍鄒
		번역문	태자 공이 ... 향하여 ... 위로 함께 (고려태왕을) 뵈고, 이때에 (태왕이) 太霍鄒를 하사했다.

전면	4	원문	敎 [○] 食在 [○] 東夷 [○] 寐錦之衣服建立處用者賜之隨 [○] 節 [○] 寐 [○] 奴客人 [○] 敎諸位賜上下衣 [○] 服
		번역문	(태왕이) 교하여 동이(신라) 매금의 의복건립처에 있던 用者에게 먹게 하였고 (무언가)를 하사했다. 따라서 … 이때에 … 奴客人 … (태왕이) 諸位에게 교하여 (신라매금의) 신하에게 의복을 하사했다.
	5	원문	敎東夷 [○] 寐錦 [○] 還來 [○] 節 [○] 敎賜 [○] 寐錦土內諸衆人 [○] 太 [○] 王 [○] 國土 [○] 大位諸位上下衣服來 [○] 受 [○] 敎跪 [○] 饗之
		번역문	(태왕이) 교하여 동이매금을 불러 돌아오게 하였고, 이때에 교하여 매금 땅의 여러 衆人(과) … 태왕국토의 大位 諸位 신하들에게 의복을 하사했는데, (그들이) 교를 받들고자 跪饗에 왔다.
	6	원문	十二月廿三日 [○] 甲寅東夷 [○] 寐錦上下至于伐城
		번역문	12월 23일 갑인에 동이매금의 신하가 于伐城에 이르렀다.
	7	원문	敎來前部 [○] 大使者多 [○] 亓 [○] 桓奴主簿 [○] 貴德 [○] 境 [○] 募人三百
		번역문	(태왕이) 교하여 전부대사자 다우한노와 주부 귀덕 (등)을 … 오게 해 … 변경의 3백인을 모으도록 했다.
	8	원문	新羅土內幢主下部拔 [○] 位使者補奴 [○] 疏 [○] 奴 [○] 鬼蓋盧共 [○] 募人
		번역문	(이에) 신라영토 내의 당주인 下部拔位使者 補奴와 … 疏奴 … 鬼蓋盧가 함께 사람을 모았다.
좌측면	9	원문	新羅土內衆人駐動 [○]
		번역문	신라영토 내의 衆人이 머뭇거리면서 움직여 … (좌측면과 이어짐)
	10	원문	… 于伐城 … 辛 [○] 酉 … 太王國土 … 辛酉 … 東夷 [○] 寐錦土 … 方 [○] 相故 [○] 沙 [○] 斯色 [○] 太古鄒加共軍至于伐 [○] 城 [○] 去 [○] 于 [○] 古牟婁城守事下部大兄耶 [○]
		번역문	… 于伐城 … 酉 … 太王國土 … 辛酉 … 東夷寐錦土 … 方 [○] 相故 [○] 沙 [○] 斯色 [○] (해석 불능) 태고추가 공의 軍이 于伐城에 이르렀고, … 古牟婁城의 守事인 下部大兄 耶 [○] …

또한 그 외 연구사적 쟁점으로 3면비·4면비인가의 문제와, 시작면이 어느 면인지 하는 문제 그리고 서체 등에 관한 것이 있다. 2000년 고구려연구회의 연구에 따라 4면비임은 확실해졌으나 시작면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석비가 있는 마을 주위에는 골짜기마다 많은 고분이 있고, 그리 멀지 않은 탑평리 7층석탑 주변에서는 삼국시대의 기와들이 수집되며, 뒤쪽 장미산(長尾山, 또는 薔薇山)에는 삼국기 축조로 보이는 산성이 있다. 그리고 불과 4km 직선거리인 북쪽 봉황리에는 삼국시대의 마애불상들이 있다. 특히 면계(面界)를 이루는 노은면에서는 일찍이 “건흥5년세재병진(建興五年歲在丙辰)”의 명문이 있는 고구려시대 금동광배(金銅光背)가 출토된 일이 있다.

이러한 모든 점을 종합해 볼 때, 이곳 입석마을을 중심으로 역사·지리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동시에 이 석비 건립의 시대적 배경과 입지적 조건 등을 이해할 수 있다. 국내에서 발견된 유일의 고구려비이므로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또한 5세기 고구려·신라 관계, 고구려 관등조직, 인명표기방식 등 문헌에 없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출처 및 참고문헌〉

- 중원고구려비의 연구동향과 주요쟁점 (장창은, 역사학보 189, 2006)
- 삼국관계사에서 본 중원고구려비의 의미 (정운룡, 고구려의 국제관계, 2005)
- 중원고구려비, 선돌에서 한반도 유일의 고구려비로 (최장열, 고대로부터의 통신, 푸른역사, 2004)
- 중원고구려비를 통해 본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 (임기환, 중원고구려비 연구, 학연문화사, 2000)
- 중원고구려비 부근의 고구려 유적과 유물 (장준식, 중원고구려비 연구, 학연문화사, 2000)
- 중원고구려비에 나타난 고구려 성과 관방체계 (서영일, 중원고구려비 연구, 학연문화사, 2000)
- 중원고구려비와 고구려 금석문의 서체에 대하여 (김양동, 중원고구려비 연구, 학연문화사, 2000)
- 중원고구려비와 신라 비와의 비교 (이용현, 중원고구려비 연구, 학연문화사, 2000)
- 중원고구려비의 건립년대 (김창호, 중원고구려비 연구, 학연문화사, 2000)
- 중원고구려비의 건립 목적 (이도학, 중원고구려비 연구, 학연문화사, 2000)
- 중원고구려비의 발견조사와 의의 (정영호, 중원고구려비 연구, 학연문화사, 2000)

충주 억정사지 대지국사탑비

忠州 億政寺址 大智國師塔碑

종 목 보물 제16호

지 정 일 1963. 01. 21.

시 대 조선시대

소 재 지 충주시 엄정면 비석2길 35-21(괴동리)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344 → 비석 정류장 하차, 23개 정류장

자가차량 동충주IC → 충원대로(3.7km)
→ 내창로(0.8km) → 내창로(1.0km)



개설 비신 높이 267cm, 너비 130cm, 두께 24cm. 화강암 석재로서 개석은 없고 비신의 상부를 좌우로 귀절이하였는데, 보존 상태는 좋은 편이다. 비문은 박의중(朴宜中)이 짓고 승려인 선진(旋軫)이 쓰고 또 전액도 하였으며, 국사의 문인인 중윤(中允)이 태조 2년(1393)에 세우고 혜공(惠公)이 각자(刻字)하였다.



비문에 국사의 이름은 찬영(粲英), 자는 고저(古樵), 호는 목암(木菴), 속성은 한씨, 양주 사람이고, 또 지감국사와 탐명인 혜월원명(慧月圓明)은 시호임을 밝히고 있다. 이밖에도 충숙왕 15년(1328)에 출생하여 14세에 수법하고 공민왕의 명으로 내원(內院)에 들어가 왕을 보살피고 우왕·창왕에게도 충성을 다하였으며, 공양왕 2년(1390) 63세로 입적할 때까지의 경력과 국사의 천부적 자질과 인품·학력 등을 기리는 내용이 실려 있다.

또한 음기(陰記)¹에는 국사의 문도들과 속인 문도들의 이름을 새겼다. 글씨는 당시 송설체가 유행할 때였으나, 그 영향은 전혀 보이지 않고 왕희지(王羲之)의 법을 잘 체득한 것으로서 구양순(歐陽詢)과 우세남(虞世南)의 법을 겸수한 듯한 느낌이 든다. 필력이 굳세고 결구도 잘된 작품이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송설체가 크게 유행하면서 점점 서격(書格)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 비는 그 과도기의 것으로 고려시대의 여운이 남아 있는 마지막 글씨 중의 하나로 꼽을 수 있다.

〈출처 및 참고문헌〉

- 한국금석총목 (장충식 편, 동국대학교출판부, 1984)
- 한국금석문대계 (조동원, 원광대학교출판국, 1981)
- 朝鮮金石總覽 (京城 朝鮮總督府, 1919)

¹ 비 뒤에 새긴 글

충주 정토사지 법경대사탑비

忠州 淨土寺址 法鏡大師塔碑

종 목 보물 제17호

지 정 일 1963. 01. 21.

시 대 고려시대

소 재 지 충주시 동량면 하천리 177-6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317 → 하천구(회차) 정류장 하차, 28개 정
류장

자카차량 동충주IC → 충원대로(2.5km)
→ 지등로(3.1km) → 호반로(7.5km)



개설 태조 26년(943) 건립되었다. 비신 높이 315cm, 너비 142cm, 두께 31cm. 대리석제 비신은 탄흔을 제외하고 모두 완전하다. 당대의 탑비 양식을 잘 따르고 있는데 귀두(龜頭)나 이수(螭首)¹의 용조각은 사실적인 편이다. 이수 앞면 중앙에는 ‘법경대사(法鏡大師)’라는 제액(題額)²이 해서로 쓰여 있다.

비문에는 법경대사의 행적이 상세히 적혀 있는데, 20세에 불가에 입문하였고, 925년 당나라에서 귀국하자 경애왕은 국사로 예우하고 정토사 주지로 청하였으며, 63세로 임직하자 태조는 ‘법경(法鏡)’의 시호와, ‘자등(慈燈)’의 탑명을 내렸다 한다. 비문은 당대의 명문 최언위(崔彦擧)가 지었으며, 유명한 서예가 구족달(具足達)이 썼다. 구족달의 글씨는 구양순체를 바탕으로 하여 붓의 힘이 굳세다.

〈출처 및 참고문헌〉

- 한국금석문대계 (조동원, 원광대학교출판국, 1981)
- 朝鮮金石攷(葛城末治, 京城 : 大阪號書店, 昭和 10(1935))

¹ 종정(鐘鼎) · 궁전의 섬돌 · 인장 · 비석의 머리 따위에 붙 없는 용(龍)의 모양을 아로새긴 형상. 이두(螭頭).

² 액자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림.

충주 미륵리 오층석탑

忠州 彌勒里 五層石塔

종 목 보물 제95호

지 정 일 1963. 01. 21.

시 대 고려시대

소 재 지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사지길 150(미륵리)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245 → 미륵리 정류장 하차, 45개 정류장

자가차량 충주IC → 중부내륙고속도로
(17.0km) → 안보로(2.8km) → 미륵송계
로(8.2km)



형태와 특징 높이 6m, 단층기단 위에 5층의 탑신을 세웠으며, 상륜부(相輪部)는 노반(露盤)¹, 복발(覆鉢)², 찰주(擦柱)³가 남아 있다.

기단면석은 자연석에 가까운 큼직한 방형석(方形石)으로 우주(隅柱)나 탕주(撐柱)⁴가 표현되지 않았다. 갑석(甲石)은 매우 좁은 2매의 판석으로 되어 있는데, 아래 면에는 형식적인 부연(副椽)⁵이 있으며 윗면은 경사가 뚜렷하다. 갑석 중앙에는 역시 형식적인 2단의 콤이 모각되어 있다.

탑신부는 1층 옥개석(屋蓋石)이 2매일 뿐, 옥신(屋身)이나 다른 옥개석은 모두 1매씩이다. 각층 옥신에는 옥신의 넓이에 비하여 좁은 우주를 새겨 형식적인 느낌을 주며, 각 층의 체감 비율도 고르지 않아 매우 소략해보인다.

옥개석은 일반형 석탑의 옥신과 옥개석의 비례를 따르지 않고 급격하게 좁아져 석탑 전체의 균형

1 탑의 최상부 옥개석 위에 놓아둔 장식

2 탑의 노반 위에 놓은 바리때 모양의 장식

3 탑의 중심기둥

4 넘어지지 않게 버티는 기둥

5 탑 기단의 갑석 하부에 두른 쇠사리

을 깨뜨리고 말았다. 옥개받침은 각 층 5단씩이지만 추녀⁶가 짧아서 6단 받침 같아 보인다. 추녀 밑은 수평이고 윗면의 경사는 매우 급하며 전각(轉角)의 반전(反轉)도 거의 없는 편이다. 옥개석 정상면에는 낮은 킴 1단씩을 모각하여 그 위층의 옥신석을 받치고 있는데 이것 또한 형식적이다.

상륜부에는 노반과 복발·찰주가 남아 있는데, 노반은 6층 옥개로 보일만큼 큼직하고, 복발은 조각이 없는 반구형(半球形)이다. 정상에 찰주가 남아 있는 것은 드문 예이다.



의의와 평가 5단의 옥개석 받침과 직선의 추녀는 통일신라시대 석탑의 양식을 따른 것이지만, 낙수면의 급경사와 각 부 킴대의 형식화, 우주의 모각과 석재의 다듬기가 고르지 못하고 소략한 것 등은 조형 감각의 둔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건립 시기가 통일신라시대보다 후대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석탑의 뒷면에는 석굴로 추정되는 곳이 있고 앞면에는 석등이 있어 큰 사원이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석굴로 추정되는 곳에는 충주미륵리 석조여래입상(보물 제96호)이 있다. 석굴사원은 고려 초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나, 석탑은 고려 중기에 건립된 것으로 여겨진다.

〈출처 및 참고문헌〉

- 문화재대관 (한국문화재보호협회, 대학당, 1986)
- 국보 (진흥섭 편, 예경산업사, 1983)

⁶ 네모지고 끝이 번쩍 들린, 처마의 네 귀에 있는 큰 서까래 또는 그 부분의 처마

충주 미륵리 석조여래입상

忠州 彌勒里 石造如來立像

종 목 보물 제96호

지 정 일 1963. 01. 21.

시 대 고려시대

소 재 지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사지길 150(미륵리)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245 → 미륵리 정류장 하차, 45개 정류장

자가차량 충주IC → 중부내륙고속도로
(17.0km) → 안보로(2.8km) → 미륵송계
로(8.2km)



개설 높이가 10.6m에 이른다. 고려 전기 충청도, 전라북도 일대에서 많이 만들어진 대형 불상들과 양식적 특징을 같이 하는 석조여래입상으로 사적 제317호인 충주 미륵대원지(彌勒大院址)의 주존불(主尊佛)이다. 미륵대원은 거대한 돌을 거칠게 다듬어 차곡차곡 쌓아 만든 일종의 석굴 사원이며, 석축 위에 목조건물이 있었던 자취가 있으나, 지금은 남아 있지 않다. 현지에서 '미륵당초(彌勒堂堂草)'라고 새겨진 기와가 나왔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북쪽을 바라보는 북향의 절터이며, 암벽을 파고 만든 석굴은 아니지만 석굴암과 같은 석굴 건축을 모방한 것으로 해석된다.

형태와 특징 모두 5개의 석재를 다듬고 쌓아올려 불상을 만들고 1개의 얇은 판석을 넓적하게 팔각으로 깎아 갓을 만들어 머리 위에 올렸다. 크기가 다른 돌들을 적당히 잘라 올린 신체는 어디에도 사실성이 없이 장승처럼 보인다. 옷주름도 최소로만 표현되어 옷을 입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정도이다.

원통에 가까운 신체는 지극히 단순하게 처리되어 상체와 하체의 구분이 없고, 손과 발만 알아볼 수 있다. 가슴 앞에 모은 손으로 둥근 약함(藥盒)을 들어서 약사여래로 조성됐을 가능성이 있으나, 현지 지명과 사찰지의 이름이 모두 미륵이기 때문에 미륵불로 신앙됐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충주

미륵리석조여래입상의 경우에는 수인(手印)이나 지물(持物)로 불상의 이름을 확정하기 어렵다. 소박한 신체에 비해 얼굴은 공을 들어 이목구비를 분명하게 나타냈다. 양감이 전혀 없는 둥근 얼굴에 반원형의 눈썹, 수평적인 눈, 넓직한 코와 입술이 치졸한 수법으로 딱딱하게 묘사되어 장승의 느낌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전설에 의하면 경순왕의 아들 마의태자와 마의태자의 누이인 덕주공주가 신라의 멸망을 슬퍼하면서 금강산으로 가다가 월악산에 이르러, 덕주공주는 제천 쪽에 덕주사를 짓고 제천 덕주사 마애여래입상(보물 제406호)을 새겨 남쪽을 바라보도록 만들었고, 태자는 이곳에 북쪽의 덕주사를 바라보도록 석굴을 세운 뒤 개골산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의의와 평가 10m에 이르는 규모, 장승처럼 표현된 신체, 경직된 얼굴 묘사, 정확하지 않은 도상¹(圖像)과 같은 특징은 고려전기에 전국적으로 유행했던 석불의 특징이다. 각 지방마다 앞다퉈 지방색이 반영된 거대 석불을 조성하던 고려 전기의 사회적 분위기를 잘 반영하는 불상으로 의미가 있다.



석조여래 입상 측면

〈출처 및 참고문헌〉

- 문화재도록 (전라남도, 1992)
- 문화재청 (www.cha.go.kr)

¹ 특히 기독교 미술 작품에서, 일정한 종교적·신화적 주제의 의의를 지니고 제작된 미술품에 나타난 인물 또는 형상.

충주 철조여래좌상

忠州 鐵造如來坐像

종 목 보물 제98호

지 정 일 1963. 01. 21.

시 대 고려시대

소 재 지 충주시 사직산12길 55(지현동, 대원사 경내 위키)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172, 240 → 공설시장 정류장 하차, 5개 정류장

자가차량 충주IC → 중부내륙고속도로 (0.9km) → 중원대로(7.4km) → 사직로 (1.3km)



형태와 특징 높이 98cm. 충주공업고등학교 근처에 있던 철불좌상을 1922년 충주군청으로 이전하였다. 1937년에 다시 마하사(摩訶寺)로 이전되어 보관되어 오다가, 1959년 현재 소장처인 대원사로 이전되었다. 이런 까닭으로 이 불상은 광배와 대좌, 두 손이 결실되고 불신만 남았는데, 1982년에 새로 세운 전각에 봉안되면서 두 손은 나무로 만들어 넣었다.

불신은 이마 위의 나발 몇 개를 제외하고는 거의 완전한 상태이다. 육계는 머리와 구별이 불분명하며 높직하다. 나발들은 성기면서 뾰족하게 표현되었다.

이 불상의 얼굴은 매우 개성있게 표현되었다. 얼굴은 거의 사각형에 가까우며 비교적 양감 있는 편이다. 길게 쭉 찢어지게 표현한 두 눈의 특이한 묘사로 무섭게 일그러진 표정이 되었다. 이것은 코와 입의 윤곽선을 뺀의 살로 경계 짓게 한 표현으로 더욱 두드러져 보인다. 강인하면서도 무서운 얼굴의 인상은 신체와 옷자락 무늬의 엄격한 좌우 대칭적 표현과 조화를 이루어 이 불상의 특징을 더욱 극명하게 나타낸다.

목의 삼도는 의문과 비슷하게 일정한 삼단형인데, 목을 접합시킨 것처럼 처리되어 있다. 어깨는 널찍하면서 듬직하게 표현되었고 둥근 어깨선은 팽만감을 느끼게 한다. 좌우로 팔이 대칭적으로 놓여 있다. 이와 함께 가슴은 굴곡지게 처리되었지만, 자연스러운 양감이 아니어서 매우 도식적이다.

넓게 벌려 결가부좌(結跏趺坐)¹한 두 다리의 표현은 다리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굴곡이 거의 없다. 무릎의 둥근 처리로 겨우 하체라는 인상을 줄 뿐이다. 두 발 역시 엄격한 좌우대칭으로 두 다리에 일정한 간격으로 그냥 올려놓은 듯한 인상이다.

이러한 좌우대칭은 불의의 옷자락 무늬에서 보다 극명하게 표현되었다. 통견 불의의 의문은 엄격한 좌우대칭에 의하여 묘사되었다. 어깨에서 내려오는 가슴의 옷깃과 네 가닥 주름의 대칭적 묘사, 여기서 내려온 U자형의 세 가닥 옷주름, 팔의 옷주름 선, 다리의 평행한 대칭의 옷주름 등에도 엄격한 도식적인 표현이 잘 나타나 있다. 뒷면의 옷주름 역시 비사실적으로 성기게 표현되었다.

〈출처 및 참고문헌〉

- 문화재대관 (한국문화재보호협회, 대학당, 1986)
- 고려 후기 단아양식불상의 연구 (문명대, 고문화 22, 한국대학박물관협회, 1983)

¹ 완전히 책상다리를 하고 앉는 가부좌.

충주 단호사 철조여래좌상

忠州 丹湖寺 鐵造如來坐像

종 목 보물 제512호

지 정 일 1969. 07. 18.

시 대 고려시대

소 재 지 충주시 충원대로 201(단월동)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610 → 단월동 정류장 하차, 4개 정류장

자가차량 충주IC → 중부내륙고속도로
(0.9km) → 충원대로(4.4km) → 서부순환
대로(3.5km)



형태와 특징 충주단호사 철조여래좌상은 머리에 나발(螺髮)이 촘촘하며, 육계(肉髻)에는 정상과 중앙에 커다란 반달모양의 계주(髻珠)가 있으나, 그 경계가 확실치는 않다. 얼굴은 긴 타원형이며, 좁은 이마의 중앙에는 작은 구슬모양의 백호(白毫)¹가 도드라지게 표현되었다. 이목구비는 개성적으로 표현되었다. 즉, 물결치듯 내려보는 버들잎 모양의 눈매, 돌출한 광대뼈, 눈썹에서 날카롭게 이어진 삼각형의 콧날, 양다문 입술과 움푹 파낸 입 주변, 힘을 주어 당긴 턱 등에서 풍기는 인상은 과장되고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콧볼을 뚫은 양 귀는 목 부분까지 길게 늘어졌으며, 링을 감은 듯 목에는 삼도가 굽게 돌려져 있다.

법의를 양어깨를 덮은 통견 착의법이며, 불신에 표현된 옷주름은 철저히 좌우 대칭을 이룬다. 양어깨에는 평판적인 층단 주름이 사용되었고, 팔뚝에는 곡률의 변화가 있는 용기선들로, 복부에는 날 선 요철 주름으로, 넓은 다리에는 단순한 수평의 용기선 주름을 반복하여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였다. 양 어깨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다소 두꺼운 옷깃 사이로 리본 매듭으로 묶어 맺을 낸 내의(內衣)가 표현되었다. 다리 사이로는 석굴암 본존불상 이래 고려시대 불상까지 흔히 볼 수 있는 부채꼴 주름을 표현하였지만, 통일신라시대의 것과 비교해 너무 형식적이고 도식화되어 시대 변

¹ 부처의 32상(相)의 하나. 두 눈썹 사이에 난 희고 빛나는 가는 터럭으로, 광명을 무량세계(無量世界)에 비춘다 함.

화를 감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양 무릎에는 손가락으로 쿡 찍어 누른 듯한 3줄의 수직단선 주름이 표현되어 있다. 이런 모양의 주름은 장흥 보림사 철조비로자나불상이나 불국사 금동불상 등 통일신라 9세기 중·후반부터 등장하는 주름으로써, 이 불상도 이러한 9세기 불상의 전통을 부분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의와 평가 충주단호사 철조여래좌상은 얼굴 부분의 세부 표현기법, 머리에 표현된 반달 모양의 계주, 무릎 앞에 내려오는 부채꼴 주름 등에서 고려 불상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좁고 둥근 어깨, 볼륨감이 사라진 평평한 가슴, 상체가 전체적으로 각진 모습, 과장된 얼굴표현에서 오는 부자연스러움 등에서 형식화와 도식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불상은 바로 인근 대원사에 소장되어 있는 충주 철조여래좌상과 같은 작가나 공방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보이므로 불상 유파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한편 지리적으로 인접한 원주지역에서 출토된 철불과도 유사한 양식적 특징을 보이고 있어 당시 철불 제작의 양상과 이 시기 이들이 추구했던 미의식을 파악하는 데에 좋은 자료이다.

〈출처 및 참고문헌〉

- 철불 (최성은, 대원사, 1995)
- 고려시대 철불상의 고찰 (이인영,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 국보 (황수영 편저, 예경산업사, 1986)
- 영천선원동 철불좌상 (정영호, 『고고미술』91, 한국미술사학회, 1990)

충주 청룡사지 보각국사탑 앞 사자석등

忠州 靑龍寺址 普覺國師塔
앞 獅子石燈

종 목 보물 제656호

지 정 일 1979. 05. 22.

시 대 조선시대

소 재 지 충주시 소태면 청룡사지길 147
(오량리, 청룡사)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354 → 오량 정류장 하차, 52개 정류장

자가차량 동충주IC → 충원대로(9.8km)
→ 구룡고개길(2.3km) → 주치길(2.8km)



개설 보각국사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만들어진 장명등¹(長明燈)으로서, 고려시대에 유행한 전형적인 방형등(方形燈)의 일종이다.

청룡사는 고려시대 말부터 조선시대 초기에 걸쳐 조성되었다고 추정되는 사찰로 오량리 뒷산인 청룡산의 남쪽 기슭에 자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청룡사의 옛모습은 찾아볼 길이 없고 다만 절터 북쪽 골짜기에 석등 지대석과 함께 보각국사정혜원용탑과 탑비(塔碑)만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을 뿐이다. 이 석등은 본래 보각국사비와 정혜원용탑앞에 배례석과 함께 부도를 장엄하기 위해 조성된 것이나 최근 대웅전 앞으로 이견하여 원래의 위치에는 현재 지대석만 남아 있다.

형태와 특징 높이 203cm인 이 석등은 현재 상륜부(相輪部)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부재가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모든 부재가 네모난 데 비하여 하대석(下臺石)이 사자상으로 되어 있어 일명 사자석등이라고도 한다.

1매의 돌로 이루어진 네모난 지대석(地臺石)은 윗면에 사자를 안치하기 위하여 사자모양의 윤곽이 패어 있으며, 거북모양의 사자 1마리가 하대석 대신 놓여 있다. 푹 볼거진 눈과 코, 날카로운 이를

¹ 능묘 앞에 설치한 석등

드러내 놓고 있는 사자상은 울퉁불퉁한 근육과 함께 내딛고 있는 앞다리·뒷다리가 매우 힘있게 표현되었다.

그리고 정면을 향하여 구부리고 있는 사자의 등에는 초화문(草花文)이 정연하게 조식되어 있는 말안장모양의 네모난 장식이 표현되어 있는데, 그 위에는 중대석인 간주석(竿柱石)을 떠받들 수 있도록 1단의 네모꼴받침이 마련되어 있다.

역시 1매의 돌로 낮게 조성된 간주석의 네 면에는 쐐자 모양의 안상(眼象)이 두 겹의 선으로 조식되어 있으며, 각 안상 내부에는 삼각형을 이루는 3개의 원형무늬와 함께 그 주위를 감싸고 있는 불꽃무늬[火焰文]가 선각되어 있다. 지대석과 같이 네모꼴을 한 상대석은 아랫부분에 1단의 각형받침이 돌출되게 조각되었고 8엽의 복판양련대(複瓣仰蓮臺)가 마련되어 있다.

다른 부재와 마찬가지로 1매의 돌로써 만들어진 화사석²(火舍石)은 네 모서리에 둥근기둥모양(圓柱形)이 모각(模刻)되어 있으며, 불을 넣는 화창(火窓)은 앞뒤로 2개만 설치되었다.

화사석 위의 옥개석(屋蓋石) 역시 한 매의 네모난 돌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밑부분에는 1단의 각형받침과 함께 네 개의 서까래모양이 모각(模刻)되어 있으며, 지붕의 낙수면은 완만한 경사로 궁형(弓形)을 이루고 있다.

추녀 끝이 조금 치켜올라간 처마의 곡선은 약간 반전하고 있으며, 합각의 용마루는 둔하고 두꺼운 고려시대 승탑(僧塔)의 옥개석 양식을 따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상륜부는 보주(寶珠)를 설치하였던 흔적만이 남아 있을 뿐 결실되었다.

의의와 평가 승탑·탑비와 더불어 일렬로 배치된 이 석등은 조선 전기의 배치 방법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경기도 여주시 천송동의 여주 신흥사 보제존자석종 앞석등(보물 제231호)에서도 이와 같은 배치형태의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이 석등은 탑비에 기록된 내용으로 미루어 조선 초기인 태조 1년(1392)부터 그 이듬해인 1393년 사이에 걸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조성연대를 알 수 있는 조선 초기의 석등으로서 가치가 높다.

〈출처 및 참고문헌〉

- 문화재대관 (한국문화재보호협회, 대학당, 1986)

충주 청룡사지 보각국사탑비

忠州 靑龍寺址 普覺國師塔碑

종 목 보물 제658호

지 정 일 1979. 05. 22

시 대 조선시대

소 재 지 충주시 소태면 청룡사지길 147
(오량리, 청룡사)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354 → 오량 정류장 하차, 52개 정류장

자가차량 동충주IC → 충원대로(9.8km)
→ 구룡고개길(2.3km) → 주치길(2.8km)



개설 비신 높이 322cm, 너비 115.5cm, 두께 20.5cm, 석재는 화강암으로, 개석은 없고 네모난 대석(臺石)과 비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 및 글자의 일부가 파손·마멸되었다.

비문은 권근(權近)이 짓고 글씨는 승려 천택(天澤)이 썼으며, 문인(門人)인 희진(希進)이 세웠다. 태조 3년(1394)에 건립되었다.

비문에 보각국사의 이름은 혼수(混修), 자는 무작(無作), 호는 환암(幻菴), 속성은 조씨, 풍양현 사람이며, 보각국사와 탑명인 정혜원응은 시호임이 나타나 있다. 이 밖에 보각국사가 충숙왕 7년(1320)에 출생하여 계송(繼松)에게 법을 받고, 충혜왕 2년(1332)에 승과에 급제한 뒤, 우왕 9년(1383)에 국사가 되고 73세에 입적한 일, 그리고 국사의 덕과 지혜는 나라에서 추앙할 만하여 왕명으로 비를 세운다는 명문이 적혀 있다.

글씨는 북위의 묘지명과 왕희지(王羲之), 그리고 우세남(虞世南) 등의 서풍들을 잘 융합하여 썼는데 필력이 뛰어나고, 결체가 조밀하여 빈틈이 없다.

〈출처 및 참고문헌〉

- 한국금석총목 (장충식 편, 동국대학교출판부, 1984)
- 한국금석문대계 (조동원, 원광대학교출판국, 1980)

선림보훈

禪林寶訓

종 목 보물 제700-2호

지 정 일 2017. 10. 31.

시 대 고려시대

소 재 지 충주시 중앙탑면 중앙탑길 112-28
(탑평리, 충주박물관)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입반**
411 → 중앙탑 정류장 하차, 10개 정류장,
충주박물관

자기차량 충주IC → 중원대로(0.9km) →
첨단산업로(5.8km) → 중앙탑길(0.6km),
충주박물관



개설 2권 1책. 목판본. 송나라 종고(宗杲)와 사규(士珪)가 선덕(先德)조사의 고담(高談)과 총림(叢林)의 유훈(遺訓)을 모은 것을 정선(淨善)이 다시 편집한 것으로 우왕 4년(1378) 간행되었다.

권말에 있는 고려 말의 승려인 환암(幻菴)의 발문과 간행기록에 의하면, 상위(尙偉)와 만회(萬恢)가 모연(募緣)¹하고, 우바새(優婆塞) 고식기(高息機)와 우바이(優婆夷) 최성연(崔省緣)의 시주로 1378년에 충주청룡사(靑龍寺)에서 개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때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도 함께 개판되었다.

이 『선림보훈』은 현재 전해지고 있는 여러 판본 가운데 권말의 간기²가 완전하게 남아 있고 각자(刻字)와 인쇄가 가장 정교한 고려본으로 2017년보물로 지정되고 일반에 공개된 귀중한 자료이다.

〈출처 및 참고문헌〉

- 忠州 靑龍寺 刊行의 禪林寶訓에 관한 研究 (박문열, 서지학 연구 72, 2017)

¹ 돈이나 물건을 기부하여 연을 맺음

² 간행물에서, 출판한 때 · 곳 · 간행자 등을 적은 부분

충주 봉황리 마애불상군

忠州 鳳凰里 磨崖佛像群

종 목 보물 제1401호

지 정 일 2004. 03. 03.

시 대 삼국시대

소 재 지 충주시 중앙탑면 봉황리 산27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404 → 내동마을 정류장 하차, 31개 정류장
자가차량 동충주IC → 종원대로(1.4km)
→ 북부로(7.8km) → 묘곡내동길(1.7km)



형태와 특징 강이 내려다보이는 절경의 바위 면에 새겨진 마애불상군으로, 바로 이웃한 두 절벽에 새겨져 있다.

1군은 대마애불좌상이다. 큰 절벽의 전면에 걸쳐 고부조(高浮彫)¹로 큰 마애불을 새긴 것이다. 결가부좌로 앉아 있는 이 마애불좌상은 무릎이 넓고 높아 특이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머리는 나발의 머리칼에 육계는 얇으며, 얼굴은 둥글지만 네모난 모습에 가깝다. 눈·코는 길고 가늘며 입은 큰 편인데 고졸한 미소를 띠고 있다.

상체는 사각형에 가까우면서 다소 평판적인데 군데군데 파손이 있다. 하체의 무릎은 높고 넓어 신체 전체가 삼각형 구도를 나타내고 있다. 머리 주위로 연꽃대좌에 문힌 듯 앉아 있는 화불(化佛)들이 여러 구 새겨져 있는데, 연화생(蓮花生)하는 모습처럼 보인다. 이러한 수법은 영주 북지리 마애불상과 유사한 면이지만 이 불상이 좀 더 경직된 듯한 인상이다.

다른 1군은 약간 떨어진 곳의 낮은 절벽에 새겨졌으며, 상당수의 불상군을 나타내고 있다. 이 암면은 본존과 다른 상 사이에 깊은 결락(缺落)²이 있어서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셈이다. 본존은 향

¹ 모양이나 형상을 나타낸 살이 매우 두껍게 드러나게 한 부조

² 한 귀퉁이가 떨어져 있어 할 것이 빠짐. 또는 빠진 것.

좌(向左)의 상석 불좌상인데 오른쪽 무릎 일부를 제외하고는 무릎 전부가 탈락되었다.

전체 불상은 앞의 대마애불상과 비슷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육체의 형태, 평판적이고 사각형에 가까운 얼굴, 눈·코·입·귀 등이 길고 가는 것 등이 비슷하다. 상체 역시 사각형에 가깝고 평판적인 건장한 모습이며, 통견의 불의(佛衣)에 옷주름은 굽은 띠주름을 이루고 있다.

오른손은 들고 왼손은 내린 시무외여원인(施無畏與願印)의 인상을 짓고 있는데 손은 비교적 사실적인 편이다. 왼다리는 세웠고, 오른다리는 꿇어앉아 무언가를 바치는 공양상이다. 상체나 무릎 등이 세장(細長)한 편이어서 편년 자료가 어느 정도 파악된 셈이다.

불좌상에 이어 반가사유상과 함께 보살 5구를 새기고 있다. 반가사유상은 상체와 팔 등이 너무 세장하며 하체는 굽고 듬직하다. 왼쪽(向左) 보살상 1구와 오른쪽에 4기의 입불상이 새겨져 있는데 세장한 체구와 단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중국의 수나라 이래 표현되던 불상 특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삼국 가운데 당시 이 지역을 통치하던 신라 제작으로 추정되는데, 원래의 양식 특징은 북위의 영향을 받은 고구려 양식에 원류를 두었다고 생각되지만 북제·수 양식이 이 불상에 중점적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출토된 납석제 불보살병존입상이나 금동불광배 등과 함께 이 지역 불상의 역사적 의의는 여러 모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출처 및 참고문헌〉

- 문화재지 (충청북도, 1982)

충주 백운암 철조여래좌상

忠州 白雲庵 鐵造如來坐像

종 목 보물 제1527호

지 정 일 2007. 10. 24.

시 대 통일신라시대

소 재 지 충주시 엄정면 내창로 617-80(괴동리)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344 → 직동삼거리 정류장 하차, 26개 정
류장

자가차량 동충주IC → 충원대로(4.0km)
→ 내창로(0.8km) → 내창로(3.4km)



개설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괴동리 소재의 백운암은 1886년 무당의 신분으로 진령군이라는 작호를 받아 여자 대감이 된 윤씨에 의하여 창건된 사찰로 전해진다. 이 사찰의 주불전인 대웅전에는 나팔여초에 조성된 철조여래좌상이 봉안되어 있다. 원래 이 불상은 인근 대규모 사찰이었던 역정사지에서 옮겨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충주는 철의 산지로 이 철불과 함께 대원사 소장 충주철조여래좌상(보물 제98호) 및 충주 단호사 철조여래좌상(보물 제512호)이 전하며, 이들을 일컬어 충주지방의 3대 철불이라고 한다. 여러 조각을 나누어 주조하여 이어 붙인 흔적이 표면에서 확인된다. 2006년 수리·보수를 실시하여 개금과 녹을 걷어내고, 결손 된 부분을 보수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형태와 특징 나팔로 촘촘히 표현된 머리에는 큼직한 육계가 솟아 있으며, 중앙에는 나팔과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작은 중앙계주가 부착되어 있다. 특히 이 상은 가름한 얼굴, 물결치듯 치켜 올린 날카로운 눈초리, 큼직한 콧방울을 가진 코, 두터운 입술로 인하여 실재감이 강한 얼굴이다. 다소 긴 목에는 삼도가 뚜렷이 표현되었으며, 부드럽게 곡을 준 어깨는 당당하다. 편단우견의 대의는 신체에 착 감기듯 착용하여 가슴근육과 신체의 볼륨이 잘 드러난다. 왼쪽 어깨에는 대의를 접어 높낮이가 다른 삼각형의 띠 주름을 표현하였으며, 비스듬히 흘러내린 주름은 다소 섬약하지

만 리듬과 탄력이 살아 있다. 수인을 보면, 오른손은 무릎 아래로 내려 족지인을 취하였으며, 왼손은 무릎 위에 올려 손바닥을 위로 하고 정면을 향해 엄지와 중지를 맞대었다.

폭이 넓어 안정감이 있는 무릎은 둥글게 처리하였으며, 오른쪽 발만 노출되어 있다. 오른쪽 무릎은 탄력 있는 요철 주름으로, 왼쪽 무릎은 사선 주름으로 간략하게 처리하였는데, 불신에 표현된 밀도 높은 주름과 달리 여백을 강조하였다. 무릎 아래로는 형식화된 부채꼴 주름이 넓게 자리 잡았다.

이 불상은 양식적으로 나말여초(10세기)로 추정되는 상들과 비교된다. 우선 당당한 신체에 비해 작은 머리, 길어진 불신의 비례, 폭넓은 무릎에서 오는 안정감, 근육이 발달한 가슴, 편단우견의 착의법과 왼쪽 어깨에 형성된 삼각형의 띠 주름, 강약과 변화가 있는 탄력 있는 주름, 무릎 아래로 펼쳐진 형식화된 부채꼴 주름 등은 청양 장곡사 철조약사여래좌상(국보 제58호)이나 평택 만기사 철조여래좌상(보물 제567호), 전 적조사지 철조여래좌상, 경기도 포천 출토 철조여래좌상, 영암 도갑사 석조여래좌상(보물 제89호) 등과 양식적으로 유사한다. 다만 이 상은 모든 면에서 10세기 초로 추정되는 장곡사 철조약사여래좌상과 유사하지만, 다소 길어진 신체비례와 현실적인 얼굴표정이 보인다. 제작 시기는 장곡사 불상 보다는 다소 늦은 10세기 전반에 제작된 상으로 추정된다.

의의와 평가 고려 전반기는 이른바 같은 공방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철불들이 여러 지역에서 제작되어 지역색이 강한 하나의 유파(流派)를 형성하고 있다. 백운암 철불 역시 충주 대원사 철조여래좌상 및 단호사 철조여래좌상과 함께 충주유파를 형성하고 있는 불상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 불상은 단호사 철불이나 대원사 철불로 이행되기 전 단계의 양식적 특징을 보이는 이른바 충주철불의 시원 양식이라는 점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3구의 충주철불 중에서 예술적·조형적으로 가장 우수하다.

〈출처 및 참고문헌〉

- 문화재청 (www.cha.go.kr)

충주 임충민공 충렬사

忠州 林忠愍公 忠烈祠

종 목 사적 제189호

지 정 일 1969. 11. 21.

시 대 조선시대

소 재 지 충주시 충열1길 6 충렬사(단월동)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610 → 단월동 정류장 하차, 4개 정류장

자가차량 충주IC → 중부내륙고속도로
(0.9km) → 충원대로(6.6km) → 충원대로
(20km)



개설 조선 후기 임경업(林慶業)의 절의를 기리기 위하여 세웠다. 임경업은 일찍이 무과에 급제하여 영변부사·의주부윤을 역임하였으며,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명나라의 은의를 생각하여 송명배청(崇明背淸)운동을 벌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청나라의 포로가 되어 몇 년간 옥고를 치른 뒤 본국으로 소환배되었으나, 김자점(金自點) 등의 모함으로 옥중에서 피살되었다. 그 뒤 그의 충절이 밝혀지면서 충민(忠愍)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그의 무덤이 이곳에 있어 인근 선비들이 그의 덕망을 추모하여 숙종 23년(1697)에 충렬사를 건립하여 매년 봄·가을에 제향하였다.

평택임씨 문중에서 사우를 관리하여오다가 1978년 국가에서 건물을 보수하고 경내에 조정사업을 실시하여, 현재는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사당 앞에는 충렬비와 그의 부인 이씨의 정렬비가 함께 있으며, 사당 앞 좌측에는 유물전시관을 마련하여 그가 평생 사용하던 보검을 비롯한 유품을 진열해놓고 있다.

〈출처 및 참고문헌〉

- 문화유적총람(文化遺蹟總覽) (문화재관리국, 1977)

충주 미륵대원지

忠州 彌勒大院址

종 목 사적 제317호

지 정 일 1987. 07. 18.

시 대 통일신라시대

소 재 지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사지길 150(미륵리)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245 → 미륵리 정류장 하차, 45개 정류장

자가차량 충주IC → 중부내륙고속도로
(17.0km) → 안보로(2.8km) → 미륵송계
로(8.2km)



개설 하늘재(寒喧嶺)·계립재(鷄立嶺)·새재(鳥嶺)에 둘러싸인 험준한 산골짜기 북쪽 기슭에 북향하여 조성된 석굴을 주불전으로 하는 절터이다. 창건 연대나 내력, 사원의 정확한 명칭을 알 수 없으나, 고려 초기에 조성된 것으로 짐작된다. 석굴은 거대한 돌을 쌓은 위로 목조로 세운 사찰이 있으나 지금은 남아있지 않다. 발굴 당시 ‘미륵당초’라고 새겨진 기와가 나와, 통일신라 후기에 서 고려 전기의 사원으로 추정된다. 현재, 충주 미륵리 석조여래입상(보물 제96호), 충주 미륵리 오층석탑(보물 제95호), 석등, 당간지주 등 중요한 석조 문화재들이 남아있다. 전설에 의하면 신라 경순왕의 아들 마의태자가 나라가 망한 것을 슬퍼하며 금강산으로 가는 도중, 누이인 덕주공주가 월악산에 덕주사를 지어 남쪽을 바라보는 마애불을 만들자 태자는 북향의 석굴을 지어 덕주사를 바라보게 하였다고 한다.

역사적 변천 1977년 1차 발굴조사 당시, ‘明昌三年金堂改蓋瓦(명창삼년김당개개와)’, ‘彌勒堂(미륵당)’, ‘彌勒堂寺(미륵당사)’, ‘院主(원주)’ 등의 명문와(銘文瓦)가 출토되어 미륵을 모시는 사찰이자 원(院)을 겸하는 사찰이며, 고려 명종 22년(1192) 금당의 기와를 새로 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석굴과 전실의 목구조가 소실된 것은 13세기이며, 이후 곧 복원되었고 조선 초기에 크게 수리되었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 다시 소실되었고 18세기에 들어 수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언

제 폐사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으나 1936년 발생한 큰 수해로 법등(法燈)이 끊어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2011년 7월 28일자로 '중원 미륵리사지'에서 '충주 미륵대원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내용 해발 378m의 고지대에 위치한 미륵대원지에는 길이 9.8m, 너비 10.75m, 높이 6m의 인공으로 쌓은 석굴 형식의 불전이 있다. 석굴 중앙에는 대좌¹를 두어 석불입상을 봉안하고, 측면과 후면 석벽의 중앙은 감실(龕室)²처럼 만들어 작은 불상들이 부조되었다. 석굴 상부는 목조 건물로 지어 천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절터에는 충주 미륵리 석조여래입상, 충주 미륵리 오층석탑, 삼층석탑, 석등, 구부(龜趺), 당간지주, 불상대좌 등의 석조 문화재가 있다. 양식적으로 보면 고려 초인 10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지형이 북쪽으로 갈수록 낮아져 사원은 북향을 하고 있으며, 사원 전체가 계단식으로 조성되어 있다.

1977 · 1978 · 1982년 3차례에 걸쳐 시행된 발굴조사 당시 출토된 여러 명문 기와와 건물지 발굴을 통해 사찰의 성격이 밝혀졌다. 특히 '미륵대원'이라고 한 것은 동쪽에 역원(驛院)이 있었기 때문인데, 말을 묶어 둔 마방시설, 여행자 숙소 등 역원의 건물터도 함께 발굴되어 사찰과 역원의 기능을 합친 고려 초기의 중요 유적지로 평가되고 있다. 미륵대원지는 『삼국유사』권1, 왕력(王曆)의 아달라니질금(阿達羅尼叱今)조에 “계립령금미륵대원동령시아(鷄立嶺今彌勒大院東嶺是也)”의 미륵대원으로 추정된다. 미륵대원의 존재시기는 분명하지 않으나 일연이 『삼국유사』를 저술한 시기인 고려 충렬왕대까지는 존속되고 있었던 듯하다.

의의와 평가 토함산 석굴암의 양식을 계승한 고려시대의 유일한 석조 · 목조 구조의 반축조(半築造) 석굴사원으로 평가된다.

〈출처 및 참고문헌〉

- 미륵리사지 3차발굴보고서 (이화여대박물관, 1982)
- 미륵리사지 2차발굴보고서 (청주대학박물관, 1979)
- 중원군 미륵리사지 석굴실측조사보고서 (충북중원군, 1979)
- 미륵리사지발굴보고서 (청주대학박물관, 1978) • 문화재청 (www.ocp.go.kr)

1 불상을 올려놓는 대(臺)

2 사당 안에 신주를 모셔 두는 장(櫺)

충주 장미산성

忠州 薔薇山城

종 목 사적 제400호

지 정 일 1997. 11. 11.

시 대 삼국시대

소 재 지 충주시 중앙탑면 장천리 산77-1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404 → 장천리 정류장 하차, 16개 정류장

자가차량 충주IC → 첨단산업로(5.9km)
→ 반천길(1.0km) → 첨단산업로(1.6km)



내용 높이 340m 가량의 장미산(長尾山, 薔薇山) 정상과 북동쪽 계곡 윗부분을 돌로 에워싼 산성으로, 성벽의 일부가 원래의 모습대로 남아 있다. 현재 성 안에는 규모가 작은 사찰이 들어서 있고 조선시대의 무덤도 분포하고 있다.

이 산성은 남한강이 남쪽에서 동쪽으로 굽었다가 서쪽으로 흐르는 만곡부 중심에 자리하고 있어서 사방을 전망하기에 좋다. 특히 남한강을 따라 남북으로 오가는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였으므로 군사전략상으로도 중시된 곳이다. 산성 남쪽의 입석리에서 충주고구려비(忠州高句麗碑, 국보 제205호)가 발견되어, 고구려와 신라가 맞닿아 있는 국경 주변에 축조된 요새로 주목되었다.

산성의 이름은 장미(薔薇)라는 장수가 쌓았다는 전설에 의해서 붙여졌다고 한다. 하지만 성을 의미하는 우리말 ‘갯’과 산을 의미하는 ‘피’가 합쳐진 ‘갯피’가 원래의 이름이었을 것으로도 추정되고 있다.

성벽의 둘레는 932m인데, 서쪽과 서남쪽 성벽은 원래의 웅장한 모습으로 남아 있다. 성벽은 높이가 4~6m로, 아랫돌보다 윗돌을 조금씩 물려쌓아 안정감이 있으며, 깎돌[削石]을 대강 다듬은 뒤 네모난 면을 바깥쪽으로 두고 정연하게 쌓아 올렸다. 성벽의 대부분은 장미산의 비탈진 경사면을 최대한 이용하였으나, 성벽 안쪽이 능선과 나란하고, 골짜기 부분은 성벽의 윗부분이 무너져 특수한 시설이 설치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성 안에서는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여러 토기 조각과 기와 조각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유물로 보아, 백제 · 고구려 · 신라가 차례로 이 산성을 점령하고 경영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지금 남아 있는 성벽은 축조 방식이 충청북도 보은의 삼년산성이나 충주 남산성과 비슷하므로, 신라 진흥왕 때 영토를 넓히는 과정에서 이 산성을 고쳐 쌓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산성 주변에 분포한 많은 고분 가운데 최근에 발견된 충주누암리고분(사적 제463호)은 6세기 후반에 조성된 신라계 고분으로 추정되고 있다.



장미산성 북서쪽 성벽



장미산성 목책 치성

〈출처 및 참고문헌〉

- 장미산성 (차용걸 · 백종오, 충청북도, 2011)
- 중원 장미산성 (충북대학교박물관, 1992)
- 문화재지 (충청북도, 1982)
- 忠州 薔微山城 시굴조사 보고서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2014)

충주 송선사지

忠州 崇善寺址

종 목 사적 제445호

지 정 일 2003. 04. 25.

시 대 고려시대

소 재 지 충주시 신니면 송선길 56(문송리)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157 → 문송리 정류장 하차, 40개 정류장

자가차량 충주IC → 종원대로(8.6km) →
가리골길(3.2km) → 송선고개길(1.0km)



송선사지 중심사역(발굴조사 후)

내용 송선사는 고려 광종이 광종 5년(954) 어머니 충주 유씨 신명순성태후(神明順成太后)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사찰인데, 현재 절터만이 남아 있다. 송선사지는 충청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총 4차에 걸친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발굴 조사 결과 금당지, 강당지, 탑지, 회랑지, 남문과 동문지 등이 확인되었으며, 송선사의 초창¹이 『고려사(高麗史)』의 기록에 나오는 것처럼 954년이었음이 입증되었다. 아울러 명문 기와와 유구의 변화를 통해서 이 절이 두 차례에 걸쳐서 중창되었다는 점이 밝혀졌는데, 그 시기는 고려 명종 6년(1182)과 조선 선조 12년(1579)이다.

광종은 즉위 직후부터 개경에 불일사를 창건하여 모후의 원당으로 삼았는데, 충주에 새롭게 어머니를 위해 사찰을 창건한 이유에 대해서는 분열된 자신의 지지 세력을 규합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태조 왕건은 충주의 유력한 호족인 유궁달의 딸과 혼인하여 여러 자식을 얻었다. 그중 둘째와 셋째 아들이 고려 정종과 광종이다. 충주 유씨 세력은 정종과 광종의 외척세력이기에 혜종과의 왕위계승전을 벌일 때 적극적으로 정종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이후 광종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정종세력과 광종세력으로 분열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광종이 충주에 송선사를 건

¹ 어떤 사업을 일으켜 처음으로 시작함. 또는 그 시초.

립한 표면적 이유는 어머니의 추복이었지만, 실제로는 충주 유씨 세력을 하나로 규합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광종이 승선사를 창건한 두 번째 이유는 승선사지의 지리적 위치를 통해서 살필 수 있다. 고려 초기에 충주 유씨 세력이 모여 살았던 지역은 현재의 충주시 성내동 일대인데, 신민면 문송리 승선마을에 위치한 승선사지와는 직선거리로 22km 이상 떨어져 있다. 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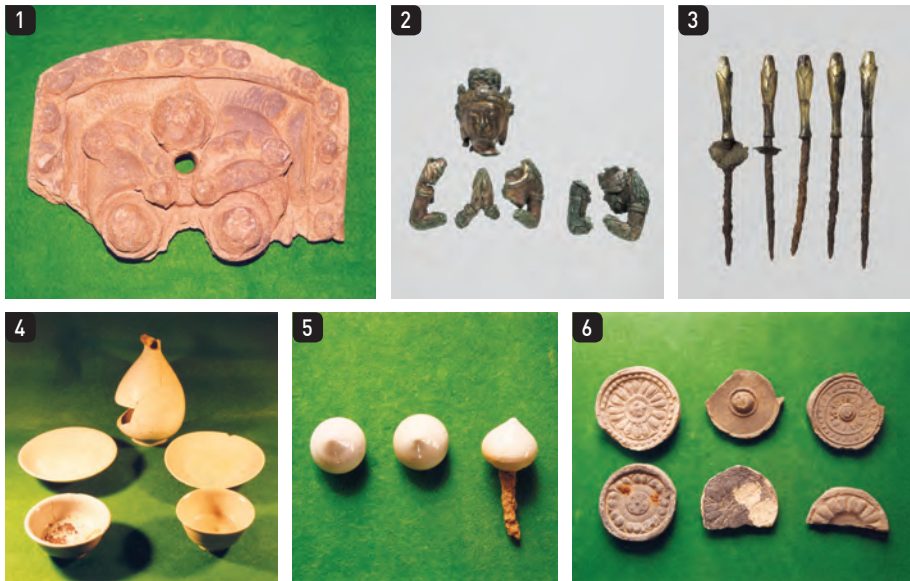


승선사지 동회량지

종 5년(954)에 건립된 승선사의 위치는 비슷한 시기에 중창되었던 죽주 봉업사지와 안성 망이산성 등과의 관계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봉업사는 승선사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광종에 의해 중창되었고 망이산성 역시 광종대 중반기에 대대적으로 정비되었다. 현재 봉업사지는 승선사지에서 약 2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 망이산성은 승선사지에서 서쪽으로 약 19km 떨어진 곳에 있다. 즉 승선사가 자리 잡은 곳은 삼국시대 이래 교통의 중심지였던 죽주 봉업사 일대와 충주 사이의 중간 지점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지점에 광종이 승선사를 건립한 것은 어머니의 추복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승선사를 현재의 자리에 건립한 이유는 자신의 지지세력인 충주 유씨 세력과 물리적 소통을 위한 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 개성을 출발하여 충주로 들어가는 길은 수로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520번 지방도로와 518번 지방도로가 통과하는 교통로를 이용해야 한다. 승선사는 사지 북쪽과 남쪽에 위치한 교통로를 모두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조성되었다. 즉 승선사는 충주의 관문 역할을 하였던 사찰이었다.

광종은 본격적인 황제체제를 구축하기에 앞서 평택의 비파산성과 안성의 봉업사, 안성의 장릉리 사지, 안성의 망이산성, 충주의 승선사 등 관방유적과 사찰을 창건하거나 중창하였다. 광종이 관방유적을 수리하고 동시에 사찰을 세운 이유는 자신의 정책에 반발하는 세력들을 감시하고 제압하기 위해서였다. 광종 집권 초기, 본격적인 구신 숙청 작업에 들어가기 전 광종이 가장 경계했던 세력들은 앞서 왕위에 올랐던 혜종과 정종을 지지했던 세력이었다. 이들은 왕위계승전에서 어느 정도 타격을 입었으나 자신들의 거점 지역에서는 여전히 무시 못할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광종이 가장 경계했던 세력 중 하나는 바로 진천의 호족들과 청주의 호족들이었다. 진천과 청주는 바로 혜종과 정종의 외척세력들이 존재하는 곳이었다. 혜종의 장인으로서는 진천의 임희와 청주

의 김공륜, 경주의 연예 등이 있었는데 김공륜은 정종의 장인이기도 하였다. 이들 호족은 광종이 등극한 후 표면적으로는 불만을 드러내지 못했지만, 언제든지 왕에게 반기를 들 수 있는 세력이었다. 송선사는 이들이 반발할 경우를 염두에 두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광종의 전략적 구상 속에서 창건된 사찰이다.



송선사지 출토유물

- 1 귀면와편 2 금동 보살상편 3 철지금동장와정 4 자기류 5 연봉장식 6 수막새류

〈출처 및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태봉과 고려 석조미술로 보는 역사 (정성권, 학연문화사, 2015)
- 충주 송선사지 시굴 및 14차 발굴조사보고서 (충청대학교 박물관, 2006)
- 고려 광종을 보는 또 다른 시각: 미술사와 고고학을 통하여 (정성권, 한국인물사연구 19, 2013)

충주 누암리 고분군

忠州 樓岩里 古墳群

종 목 사적 제463호

지 정 일 2005. 03. 25.

시 대 신라시대

소 재 지 충주시 중앙탑면 누암리 산41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411 → 신촌 정류장 하차, 9개 정류장

자전거량 충주IC → 첨단산업로(5.8km)
→ 탄금대로(1.5km) → 누암고분길(1.1km)



내용 충주누암리고분군은 1980년 중원문화권 설정을 위한 지표조사에서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1983년 충청북도 기념물 제36호로 지정되었으며, 2005년에는 사적 제463호로 변경 지정되었다. 1989년 국립문화재연구소·충북대학교박물관의 조사에서 횡혈식석실분 2기, 고려시대 석곽묘 3기, 토광묘 1기, 1990년 국립문화재연구소·충북대학교박물관의 조사에서 횡혈식석실분 4기, 고려시대 토광묘 1기, 석곽묘 1기, 1991년 중원군·충북대학교박물관의 조사에서 횡혈식석실분 17기, 횡구식석실분 4기, 소형석곽묘 3기, 고려시대 석곽묘 1기가 확인되었다.

이후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에서는 중원문화권 주요 고분군 종합학술연구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 누암리고분군에 대한 정밀지표조사와 GPS측량을 실시하여 7개 구역에서 총 234기의 고분을 확인하였고, 수치지도상에 기록화를 완료하였다. 조사결과 고분들이 지표상에 드러난 채 방치된 상태였다. 이에 연구소는 구역별 성격 규명과 고분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대표 고분 2~3기에 대한 표본발굴을 실시하였다.

제1차 발굴조사는 '가'구역 내 1,000㎡를 2008년 10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신라시대 횡혈식석실분 2기, 조선시대 토광묘 2기, 시대미상의 석곽묘 1기, 석렬유구 1기가 확인되었다. 횡혈식석실분 45·50호분은 해발 197.6m의 봉우리에서 동쪽으로 뻗어 내린 능선의 하

단부 해발 125m 지점 남쪽 사면에 조성하였다. 봉토를 둘러싼 호석¹은 2~3단이며, 봉분의 지름은 14.9~17.6m, 잔존 높이는 4m 내외이다. 석실의 축조와 함께 봉토를 동시에 쌓아 올렸으며, 석실의 중심부로 갈수록 마사와 점토를 섞어 단단하게 다졌다. 특히 석실²과 맞닿은 부분은 적갈색의 점질토를 덮어 밀봉하였다.

천장의 높이는 190cm 내외이며, 궁륭형(穹窿形)의 둥근 천장으로 정상부에 커다



가-45호분 전경

란 판석 1~2매를 덮어 마무리하였다. 석실의 평면형태는 장폭비 1.23:1 이하의 방형이다. 방형의 평면형태는 누암리고분군과 하구암리고분군에서 조사된 횡혈식석실분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연도는 2기 모두 입구에서 보면 오른쪽의 동벽과 나란하게 조성한 우편제이다. 누암리고분군과 하구암리고분군에서는 대체로 오른쪽에 연도를 조성하고 있으나 중앙에 연도를 조성한 석실 분도 많다. 시상은 편평하고 각진 할석을 4~5단으로 쌓아 구획한 후 내부에 부정형 할석을 채워 넣었다. 할석의 빈틈은 점토로 채웠으며, 그 위에 지름 5~10cm의 강돌을 깔아 마무리하였다. 시상의 규모는 대체로 길이 230cm, 너비 80~100cm이다. 추가장은 1차 시상과 동일하게 덧붙여 나가는 방식으로 축조하였다. 한편 45호분은 서쪽 호석열 안에 지름 1.1m의 석곽을 만들어 토기 40점이 부장되었다.

제2차 조사는 2010년 4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구역 내 9,900㎡에 대한 시·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신라시대 횡혈식석실분 2기, 횡구식석곽묘 1기, 석곽묘 2기, 조선시대 토광묘 1기, 회곽묘 1기가 확인되었다. 3기의 석실분은 남한강과 탐평리 일대가 조망되는 능선의 사면에 위치한다. 54호분은 횡구식석곽묘로 남서단벽을 입구로 사용하였으며, 바닥에는 작은 할석을 깔고, 북쪽 단벽에 상대적으로 큰 할석으로 단을 설치하였다. 횡혈식석실분 56·60호분은 지름 8.7~9.2m이며, 경사가 급한 하단에만 호석을 돌려 봉토의 유실을 막았다. 60호는 봉분의 상단에

1 돌레들

2 돌방

구를 돌려 토사 등의 유입을 막았다. 경사면의 일부를 굴착하거나 수평정지한 후 석실과 봉토를 함께 축조하였다.

석실의 구조와 형태, 출토유물은 기존에 조사된 누암리고분군, 하구암리고분군과 유사하다. 출토 유물은 대부분 토기류가 중심이며, 소량의 금속류와 장신구류가 확인되었다. 석실 및 매납유구에서 출토된 단각고배와 대부장경호 등의 유물로 보아 신라가 충주로 진출하여 국원소경이 조영되기 시작하는 6세기 중반~7세기 초에 해당하는 지배층의 무덤으로 추정된다.

의의와 평가 충주누암리고분군은 충북지역에서 위계가 가장 높은 신라후기의 고분군이다. 신라는 국원성이 있던 충주에 진흥왕 18년(557) 소경을 설치하고 이듬해에 가야에서 귀화한 사람들과 왕경의 귀족, 부호를 이 지역으로 집단 이주시켰다. 이후 국원소경은 문무왕 18년(678)부터 신문왕 5년(685)에 걸쳐 완비된 5소경 체제로 개편되었고, 경덕왕 16년(757)에 중원경으로 개칭되면서 계속해서 신라의 거점도시 역할을 하였다. 충주누암리고분군은 이 시기 국원소경과 중원경을 다스리던 6~7세기대 지배층의 집단무덤으로 판단된다.



충주누암리고분군 출토 토기류 및 장신구류

〈출처 및 참고문헌〉

- 충주 누암리고분군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보고서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2009)
- 충주 누암리고분군 2차 시 · 발굴조사보고서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2012)

충주 탄금대

忠州 彈琴臺

종 목 명승 제42호

지 정 일 2008. 07. 09.

소 재 지 충주시 탄금대안길 105(칠금동)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411 → 칠금동 정류장 하차, 4개 정류장

자카리량 충주IC → 중부내륙고속도로
(0.9km) → 충원대로(3.3km) → 요도천변
길(3.4km)



내용 대문산(大門山)을 중심으로 남한강 상류와 달천(達川)이 합류하는 지점에 있으며, 수려한 경관과 유서깊은 고적지이다. 탄금대 일대 발굴조사 결과, 백제의 토성(土城)과 철을 제작하는 제철유적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이후, 가야국의 악성(樂聖) 우륵(于勒)이 신라에 귀화하여 진흥왕에게 명성이 알려져 하림궁(河臨宮)에서 새 곡을 지어 연주하니, 왕이 감동하여 충주에 살도록 하였다.

우륵은 그를 보호하던 계고(階古)에게는 가야금을, 법지(法知)에게는 노래를, 만덕(萬德)에게는 춤을 가르치며 여가있을 때 바위에 앉아 가야금을 타며 살았다. 탄금대라는 명칭도 우륵이 가야금을 타던 곳이라는 데에서 유래한다.

또한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 때 도순변사 신립(申瑬)이 적은 병력으로 출전하여 이곳에 배수진을 치고 왜군과 대결하였으나 중과부적(衆寡不敵)으로 패전하고, 부장(副將) 김여물(金如叻)과 함께 전사한 전적지이기도 하다.

탄금대에는 1953년에 세운 탄금대비를 비롯하여 1977년에 세운 악성 우륵선생추모비, 1978년에 세운 신립장군전적비, 1968년에 건립된 권태응(權泰應)의 감자꽃노래비, 1970년에 세운 탄금정과 그 밖에 충혼탑·충주문화관·야외음악당 등이 있다.

그리고 충주댐이 준공되어 호반의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또한 탄금대 부근에 충주 탐평리 칠층석탑(국보 제6호)을 비롯하여 충주 고구려비(국보 제205호) 등 귀중한 문화재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탄금대와 남한강 전경

〈출처 및 참고문헌〉

- 문화재지 (충청북도, 1982)
- 忠州 彈琴臺土城 1－2007年度 發掘調査報告書 (중원문화재연구원, 충주시, 2009)

충주 계립령로 하늘재

忠州 鷄立嶺路 하늘재

종 목 명승 제49호

지 정 일 2008. 12. 26.

시 대 고려시대

소 재 지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 산8 등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246 → 미륵리 정류장 하차, 44개 정류장

자가차량 충주IC → 중부내륙고속도로
(17.0km) → 월악로(11.6km) → 미륵송계
로(11.3km)



내용 충주계립령로하늘재는 북쪽으로 포암산(962m), 남쪽으로 부봉(925m)과 월향삼봉(847m) 등으로 이어지는 산맥 사이에 말안장처럼 움푹 들어간 곳에 위치한 고개이다. 하늘재 고갯길은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옛길로, 계립령 중 미륵대원지(彌勒大院址)에서 문경으로 넘어가는 길이다. 지금도 충청북도 충주시 구간은 비포장도로로 남아있어 옛길의 정취가 잘 보존되어 있어 2008년에 명승 제49호로 지정되었다.

하늘재는 고개가 하늘에 맞닿을 듯 높아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한자로는 천치(天峙)라 표기하기도 하고, 우리말로로는 하니재·하닛재 등으로 발음을 달리하여 부르기도 하였다. 또한 높은 고개라는 뜻에서 한치라고 했다고도 한다.

신라시대에는 계립령·마목현이라 불렸으며, 고려시대에 계립령 북쪽에 대원사가 창건되면서 절의 이름에서 따와 대원령이라고 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고개 부근에 한원령 산성이 있으므로 한원령이라고도 불렸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한원령으로 변화된 것으로 추측된다.

충주계립령로하늘재는 충청도 충주와 경상도 문경 사이의 가장 낮은 고갯길로서 156년(신라 아달라이사금 3)에 개척되었다. 고구려와 백제의 영토 분쟁 역사가 전해오는 오랜 역사의 옛길로서, 백두대간을 넘는 최초의 통행로가 된 길이다. 하늘재에는 많은 전설과 유래가 깃들어 있고, 『삼국사

기(三國史記)』·『삼국유사(三國遺事)』·『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등 다수의 고문헌과 자료에 기록되어 있다.

고려 말기에 왜구가 창궐하면서 조운(漕運)¹이 육운(陸運)으로 바뀔 무렵부터 지금의 조령(鳥嶺)²인 초점(草岾)이 크게 개척되면서 가치가 상실되었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조령이 중요한 구실을 하면서 새재에 관방시설을 설치하고 인근의 다른 통행로를 폐쇄할 때, 하늘재 옛길도 폐쇄되었다.

현황 하늘재는 동달천 지류와 산북천 지류의 분수령을 이루고 있다. 동달천 지류는 하늘재에서 서류하여 수안보면 미륵리를 거쳐 제천시 한수면 송계계곡으로 이어지고, 산북천 지류는 동류하여 경상북도 문경군 문경을 관음리를 지나 황정마을에서 남류한다. 또한 산북천은 경상북도 문경시 조령천의 지류이므로 하늘재는 한강과 낙동강의 분수령이 된다.

하늘재 부근 포암산 방향에는 한훤령산성이 있는데, 이 성은 길이 480m의 석성으로 언제 축조되었는지 알 수 없다. 성은 폭 1.8~2.4m, 높이 1.1~3.7m의 규모로 성벽 주위에서 신라계의 연결 토기와 경질 토기가 발견되었다. 또한 하늘재 옛길 주변으로 충주미륵사지(사적 제317호), 충주미륵리오층석탑(보물 제95호), 충주미륵리석불입상(보물 제96호) 등 국가중목 문화재와 다수의 시도유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가 있어 매우 풍부한 문화경관 요소를 지니고 있다.

하늘재 서쪽 수안보면 미륵리 56번지에 있는 충주미륵대원지(사적 제317호)는 고려 초기에 조성된 약 80,000㎡ 규모의 대사찰 터로 곳곳에 흩어져 있는 문화재가 당시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하늘재를 따라 형성되어 있는 작은 계곡과 주변에 펼쳐지는 월악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은 옛길의 정취를 잘 보여주고 있다.

〈출처 및 참고문헌〉

- (문화재대관)천연기념물 · 명승 (문화재청, 2009)
- 문화재청 (www.cha.go.kr)

1 배로 물건을 실어 나름. 전조(轉漕).

2 조선시대 충청북도 충주 지역과 경상도를 잇는 주요 교통로였던 고개.

택견

종 목 국가무형문화재 제76호

지 정 일 1983. 06. 01.

※ 충주시 택견전수관
충주시 충원대로 3324(호암동)



개설 여러 문헌에는 수박(手搏)·수박희(手搏戲) 등의 한자로 표기되어 있고 『국어사전』에는 “태권”으로 표기하였다. 일반적으로 사전적 해석은 “발로 차서 쓰러뜨리는 경기로 각희(脚戲)”라고 한다.

주로 발로 차거나 걸어서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것으로 승부를 내지만 상대방 얼굴을 차는 것으로도 이기게 된다. 손질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민속경기놀이로 전승되어왔으며 격렬한 투기임에도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는 독특한 경기 방법도 있다. 한편 인명을 살상하는 무술적 기법도 함께 전해온다. 198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로 종목되었으며 1990년대 들어 생활체육으로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였으며, 2011년 11월 28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되었다.

택견의 역사 택견은 우리 민족 기층문화의 하나로 원시시대부터 발달해온 것으로 추측된다. 오늘의 택견형태가 어느 시기부터 형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는 없으나 삼국시대 이전부터의 경기 또는 놀이형태였음을 알 수 있다.

『후한서』에 “순제 영화 원년(永和元年, AD 136) 부여왕이 내조(來朝)했을 때, 각저희(脚抵戲)를 하게 했다.”고 하였으며 『일본서기』에는 “백제 사신과 일본 무사들이 상박(相撲)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은 당시에 맨손무예 경기가 국제간에 교류되고 있었고 외교상의 중요한 의식으로 행해졌다는 것을 말해 준다. 『고려사』에는 수박 또는 수박희가 자주 보인다.

“이의민(李義旼)은 수박을 잘하여 의종이 그를 대정(隊正)에서 별장(別將)으로 승진시켰다.”, “의종이 무신에게 명하여 오병수박희(五兵手搏戲)를 하게 했다.”, “장사들에게 수박희를 시켜서 이긴 자에게는 상으로 벼슬을 올려주었다.”, “왕이 상춘정(賞春亭)에 나가 수박희를 구경했다.”, “왕이 화비궁(和妃宮)에서 수박희를 구경했다.”라는 등의 기록들은 당시 고려사회에서 맨손무예가 왕이나 귀족들이 즐겨하였고 민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전파되고 있었음을 확인해 준다.

그리고 수박희가 고위 무관의 승직기준이 될 만큼 제도적으로 장려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조선시대 초기까지 이어졌으나 조선시대의 사회가 차츰 문준무비의 사조로 흐르면서 맨손무예는 지배계층으로부터 소외되었다. 그러나 맨손무예는 조선 말기까지 여전히 무과의 시재(試才)¹로 존재하였고 기층민중들에 의하여 전승되었다.

정조(正祖) 때 간행된 『재물보(才物譜)』에는 각종 문헌에 나타나는 “변(卜)”·“수박(手搏)”·“각력(角力)”·“무(武)” 등의 한자 용어가 곧 “택견”이라고 밝히는 한글기록이 있다.

18세기의 유숙(劉淑)의 『대패도 大快圖』와 김준근(金俊根)의 『풍속도 風俗圖』에는 같은 화면에 씨름과 택견이 함께 그려져 있어서 당시 택견이 대중화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1921년 최영년 『해동죽기(海東竹枝)』의 탁견희(托肩戲)와 『코리언 게임스(Korean Games, 1895 Stewart Culin)』의 「택견하기(HTAIK-KYEN-HA-KI)」의 기록은 택견경기 방법을 간략하지만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문헌상 기록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택견은 일본강점기를 거치면서 자취를 잃고 말았다. 이런 가운데 다행히 조선 말기의 택견꾼 송덕기(宋德基)가 유일하게 생존하여 택견의 맥을 이을 수 있었다.

그러나 광복 이후 택견은 일본 무술들이 토착화하는 여세에 뒷전으로 밀려났다. 특히 6. 25전쟁 이후에 만들어진 태권도(跆拳道)가 택견의 전통을 계승했다는 명분을 주장함으로써 1970년대 이후에는 태권도와 택견이 동일한 것으로 잘못 알려졌다. 그러나 택견과 태권도는 역사적·기술적으로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별개의 것이다.

택견은 1970년대 초부터 송덕기로부터 택견을 배운 신한승(辛漢承)의 노력으로 1983년 6월 중요

1 재주를 시험하여 봄.

무형문화재 제76호로 종목되었고, 송덕기·신한승이 기능보유자로 인정되었다.

송덕기·신한승 두 기능보유자로부터 택전을 전수받은 이용복(李容福)은 1984년 한국전통택견연구회를 결성하였다. 그리고 1985년 6월 부산구덕체육관에서 오래간만에 택견경기를 재현하였으며, 1991년 1월 사단법인 대한택견협회를 창설하였다.

대한택견협회는 1997년 현재 전국에 140여 전수관을 개설하였으며 각급학교와 직장 등에 수백 개의 전수단체를 만들었다. 매년 전국규모의 경기대회와 시연 등의 행사를 수십 회 실시하고 있으며 택전의 국민체육화를 위하여 전국체육대회 경기종목으로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1996년과 1997년 두 차례에 걸쳐 해외순회 택견시연단을 캐나다·미국·일본 등에 보내 민족무예 세계화의 문을 열었다. 한편, 신한승으로부터 이수자인 정경화(鄭景和)가 1996년 기능보유자로 인정되었다.

구성

- ① 규준의 윤리성:공평한 조건에서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형식적, 비형식적 합의된 규칙이 필요하다. 택전은 우리 나라 사람의 보편적이고 전통적인 가치관과 사회윤리에 부합되는 관습화된 규준적 틀을 가지고 있다.
- ② 품밧기의 함목적성:품(品)자 형태, 즉 삼각형의 보법(step)을 품밧기라 한다. 극히 제한된 중심 이동의 공간과 상대방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의 통제 아래 가장 효과적인 공방을 할 수 있는 함목적성을 가진 기법의 하나이다.
- ③ 대접의 규칙성:택전은 씨름처럼 서로 붙잡고 겨룸을 하는 대신 상대방이 공격하기 쉬운 거리내에 한쪽 발을 내준다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다. 이것을 대접(待接)이라 한다. 구기종목의 serve와 같은 의미이다.
- ④ 논질거리는 기법의 호혜성:택견경기가 아무런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체를 직접 가격하면서도 안전성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논질거리는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 기법은 타격력을 줄이는 대신 밀치는 힘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고 쓰러뜨릴 수 있도록 고안된 절묘한 기술이다. 화합과 결속을 중요시하는 농경사회에서 형성된 우리의 호혜의식의 산물이다.
- ⑤ 옛법의 양면성:택전은 방어가 없고 거의 공격기로 형성되어 있어서 매우 격렬하다. 경기에서는 논질거리는 기법만 사용하게 하고 있으나 경기에서의 사용을 금한다는 엄격한 전제 아래 인

명을 살상할 수 있는 기법이 함께 전해져 온다.

옛법이라고 부르는 이 타격법에는 손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눈질러차기를 곧은 발질로 변용하고 있다. 택견은 경기적 기술과 전투적 기술의 양면성을 함께 지니고 있다.

수련과정 1973년 문화재 당국에 의하여 조사된 택견의 기술은 송덕기로부터 채집한 불과 11가지 수였다. 그러나 1982년 제2차 조사보고서에는 기본수 30여 종에 응용수 100여 가지로 대폭 늘어났다.

이것은 송덕기의 기술을 신한승이 정리하면서 기술을 세분화하고 응용수를 추가하였기 때문이다. 1910년대의 수련체계는 품밧기 등의 기본수를 개별적으로 익힌 다음 두 사람이 겨كم내기로 공방을 하는 ‘메기고 받기’가 중심이었다.

메기고 받기는 한 걸음 가량 거리를 두고 하는 ‘얼러메기기’와 상호간에 무릎을 맞대고 하는 ‘맞대 걸이’가 있다(이러한 명칭은 신한승 이후에 만든 것이며 송덕기는 그냥 ‘연습’이라고 함). 그리고 짚으로 허수아비를 만들어 나무에 매달아 놓고 발길을 익히고, 나뭇둥치를 차기도 하고, 난간이나 나뭇가지에 손가락을 걸어 매달리는 신체단련을 하였다.

연습의 맨 마지막에 가서 실전과 같은 ‘겨루기’를 연습한다. 연습은 아침 저녁으로 하는데 주로 개울바닥이나 공터, 동산의 풀밭에서 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생활환경이 바뀌어 주로 실내에 하는 운동으로 변하였다. 이에 따라 수련과정과 연습방법도 달라졌다.

신한승이 재구성한 수련체계는 혼자익히기를 서서익히기와 나아가며 익히기로 구분하였고, 메기고 받기를 얼러메기기 · 마주걸이 · 마주차기 · 막음질 등으로 가지 수를 대폭 늘렸다.

그리고 예전과는 달리 메기고 받기의 기본수를 순서를 정하여 정형화하였다. 겨루기는 대걸이, 맞서기로 단계를 두고, 따로 겨눔수를 연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신한승 자신이 창안한 본매보기(앞엿거리 8마당, 뒤엿거리 4마당)가 수련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본매보기는 기본수를 연결조합하여 정형화시킨 것이다. 종전의 겨루기 중심 구조의 경기적 택견이 형식위주의 가라테 · 태권도 · 우슈 등과 같은 근대 동양무술적 구조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택견은 현대에 와서 외형상의 변형과 함께 질적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대한택견협회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1910년대의 경기형태의 재현과 당시 학습체계의 발굴에 힘쓰는 한편 1980년대 신한승이 재구성한 형태도 함께 전수하고 있다.

택견의 기술 택견의 기본기술은 그 가지 수가 적고 비교적 간단하다. 그러나 실제 경기에서는 기본기술이 변용되고 결합된 응용기술이 무궁무진하게 있다. 여기서는 가장 대표적인 기본기술을 소개한다.

- ① 원품: 두발을 어깨넓이로 나란히 벌려 선 자세를 송덕기는 ‘인성(人成)’이라고 하였다.
- ② 품밟기: 원품에서 한쪽 발을 뒤로 물려 던거나 앞으로 내딛어 삼각형을 이루며 품을 바꾸는 것이다. ‘품(品)’자와 같이 세 지점을 밟는다는 의미도 있다. 신한승에 의해 품내밟기·품길게밟기·품째밟기 등으로 정리되었으나 송덕기의 품밟기 형태는 훨씬 다양하고 변화가 많다.
- ③ 발질: 발질은 차기와 걸이로 대별된다. 차기로는 제겨차기(발등으로 정면 위로 찬다), 걸치기(발등으로 곁을 휘어찬다), 후려차기(방망이를 후려치듯이 찬다), 복장지르기(발바닥으로 복장을 눌질러찬다), 발따귀(발바닥으로 고를 그려 뺨을 후려찬다), 두발낭성(뛰어올라 제겨찬다), 날치기(두손을 바닥에 짚고 몸을 회전시켜 두발로 찬다), 내차기(발등으로 상대방 허벅지를 밖으로 차낸다) 등이 있다. 차기는 원칙적으로 모두 느진발질(무르고 연하게)로써 상대를 다치지 않게끔 배려한다.

경우에 따라 이를 변용하면 모든 차기는 곧은 발질(강하고 날카롭게)이 되어 인명 살상의 파괴력을 나타낼 수 있다. 걸이 수는 짝음다리(발장심으로 정강다리를 훑어 내린뒤 발등을 밟는다), 안짱걸이(발등으로 상대방 발뒤축을 안쪽으로 걸어 당긴다), 안우걸이(발바닥으로 상대방 안쪽 복사뼈를 치는데, 판죽치기라고도 한다), 낚시걸이(발등으로 상대방 발뒤축 바깥쪽을 걸어 당긴다), 오금걸이(발뒤축으로 상대방 오금을 걸어 당긴다), 무릎걸이(발



장심으로 상대방 무릎을 밀어 찬다) 등이 있다.

- ④ 손질: 손질은 손을 펴서하는 것과 주먹을 쥐고 하는 방법이 있다. 칼잡이(옷아귀로 상대방 목을 민다), 항정치기(상대방 뒷덜미를 손모서리로 내려친다), 도끼질(손모서리로 상대방 목 동맥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친다), 느진배지르기(주먹을 뒤집어 아랫배를 쥐어박는다), 멍치기(주먹으로 멍치를 내지른다), 재갈넣기(주먹으로 겨드랑이, 또는 옆구리를 친다), 안경찍우기(손가락으로 눈찌르기) 등이 있다.
- ⑤ 활개젓기: 팔을 흔들어 상대방의 시야를 혼란하게 하거나 상대방의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게 하는 수이다. 흔들기 · 굽기 · 젓히기 · 돌리기 · 가새붙이기 · 엇흔들기 · 치들기 등이 있다.
- ⑥ 기합: 익크, 에익크 하는 기합소리는 깜짝놀랄 때 절로 내는 소리를 더 강하게 발성하는 것이다. ‘익’ 또는 ‘에익’은 온몸의 기(氣)가 모여서 숨이 멈추어져 긴장이 상승하는 것이며 ‘크’는 긴장이 해제되어 숨을 토하는 소리이다. 아랫배(下丹田)에 축기(蓄氣)가 이루어지는 자연적인 단전호흡법이다.

경기 방법 현행 경기규칙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경기방법을 현대 스포츠 규정의 틀에 맞추어 이용복이 작성하고 송덕기 · 신한승의 감수를 받은 것이다. 1985년부터 이 규칙을 적용하였으며 1991년에 개정하였다. 경기규칙은 다음과 같다.

- ① 경기장: 사방 8m의 매트(Mat) 중앙에 2.5m 지름의 원을 표시한다.
- ② 심판원의 구성: 주심 1명, 부심 2명, 배심 1명, 계시원 1명으로 한다.
- ③ 복장: 선수는 백색 고의적삼에 숨을 넣은 버선을 착용하고 각각 청색과 백색의 행진과 상의(上衣)를 입는다.
- ④ 경기구분: 개인전과 단체전, 일반부, 학생부, 애기택전으로 나누고 남 · 여 별로 구분한다. 체급 별로 할 수도 있다.
- ⑤ 경기시간: 3분 3회전, 중간휴식 1분 단체전일 경우 3분 1회전, 천하명인전과 같은 경기에서는 시간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도 있다.
- ⑥ 경기방식: 토너먼트전과 리그전, 또는 이 둘의 복합형태, 연승전(連勝戰) 등으로 할 수 있다.
- ⑦ 경기방법: 첫째, 양 선수는 경기장 중앙에 마주 보고 서서 예를 한다.

둘째, “서거라”하는 주심의 지시에 따라 양 선수는 왼 발을 한 걸음 내 디뎠다가 한 걸음 거리로 재어 서며 넉장다리 원품 자세를 취한다.

셋째, “섰다”하는 주심의 명령이 떨어지면 청색복장의 선수가 먼저 상대선수의 무릎을 가볍게 차주는 것으로 경기를 시작한다.

넷째, 양 선수는 상대가 공격이 가능한 거리 이내에 한 쪽발을 내밀어 주는 대접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양발을 마음대로 바꾸어 놓을 수 있음).

⑧ 승패의 판정: 첫째, 상대방 공격에 의하여 한쪽 선수의 무릎 이상의 신체부위가 바닥에 닿으면 승부가 난다. 둘째, 발길질로 상대방의 얼굴을 강하게 차면 이긴다. 셋째, 두발이 무릎 이상의 높이에 떠 있는 상태로 상대방을 공격하여 상대가 현저히 균형을 잃었거나 뒤로 세 걸음 이상 물러났을 때 이긴다.

⑨ 반칙: 첫째, 대접을 얹을 때. 둘째, 타격 목적의 수를 쓰거나 급소에 대한 공격. 셋째, 옷을 붙잡을 때. 넷째, 기타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

⑩ 벌칙: 반칙을 행한 선수에게 대접을 하게 하고 상대방에게 자유공격의 기회를 부여한다. 벌칙을 받은 선수는 상대선수의 자유공격에 대하여 방어와 역공격을 할 수 있으나 상대의 공격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움직일 수 없다.

품계제도 수련정도는 단(段), 급(級)으로 구별한다. 이 단, 급의 품계를 사정하는 것을 심사(審査)라고 한다. 원래 품계제도가 없었으나 학습의 체계적 전수와 대중화 방안에 일환으로 1970년대 중반에 신한승이 일본 무술의 제도를 도입해 적용시켰다.

대한택견협회는 8급~1급, 초단~9단의 18품계를 인정하고 있다. 초보자가 9단으로 승단하려면 40년의 수련기한이 경과되어야 한다. 단, 경기대회의 우승 등 택견보급과 발전을 위한 공로에 대한 고과를 적용하여 그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출처 및 참고문헌〉

- 택견연구 (이용복, 학민사, 1995)
- 택견 (이용복, 대원사, 1995)
- 문화재청 (www.cha.go.kr)

충주 윤양계 고택

忠州 尹養桂 古宅

종 목 국가민속문화재 제135호

지 정 일 1984. 01. 14.

시 대 조선시대

소 재 지 충주시 엄정면 미곡1길 54(미내리)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344 → 내동마을 정류장 하차, 20개 정류장

자가차량 동충주IC → 충원대로(1.7km)
→ 구룡로(1.5km) → 엄정길(0.8km) → 미
곡1길(0.6km)



내용 집 뒤로는 낮은 동산이 있고 집 앞으로는 개울이 흐르고 있어 이른바 배산임수(背山臨水)의 형국을 하고 있다. 개울 쪽으로 열린 솟을대문을 들어서면 사랑채가 있다.

원래는 행랑채가 있어 거기에 딸린 중문을 지나야 사랑채에 도달하게 되었던 것이나 지금은 없어졌다. 사랑채는 외벌대 두단을 상하의 월대처럼 구조한 특이한 댓돌 위에 사다리꼴 주초를 놓고 방주(方柱)¹를 세워 납도리²를 짜들렀다. 홀처마이고 지붕은 팔작의 기와지붕이다.

평면은 약간 특이하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6칸 규모이나 앞뒤 퇴가 있는 구조여서 측벽에는 기둥 넷이 서 있어 마치 3칸인 듯이 보인다. 이들 6칸 중에 마루는 내루(內樓)처럼 된 2칸의 마루방과 어간의 앞뒷마루뿐이고 나머지는 구들을 설비한 방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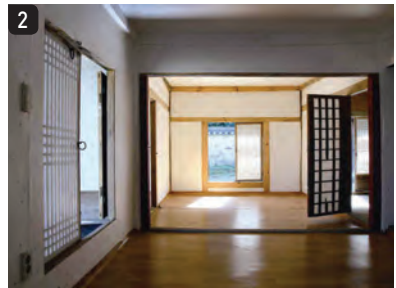
안채는 왼쪽부터 칸 반 넓이의 부엌, 이어 안방 2칸과 대청 1칸이 계속되는데 앞퇴로 설계되었다. 이어 건넌방인데 칸 반 규모가 앞쪽으로 튀어나왔고 거기에 반 칸의 부엌을 만들어 불을 지피게 하였다. 여기까지는 평이한 ㄱ자형인데 건넌방 동편으로 마루를 깎 한 칸이 더 생겨서 ㄱ자에 한 칸 폭이 달리는 변화를 만들어내었다. 처마는 홀처마이고 기와로 지붕을 이었다.

1 네모진 기둥.

2 모나게 만든 도리.

안채 서편으로 5칸 규모의 아래채가 있다. 뜰아랫방과 곳간이 만들어져 있다. 안채 뒤로 장독대가 있고 장독대 동북편으로 사당 일곽이 있다. 지금 담장과 문은 없어진 상태여서 3칸의 사당만이 남아 있다. 앞퇴가 열리지 않은 구조로 지붕은 맞배이다.

아주 평범한 집이며 변형된 부분도 많다. 대략 19세기 중엽쯤에 세워진 집이라 이해되는데, 이런 집이라도 지정하여 보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충주댐 건설로 인근의 중요한 집들이 이진되거나 없어져서 이제는 이만한 집조차 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충주 윤양계 고택내 건물

- 1 사랑채
- 2 안채(내부)
- 3 안채(외부)

〈출처 및 참고문헌〉

- 문화재대관 (문화재관리국, 1985)

이응해장군 묘 출토복식

李應獬將軍墓 出土服飾

종 목 국가민속문화재 제246호

지 정 일 2006. 09. 15.

시 대 조선시대

소 재 지 충주시 중앙탑면 중앙탑길 112-28
(탑평리, 충주박물관)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411 → 중앙탑 정류장 하차, 10개 정류장,
충주박물관

자가차량 충주IC → 중원대로(0.9km) →
첨단산업로(5.8km) → 중앙탑길(0.6km),
충주박물관



명주섬 누비 중치막

개설 2002년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장들마을에서 이응해(1547~1627) 장군묘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복식과 엄습제구 및 치관제구가 출토되었다. 이응해장군은 선조 16년(1582)에 무과에 등과하였으며 수군절도사·제주목사·병마절도사 등을 역임한 인물로 출토된 복식류는 17세기 무관의 생활상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출토된 복식은 단령(團領) 4점, 철릭[帖裡] 6점, 도포(道袍) 3점, 중치막[中赤莫] 7점, 창의(幟衣) 2점, 직령포(直領袍) 3점, 방령(方領) 3점과 과두(裹肚)¹ 1점, 주의(周衣)² 1점, 저고리 1점, 단령대 1점, 기타 엄습제구 등 34점이다. 2006년 일괄 중요민속문화재로 종목되어 충주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내용 이응해장군묘출토복식은 복식과 함께 이불·돗자리 등의 치관류(治棺類) 등 총 34점이 출토되었다. 수백 년간 땅속에 있었기 때문에 본래의 색상이 갈변된 상태이다.

단령은 모두 4점이며 형태는 비슷하나, 부분적으로 단추를 다는 위치나 무를 고정하는 방법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2점은 겹단령이며 나머지 2점은 홑단령이다. 크기는 길이 141~145.5cm, 뒷폭

¹ 동방형누비포

² 두루마기형누비포

52~53cm, 화장 116~120.5cm의 범위이다.

겹단령은 겹감 단령과 안감 직령을 따로 만
들어 끼운 후 무가 있는 부분을 부분적으로
연결한 겹단령 초기 형식이다. 1점은 겹은 얇게 비치는
숙조(熟綃)이고 안은 화조보문단(花鳥寶紋緞)이며 나머
지 겹단령 1점은 겹감과 안감 모두 화문단(花紋緞)을 사



명주솜 저고리

용하였는데 안감 직령의 경우 연화와 모란 무늬 사이에 새와 경(磬)을 시문한 '경축화조보문단(慶祝花鳥寶紋緞)'이다. 홑단령 2점은 모두 숙초로 만들었다.

철릭은 6점으로 겹철릭 2점, 홑철릭 4점이다. 철릭은 상의(上衣)와 주름 잡은 치마형 하의(下衣)가 연결된 옷으로 시대에 따라 상의와 하상의 길이 비례, 주름의 크기, 소매 모양이 달라지면서 다양한 변화를 보인다. 이응해묘에서 수습된 철릭은 길이 132~149cm, 뒷폭 56~59cm, 화장 120.5~127cm 범위의 크기이며 상하의 비율이 1:1.7에서 1:2까지로 다양하다. 겹철릭 1점은 공단 겹감에 명주 안감이며 아청색이 선명히 남아 있다. 다른 1점은 겹과 안이 명주 겹철릭이다. 홑철릭은 운보문단 2점, 모시 2점인데 운보문단으로 만든 홑철릭 1점은 상의와 하상이 분리된 채로 수습되었으며 소매가 분리되는 탈착식 소매이다.

도포는 3점으로 모두 겹옷이다. 도포는 왕 이하 사대부의 외출복이자 의례복으로 곧은 것에 넓은 소매가 달렸으며 앞자락의 옆선에 달린 무가 뒷길 안쪽으로 들어가 고정되어 두 층의 뒷자락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응해장군의 도포 중 2점은 앞길에서 넘어 온 사다리꼴 무가 뒷자락 뒷중심선까지 이어져 맞닿아 있으며, 나머지 1점은 뒷중심선에서 12cm 정도 벌어져 있다. 2점은 무늬 없는 능직, 1점은 명주를 사용하였다. 치수는 길이 133~143.5cm, 뒷폭 64~50cm, 화장 11.5~120.5cm 정도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창의는 2점으로 모두 겹옷이다. 창의는 임란 이후 입게 된 남자용 포로, '대창의(大褻衣)'라고도 하였다. 곧은 것에 소매가 넓으며 뒷중심선 허리 아래로 긴 뒤트임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2점의 유물 중 명주로 만든 1점은 겹감과 안감 사이에 아주 얇게 솜을 두었으며 트임 시작점에 소형 삼각바대를 대어 터짐을 방지하였다. 나머지 1점은 겹은 화조문단(花鳥紋緞), 안감은 명주로 만든 겹창의로 뒤트임 시작 부분을 굵은 실로 호아 고정시켰다. 치수는 길이 138.5~140.8cm, 뒷폭 46~50cm, 화장 112~122cm 정도이며 뒷중심선 아래에 73.5~75cm의 뒤트임이 있다.

중치막은 7점이 출토되었는데 모두 솜누비옷이다. 남자들의 가장 일반적인 편복포로, 곧은 것에

옆트임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7점의 중치막 유물은 겹감과 안감 모두 명주를 사용하였고 사이에 솜을 두어 누볐다. 소매모양이 착수에서 광수로 이행하는 과정의 두리소매인데, 겨드랑이에 작은 삼각무가 있으며 아래로 넓은 무가 달린 17세기 전반기의 형태이다. 치수는 길이 113.5~133cm, 화장 94~113cm, 뒷폭 40~60cm 범위에 있으며, 옆트임은 33~70cm 범위이다. 누비의 간격은 1.5~24cm 범위로 누비의 간격과 솜의 두께 등이 다양하다.

직령포는 모두 3점으로 모시 홀직령포 2점, 명주 홀직령포 1점이다. 직령은 조선 전기에는 사대부의 예복이나 외출복으로, 또는 하급관리의 관복으로 입었다. 형태는 단령과 비교하여 끈은깃 형태만 차이가 날 뿐 나머지는 같은데 입란 후에는 단령에 징거지면서 겹단령의 안감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용해장군의 묘에서는 출토된 홀단령의 받침옷으로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길이 135.2cm, 뒷폭 93cm, 화장 124.7cm이다.

방령은 모두 3점이 있으며, 방령포 1점과 방령의 2점이다. 방령이란 깃의 모양이 방형(方形)으로 모난 깃을 가진 옷으로 방령의는 모난깃[方領]에 맞깃[對襟], 그리고 짧은 소매와 뒤를 짧게 만든 것이 특징이며 방령포는 길이가 길고 탈착식 긴소매가 달린 옷으로, 마상의(馬上衣)나 무관용 옷으로 기능성이 강조된 옷이다. 방령포 1점의 겹감은 절지모란문단(折枝牡丹紋緞), 안감은 투주(吐紬)로 만든 겹옷이다. 길이 139cm, 뒷폭 52cm, 화장 131cm이다. 소매는 넓은 소매이고 탈착식이며 단추 6개가 달렸던 흔적이 남아 있다. 방령의 1점은 사계화보문단(四季花寶紋緞)으로 만들었는데 앞뒤 길이가 같고 옆트임이 있다. 길이 76cm, 뒷폭 58cm, 화장 64cm이다. 나머지 1점은 앞길이가 뒷길보다 긴 것이 특징으로 좌우에 트임이 있다. 겹감은 세화만초문(細花蔓草紋)이며 안은 명주를 사용하였는데 사이에 한지를 심감으로 넣어주었다. 쇠상단에는 약 10cm 부분에 약 29개의 주름이 잡혀 있다. 옷의 크기는 길이 96.5cm, 뒷폭 61cm, 화장 52.5cm이다.

과두 1점은 중치막과 유사하나 품이 넓고 길이가 중치막보다 짧아 승려의 동방포(東方袍)와 유사하다. 유물은 솜을 두어 누빈 것으로 치수는 길이 113.5cm, 뒷폭 60cm, 화장 94cm이며 겹감과 안감이 모두 명주이며 소매 안 일부에 사면교직(絲綿交織)이 관찰된다. 옆선에 트임이 33cm 있다.

주의는 1점이 있다. 주의는 사방이 두루 막힌 형태에서 유래된 이름으로 두루마기, 주의(周衣)·주막의(周莫衣)·주방의(周防衣)·주차의(周遮衣) 등으로 사용된다. 유물의 겹과 안은 모두 명주로 하여 두겹계 솜을 둔 솜누비로 겹깃이 칼깃이고 안깃이 반목판깃이며 옆과 뒤에 트임이 없이 막혀 있다. 누비 간격은 7.5cm이며 치수는 길이 132cm, 뒷폭 50cm, 화장 108cm이다. 겨드랑 아래 삼각무와 사다리꼴 큰무가 있다.

저고리 1점은 안에 솜을 얇게 넣어 만든 여자 솜저고리로 길이 54cm, 뒷폭 37cm, 화장 81cm이며 겉은 명주로 길을 하고 안감은 토주로 대었으며, 깃은 연화문단(蓮花紋緞), 겨드랑이 한쪽 삼각무는 봉황문단(鳳凰紋緞), 다른 한쪽 삼각무는 화문단을 사용하여 장식하였다.

수의로 단령을 사용할 때는 비단에 띠돈을 그려서 만든 가짜 품대를 사용한다. 이응해장군의 출토 복식 중 대(帶)는 수의용 단령³에 사용된 것으로써 3부분으로 나뉘어져 장미·동백·모란과 대나무 등의 무늬가 있으며 띠돈을 그렸던 흔적은 남아 있지 않다.

기타 염습제구로 이불 1점, 지요 1점, 황교, 종교, 돛자리 등이 있고, 그 외 명주 단편 2점, 모시 단편 16점이 남아 있으며 모두 복식의 부분으로 추정된다.

의의와 평가 이응해장군묘에서 출토된 복식의 대부분은 겉옷인 포류(袍類)로 직령·창의·방령·단령 등 그 종류도 다양하여 임진왜란 이후 남성 겉옷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남성용 복식류임에도 불구하고 의복의 구성이 화려해 피장자인 이응해의 생전 심미안⁴을 짐작할 수 있는 격조 높은 옷들로 평가된다. 단령 안은 화려한 꽃무늬가 펼쳐진 비단이며, 겉은 안이 비치는 얇은 속초(熟綃)⁵로 제작되어 있는 매우 귀한 자료이다. 특히 이응해는 우리나라 복식 변천의 격동기라고 할 수 있는 임진왜란 전후에 생존한 인물이었으므로 당시 복식 변천을 살필 수 있는 자료로서 가치가 크다.

〈출처 및 참고문헌〉

- 문화재대관 (문화재청 편, 2006)
- 이응해장군묘 출토복식 (충주박물관 편, 2004)
- 박물관 특별전 이응해장군묘 출토복식 (충주박물관 편, 2003)

³ 조선 때, 깃을 둥글게 만든 공복(公服).

⁴ 아름다움을 살펴 찾는 안목.

⁵ 연사(練絲)로 짠 실의 하나.

충주 경종 태실

忠州 景宗 胎室

종 목 시도유형문화재 제6호

지 정 일 1975. 08. 20.

시 대 조선시대

소 재 지 충주시 엄정면 괴동리 산 34-1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344 → 죽동 정류장 하차, 24개 정류장
자전거량 동충주IC → 충원대로(4.0km)
→ 내창로(0.8km) → 내창로(1.1km)



내용 태실(胎室)이란 왕손(王孫)이 출생하면서 함께 생산되는 태를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일정한 장소에 묻은 특정지역을 뜻한다.

경종은 숙종 14년(1688) 10월 22일에 후궁인 희빈장씨(禧嬪張氏)의 몸에서 숙종의 첫왕자로 태어나 왕실의 예에 따라 이조판서인 안태사(按胎使) 심재(沈粹)의 집례로 다음해 2월 22일 진시(辰時)에 태향아리를 석함에 넣어 장태(藏胎)¹ 한 뒤 봉토하였다.

후에 왕으로 즉위한 경종은 관례에 따라 그의 태실을 석물로 가봉(加封)하여야 하나 재위 4년중에 이를 이루지 못하고 승하하였으므로 다음의 왕인 영조 2년(1756)에 이르러 지금과 같은 태실로서 격식을 갖추게 되었다.

그런데 경종태실은 순조 31년(1831)에 태실의 석물 일부를 훼손하는 사건이 일어나 보수한 일이 있으며, 1928년에도 태향아리를 꺼내 가면서 파헤쳐져 석물이 엄정면사무소까지 옮겨져 있던 것을 1976년에 원위치에 복원하였다.

태실은 중앙에 사각의 하대석을 놓고 그 위에 구형(球形)의 중동석(中童石)을 놓은 다음 보주가 있는

¹ 조선시대 왕실에서 아기를 낳았을 때 그 태(胎)를 묻는 것을 일컫는다.

팔각의 옥개석을 얹어 석실을 만들고 주위에 팔각으로 전석(磚石)²을 깔고 보호난간을 설치한 팔각 원당형(八角圓堂形)이며, 태실 앞에는 귀부와 이수를 갖추고 “경종대왕태실(景宗大王胎室)”이라 쓰여진 태실비가 세워져 있다.

〈출처 및 참고문헌〉

- 조선시대 태실(胎室)의 역사고고학적 연구 (홍성익, 영남학 27, 2015)

² 벽돌.

충주 창동리 오층석탑

忠州 創洞里 五層石塔

종 목 시도유형문화재 제8호

지 정 일 1975. 08. 20.

시 대 고려시대

소 재 지 충주시 중앙탑면 청금로 112-6(창동리)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411 → 창동 정류장 하차, 7개 정류장

자기차량 충주IC → 종원대로(3.3km) →
요도천변길(3.4km) → 청금로(1.1km)



형태와 특징 이 탑은 본래 고려시대 절터로 추정되고 있는 창동리의 민가 뒤뜰에 있었으나 보존과 관리를 이유로 1977년 지금의 위치로 옮겨 세웠다고 한다. 현재 높이가 2.4m 밖에 되지 않는 자그마한 크기의 이 탑은 지대석(地帶石) 위에 5단의 기단부(基壇部)와 오층의 탑신부(塔身部)만 완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을 뿐, 상륜부(相輪部)는 노반(露盤)¹만 남아 있다.

기단부는 상·하 2층 구조에 각 층의 면석(面石)마다 한 개의 받침기둥[撐柱]과 모서리기둥[隅柱]만 새겨져 있을 뿐 아무런 조각도 없어 단정한 느낌을 준다.

상층기단 갑석(甲石) 위의 탑신 역시 아무런 장식 없이 모서리기둥만 새겨져 있다. 옥개받침이 5단으로 다소 두꺼워진 옥개석(屋蓋石)²은 낙수면(落水面)의 경사가 수평선에 가까울 만큼 완만할 뿐만 아니라, 옥개석 네 모서리의 전각(轉角)도 거의 반전(反轉)이 이루어지지 않아 둔중한 느낌을 준다. 조성수법·크기·비례 등으로 미루어보아 이 탑이 건립된 시기는 고려시대 중엽경으로 추정된다.

〈출처 및 참고문헌〉 • 충북사지 (충청북도, 1982)

¹ 탑의 꼭대기 층에 있는 네모난 지붕 모양의 장식.

² 석탑이나 석등 따위의 위를 덮는 돌. 옥개.

충주 원평리 석조여래입상

忠州 院坪里 石造如來立像

종 목 시도유형문화재 제18호

지 정 일 1976. 12. 21.

시 대 고려시대

소 재 지 충주시 신니면 원평리 108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159 → 내포 정류장 하차, 30개 정류장

자가차량 충주IC → 중부내륙고속도로
(0.5km) → 중원대로(8.6km) → 신덕로
(2.0km)



형태와 특징 불상은 머리 위에 팔각형의 보개(寶蓋)가 올려져 있는 거불이다. 복판복련(複瓣覆蓮)¹이 새겨진 타원형의 자연석 위에 1단의 대(臺)를 올리고 그 위에 안치되어 있다. 존안(尊顔)은 방형(方形)²으로 위엄 있는 인상에 원만한 상호(相好)³를 갖추었다.

반개(半開)한 두 눈은 아래로 내리뜨고 세모꼴을 이루는 코는 우뚝한 편이다. 아래위로 크게 주름진 도톰한 입술에서는 양감이 느껴진다. 콧바퀴가 뚜렷한 장대한 두 귀는 어깨까지 닿는다. 늘어진 턱 아래로는 삼도(三道)가 둔중하게 새겨져 있다. 불신(佛身)은 딱 벌어진 어깨에 당당한 체구 각부의 균형이 적절하다.

착의 형식은 양어깨를 감싼 통견(通肩)⁴으로 수직으로 떨어지는 법의(法衣)⁵ 자락이 묵직하다. 등성 등성 접혀진 상박의 평행 옷주름은 팔을 타고 내려와 오른 손목을 감은 다음 천천히 아래로 흘러내

1 아래로 향하고 있는 겹잎의 연꽃

2 모반듯한 모양

3 부처의 몸에 갖추어진 훌륭한 용모와 형상

4 어깨에 걸침

5 중이 입는 가사나 장삼 따위의 옷

린다. 그리고 깊숙이 파진 가슴 아래로는 붉은 V자형 옷주름이 쏟아지고 있다.

발목 부위에는 흠을 파듯 거칠게 새긴 성근 수직선으로 군의(裙衣) 자락을 나타내었다. 끝단 사이로 양 발끝이 노출되어 있는데 오른발은 뒤에 새로 보수했다. 수인(手印)은 오른손은 손바닥을 안으로 하여 몸 앞에 대고 왼손은 앞쪽으로 비켜 내려 여원인(與願印)을 결했다. 통통한 손바닥과 길쭉한 손가락에서 둔한 양감이 느껴진다.

의의와 평가 이 불상 조각 수법과 옷자락 무늬 형태, 당당한 체구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천안 용화사 석불입상이나 예천 동본동 석불입상과 상당히 유사하다. 조성 시기는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기로 추정된다. 또한 이 불상은 미륵불로 전해 오고 있다. 통일신라 말부터 미륵하생신앙(彌勒下生信仰)의 유행으로 조성된 거대한 규모의 여러 미륵존상 가운데 하나일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절터에는 삼층석탑과 배례석, 석등의 대석과 간주석으로 생각되는 석물들이 전하고 있다. 전해 오는 이야기로는 이곳이 신라 성덕왕 1년에 창건된 선조사(善祖寺)라는 사찰터라고 한다. 그러나 현존 유물의 조성 시기는 통일신라 말 고려 초엽이라고 생각된다.

〈출처 및 참고문헌〉

- 충청북도지 (충청북도, 1992)
- 사지 (충청북도, 1982)

충주 미륵대원지 석등

忠州 彌勒大院址 石燈

종 목 시도유형문화재 제19호

지 정 일 1976. 12. 21.

시 대 고려시대

소 재 지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사지길 150(미륵리)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입반**
245 → 미륵리 정류장 하차, 45개 정류장

자기차량 충주IC → 중부내륙고속도로
(17.0km) → 안보로(2.8km) → 미륵송계
로(8.2km)



형태와 특징 각 부분이 8각의 평면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상·중·하로 이루어진 3단의 반침을 마련하여 불을 밝히는 화사석(火舍石)¹을 올린 후 지붕돌과 머리장식을 얹은 모습이다. 바닥돌과 아래반침돌은 한 돌로 이루어졌으며, 아래반침돌에는 얹어놓은 연꽃무늬를 돌렸다. 가운데 기둥은 적당한 높이에 간결한 모습이다. 윗반침돌에는 아래반침돌과 대칭되는 연꽃무늬를 조각하였다. 화사석은 불빛이 퍼지도록 4면에 창을 내었다. 지붕돌은 여덟 귀퉁이가 살짝 치켜올려졌다. 꼭대기에는 8각의 낮은 반침 위에 보주(寶珠:꽃봉오리모양의 장식)를 얹어 머리장식을 하고 있다. 함께 서 있는 석불입상, 5층 석탑과 함께 고려시대의 작품으로 짐작된다.

〈출처 및 참고문헌〉

• 문화재청 (www.cha.go.kr)

¹ 등(石燈)의 중대석(中臺石) 위에 있는, 등불을 밝히도록 된 부분.

충주 미륵대원지 삼층석탑

忠州 彌勒大院址 三層石塔

종 목 시도유형문화재 제33호

지 정 일 1976. 12. 21.

시 대 고려시대

소 재 지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사지길 150(미륵리)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245 → 미륵리 정류장 하차, 45개 정류장

자가차량 충주IC → 중부내륙고속도로
(17.0km) → 안보로(2.8km) → 미륵송계
로(8.2km)



형태와 특징 탑은 2층 기단(基壇) 위에 3층의 탑신(塔身)을 올리고 머리장식을 얹은 모습이다. 위·아래층 기단과 탑신의 몸돌에는 기둥 모양을 조각하였다. 탑신은 1층 몸돌에 비하여 2층 몸돌의 높이가 많이 줄어들었고, 지붕돌은 밑면의 받침이 4단씩이다. 꼭대기에는 머리장식을 받치던 네모난 받침돌만 남아 있다.

전체적으로 통일신라 석탑의 전형을 충실히 따르고 있지만 시대가 고려로 내려옴으로 인해 지붕돌 밑면받침 수가 4단으로 줄어드는 등 후대의 양식이 나타난다. 대체로 소박하고 단아한 모습을 갖추었다.

〈출처 및 참고문헌〉

• 문화재청 (www.cha.go.kr)

충주 향교

忠州 鄕校

종 목 시도유형문화재 제57호

지 정 일 1980. 01. 09.

시 대 조선시대

소 재 지 충주시 교동8길 3(교현동)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172, 240 → 네오메디칼리닉 정류장 하차, 6개 정류장

자가차량 충주IC → 중부내륙고속도로
(0.9km) → 증원대로(8.3km) → 중앙로
(0.9km)



개설 태조 7년(1398)에 현유(賢儒)의 위패를 봉안, 배향하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하여 창건되었다.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인조 7년(1629)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다. 1897년 충수하였고, 1936년 군수 김석영(金錫永)이 대성전과 동무(東廡)·서무(西廡)를 중수하고 명륜당을 신축하였으며, 1966년 대성전을 중수하였다. 현존하는 건물로는 대성전·동무·서무·명륜당·동재(東齋)·서재(西齋)·내삼문(內三門)·외삼문(外三門)·치사재(治事齋) 등이 있다. 대성전에는 5성(五聖), 송조4현(宋朝四賢), 우리 나라 18현(十八賢)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조선시대에는 국가로부터 토지와 전적·노비 등을 지급받아 교관 1명이 정원 30명의 교생을 가르쳤으나, 갑오개혁 이후 신학제 실시에 따라 제도적인 교육기능은 없어지고, 매년 충주시·증원군내 효자효부(孝子孝婦)를 춘계 석전(釋奠) 때에 표창하며 1976년부터 명륜학원(明倫學院)을 운영, 한문·서예(書藝)·경서(經書) 등을 가르치고 있다. 종교적 기능으로는 봄·가을에 석전을 봉행하며 초하루·보름에 분향을 하고 있다. 이 향교의 소장전적은 판본 100종 137책, 사본 2종 3책이 있다. 향교의 운영은 전교(典校) 1인과 장의(掌議) 수인이 담당하고 있으며, 1979년에 유림회관(儒林會館)을 건립, 운영하고 있다.

〈출처 및 참고문헌〉 • 문화유적총람(文化遺蹟總覽) (문화재관리국, 1977)

충주 이상급 신도비

忠州 李尙伋 神道碑

종 목 시도유형문화재 제63호

지 정 일 1980. 01. 09.

시 대 조선시대

소 재 지 충주시 주덕읍 안음골길 29-1(사락리)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131 → 사락리 정류장 하차, 33개 정류장

지가치량 충주IC → 종원대로(3.2km) → 슬고개로(2.3km) → 매남구술길(2.0km)



개설 이상급(1571~1637)은 자는 사언(思彦), 호는 습재(習齋)이며, 본관은 벽진(碧珍, 현 경북 성주)이다. 선조 39년(1606) 문과에 급제한 후 형조좌랑, 평안도도사를 역임하였다. 그 후 벼슬을 버리고 학문연구와 후진교육에 힘썼으며, 인조반정 후 다시 단천군수·연안부사 등을 역임하고 병조참지가 되어 군비확장에 힘을 기울였다. 인조 14년(1636)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남한산성에 왕을 모셨으며, 강화도로 가던 중 적병에게 피살되었다. 그 후에 이조판서로 추증¹되었고, 순조 때 ‘충강공(忠剛公)’의 시호를 받았다.

이 비는 대석을 8면으로 만들었고 8면에 조각을 하였으며 6개면은 연꽃을 대칭 되는 2면에는 동물상을 조각하였다. 대석의 윗면은 큼직큼직한 연꽃잎 8개를 조각하고 8각 기둥형의 비를 세웠다. 한면의 길이는 26cm로 8면에 예서체의 동일한 글자를 새겼다. 비에 사용된 석재는 흰색의 대리석이며 이수는 4각으로 만들어 지고 비와 이수가 같은 하나의 돌로 구성되었다. 전후면에 각각 두마리의 용을 사실적으로 조각하여 생동감을 느끼게 한다.

〈출처 및 참고문헌〉 • 문화재청 (www.cha.go.kr) • 충주시청 (www.chungju.go.kr)

¹ 나라에 공로가 있는 벼슬아치가 죽은 뒤 그 품계를 높여 줌.

충주 청녕헌

忠州 淸寧軒

종 목 시도유형문화재 제66호

지 정 일 1980. 11. 13.

시 대 조선시대

소 재 지 충주시 관아1길 21(성내동)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172, 240 → 국민은행 정류장 하차, 7개
정류장

자가차량 충주IC → 중부내륙고속도로
(0.9km) → 증원대로(7.4km) → 사직로
(1.5km)



형태와 특징 정면 7칸, 측면 4칸의 겹처마 팔작지붕 건물이다. 고종 7년(1870) 8월에 화재로 소실되어 같은해 10월에 충주목사 조병로(趙秉老)가 28칸을 중건하여 관아로 사용하였던 건물이다. 중앙 3칸은 우물마루를 깔아 넓은 대청으로 하였으며, 우단 1칸은 대청보다 조금 높여 전후면에 툇마루를 둔 마루방으로, 대청 좌측 2칸은 전후면에 툇마루를 둔 온돌방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좌단 1칸에는 온돌방 아궁이를 만들기 위하여 하부는 함실로, 상부는 누마루를 만들었다. 구조는 가공된 장대석으로 2단 축조한 기단상에 원형주좌(圓形柱座)를 양각으로 새긴 팔각의 주초석에 기둥을 세우고 공포(楕包)를 올렸다. 공포는 쇠서가 2중으로 된 이익공(二翼楕)으로 앙서[仰舌]형상으로 돌출된 익공의 선단에 연봉(蓮峰)이 장식적으로 조각되어 조선 후기의 건축양식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내부로는 초각(草刻)1을 한 보아지(규모가 작은 집의 들보 구실을 하는 것)가 퇴량(退梁)을 받치고 있다.

또한 창방(昌枋)으로 결구된 주간에는 초각이 없는 화각반(花刻盤)을 각 칸에 1구(具)씩 배치하여 주심도리(柱心道里) 장혀[長舌]를 받치고 있다. 가구(架構)는 전후 평주 사이에 양내고주(兩內高

柱)를 세워 대량과 퇴량을 결구하고 있는데 대량 상부에 낮은 동자주(童子柱)²를 놓고 종량(宗樑)³을 올렸다.

종량 상부 중앙 부분에는 제형대공(梯形臺工)을 설치하여 종도리와 뜰창방의 이중도리와 함께 옥개부분의 하중을 받치도록 되어 있는 비교적 규모가 큰 7량집으로 ‘淸寧軒’ 3자의 현판이 붙어 있다. 1983년에 해체, 보수하였다.

〈출처 및 참고문헌〉

- 문화재지 (충청북도, 1982)
- 충주 · 증원지 (충주시 · 증원군, 1985)

² 세로로 세운 짧은 기둥

³ 마룻보

충주 제금당

忠州 製錦堂

종 목 시도유형문화재 제67호

지 정 일 1980. 11. 13.

시 대 조선시대

소 재 지 충주시 관아1길 21(성내동)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172, 240 → 국민은행 정류장 하차, 7개
정류장

주차장 충주IC → 중부내륙고속도로
(0.9km) → 증원대로(7.4km) → 사직로
(1.5km)



형태와 특징 정면 7칸, 측면 3칸의 겹처마 팔작지붕건물. 고종 7년(1870) 8월에 청녕헌(淸寧軒)과 함께 소실되어 같은 해 충주목사 조병로(趙秉老)가 중건하여 관아로 사용하였던 건물이다.

이 건물의 중앙에는 ‘제금당(製錦堂)’이라는 현판이 붙어 있고, 대문에는 ‘예성별관(藝城別館)’이라는 현판이 붙어 있다.

구조는 가공이 된 장대석을 2단으로 축조한 기단상에 방형주초석을 놓고 원형주를 세워 이익공(二翼工) 양식의 공포(棋包)1를 구성하였는데, 양서형상(仰舌形狀)으로 돌출된 익공의 선단에 연봉(蓮峰)이 장식되었고, 내부로는 초각(草刻)을 한 보아지(梁奉)가 돌출되어 퇴량을 받쳐주고 있어 청녕헌과 유사한 공포의 구성수법을 볼 수 있다.

이 제금당은 중앙 2칸 통간을 우물마루의 대청으로 하여 이용하였으며, 대청 우측 2칸은 온돌방과 마루방으로, 대청 좌측 3칸은 2칸의 온돌방과 1칸의 마루방으로 각각 만들었는데 전면에는 모두 반칸씩의 툇마루를 설치하였다.

〈출처 및 참고문헌〉 • 문화재지 (충청북도, 1982) • 충주 · 증원지 (충주시 · 증원군, 1985)

1 처마의 무게를 받치려고 기둥머리에 짜 맞추어 댄 나무쪽.

충주 축성사적비

忠州 築城事蹟碑

종 목 시도유형문화재 제68호

지 정 일 1980. 11. 13.

시 대 조선시대

소 재 지 충주시 관아어길 21(성내동)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172, 240 → 국민은행 정류장 하차, 7개
정류장

자전거량 충주IC → 중부내륙고속도로
(0.9km) → 중원대로(7.4km) → 사직로
(1.5km)



개설 전체 높이 2m, 비신의 높이 1.38m, 너비 52cm.

고종 6년(1869)에 충주목사 조병로(趙秉老)가 충주성을 쌓고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충주 동헌 앞에 건립한 것이다. 이 비석의 조형은 네모난 대좌 위에 비신을 세우고 그 위를 지붕모양의 덮개돌로 마감한 형태로서, 조선시대 일반적인 비석 조형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화강석재로 조성된 이 축성비의 앞면에는 ‘築城事蹟碑(축성사적비)’란 제목 아래에 공사를 시작한 날짜, 성의 둘레, 성벽의 두께와 높이, 각종 성문과 문루의 명칭 및 규모 등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좌측면과 뒷면에는 축성과 관계된 사람들의 명단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좌수(座首) 조광수(趙光洙)를 비롯하여 수교(首敎) 유덕관(劉德觀), 호장(戶長) 이동근(李東根), 그리고 간역장교(看役將校) 4명과 색리(色吏)¹ 51명의 명단이 나열되어 있다.

〈출처 및 참고문헌〉

- 충주사지 (충주시, 2001)

¹ 말단의 향리(鄉里)

충주 단호사 삼층석탑

忠州 丹湖寺 三層石塔

종 목 시도유형문화재 제69호

지 정 일 1980. 11. 13.

시 대 고려시대

소 재 지 충주시 충원대로 201(단월동)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610 → 단월동 정류장 하차, 4개 정류장

자가차량 충주IC → 중부내륙고속도로
(0.9km) → 충원대로(4.4km) → 서부순환
대로(3.5km)



형태와 특징 현존 높이는 2.14m이며, 본래는 5층석탑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약사전(藥師殿) 앞에 세워진 이 탑은 하층 기단부는 현재 시멘트로 덮여 있으나 3층까지의 탑신과 옥개석은 완전하며 상륜부(相輪部)에는 노반(露盤)¹까지 잘 남아 있다.

단층기단의 면석은 높이 43cm인데 우주(隅柱)와 탕주(撐柱)가 표현되었고, 갑석(甲石)은 높이 16cm로 윗면에 1단의 탑신 괴임이 조각되어 초층 탑신을 받치도록 되어 있다. 초층 탑신은 40cm의 높이에 양 우주를 나타냈으나 서북쪽의 일부분이 파손되어 시멘트로 약간 보수한 흔적이 보인다. 초층 옥개석은 높이 25.5cm로 하단부에 2단의 옥개받침과 상부에 1단의 탑신괴임이 조각되었고, 옥개석 하면에 낙수홈이 파여 있다. 2·3층의 탑신 및 옥개석은 초층과 유사하며 노반은 방형으로 높이가 6.5cm로서 윗부분 중앙에 찰주공(擦柱孔)이 만들어져 있다.

이 탑은 부분적인 파손은 있으나 우주와 탕주의 모각 수법과 옥개석의 층급받침, 옥개석 낙수면의 원만함과 낙수홈 등으로 미루어 고려 중기 이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나, 『조선고적조사보고서(朝鮮古蹟調査報告書)』에 ‘읍남약사전 삼층석탑 신라(邑南藥師殿三層石塔新羅)’라는 기록이 있어 통일신라시대 작품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¹ 탑의 꼭대기 층에 있는 네모난 지붕 모양의 장식.

최근 이루어진 정밀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원래 5층석탑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이 탑을 3층으로 보고 3층 옥개 위에는 노반(露盤)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 왔으나 이것은 노반이 아니라 3층 옥개에서 4층 탑신면의 우주가 각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기단면석에 돌을새김을 한 우주와 탕주의 표현 수법이 일정하지 않지만, 각층 탑신에는 우주의 표현이 정연하다. 탑의 체감비율로 볼 때 상당히 경쾌한 탑신부를 형성했으리라 짐작된다.

그리고, 충주지방의 탑들이 대개 산 위에 위치하나 이 탑은 평지에 세워졌고 그 본래의 위치를 지키고 있는 탑으로서 가치가 있다.

〈출처 및 참고문헌〉

- 충주중원지 (충주시 · 중원군, 1985)
- 문화재지 (충청북도, 1982)
- 문화재청 (www.cha.go.kr)

충주 창동리 마애여래상

忠州 倉洞里 磨崖如來像

종 목 시도유형문화재 제76호

지 정 일 1980. 11.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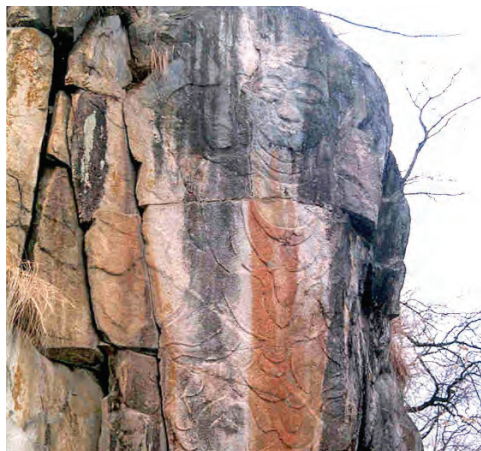
시 대 고려시대

소 재 지 충주시 중앙탑면 창동리 240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입반**

411 → 창동 정류장 하차, 7개 정류장

자가차량 충주IC → 중부내륙고속도로
(0.9km) → 중원대로(3.3km) → 요도천변
길(3.4km)



형태와 특징 높이 0.63m. 남한강가 자연 암반의 일부를 이용하여 한쪽 표면을 평평하게 다듬고 그 위에 동남향하여 입상의 마애불을 양각하였다.

현재 전체적으로 마멸과 박락이 심하게 진행되어 손·발·두부(頭部)·옷주름 선 등 세부 표현은 상당 부분 불분명한 상태이다. 벽면 곳곳에 금이 간 것 이외에도 상체를 가로질러 길게 균열이 있다. 그리고 단면의 틈새가 크게 벌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불상의 얼굴은 둥글고 비만한 방형(方形)으로 복스럽고 천진한 표정이 특징적이다. 나발(螺髮)의 머리에는 육계(肉髻)가 희미하게 남아 있다. 부드러운 골격을 이루는 부푼 양 볼에서 온후한 양감이 느껴진다.

눈썹이 살짝 올라간 눈은 가늘게 내리뜨고 있다. 깊게 패인 양 눈썹은 길게 활 모양을 그리고 있다. 미간에서 곧바로 이어지는 코는 넓적하게 깎았다. 얇은 입술은 가볍게 모아 살짝 다물고 있다. 두 귀는 길어서 어깨에 닿았고 굵은 목에는 삼도(三道)가 뚜렷하다. 장대한 어깨에는 양 어깨 모두 법의(法衣)를 걸쳤다.

옷주름이 가늘게 밀착된 신체는 극히 평판적이다. 목덜미에서 둥글게 깃을 접은 법의 자락은 몸 앞으로 늘어져 3줄의 뾰족한 U자형 옷주름을 이루며 흘러내리고 있다.

군데군데 마멸된 부분을 볼 수 있다. 긴장한 상체를 높다란 목깃으로 가리고 있다. 즉, 가슴이 거의 노출되지 않는 착의(着衣) 형식이다. 전면을 뒤덮은 도드라진 양각의 옷주름 선은 유려하다. 불상은 아랫부분이 깨어져 나가 완전한 모습은 알 수 없다. 좌측 하단부에 남아 있는 연판(蓮瓣: 폭 55.5cm, 內蓮瓣 33cm) 등을 통해 원형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불상의 제작 연대는 장대한 체구와 안면 표현, 옷주름 선 등 전체적인 조각 양식으로 보아 고려시대로 추정된다. 마애불이 있는 일대는 인근의 창동 오층석탑과 함께 고려시대의 절터로 보는 학계의 견해가 있다.

〈출처 및 참고문헌〉

- 문화재지 (충청북도편, 1982)
- 충청북도지 (충청북도, 1992)

충주 최응성 고가

忠州 崔應聖 古家

종 목 시도유형문화재 제87호

지 정 일 1981. 05. 01.

시 대 조선시대

소 재 지 충주시 살미면 중원대로 2220(용천리)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240 → 용천2리 정류장 하차, 26개 정류장

자가차량 충주IC → 중부내륙고속도로 (17.0km) → 19번 국도(5.0km) → 중원대로(1.9km)



개설 조선 숙종 때 문장가였던 함월(涵月)최응성(崔應聖, 1655~1727)의 생가로 알려지고 있는데, 원래는 살미면 무릉리에 있었던 것을 1983년충주댐 수몰지구로 편입되어 현 위치로 다시 옮겨 복원하였다. 안채와 사랑채인 염선재(念善齋), 사당인 무릉사(武陵祠), 그리고 함월정(涵月亭)이라는 정자가 남아 있다.

건물의 전체 배치는 ㄱ자형의 안채를 중심으로 전면에 一자형의 행랑채가 있고 좌측으로는 최응성이 서재로 사용하던 정면 4칸, 측면 3칸에 팔작지붕으로 된 염선재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튼ㄱ자형을 이루고 있다. 우측으로는 ㄱ자형의 창고가 사괴석(四塊石)¹담장으로 일곽을 만들어 함께 배치되어 있다.

또한, 안채와 통로로 사용하는 동측담을 사이에 두고 고종 11년(1874) 후손들이 건립하여 최응성과 수암(遂庵) 권상하(權尙夏, 1641~1721)를 향사하는 무릉사가 있으며, 고택 앞으로는 권상하가 찬양하여 최응성의 호를 따서 함월정이라 이름을 붙인 정자가 있다.

안채의 평면은 정면 7칸, 측면 1칸에 다시 꺾이어서 정면 3칸, 측면 1칸을 이루면서 ㄱ자형 평면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안채는 2칸 통간의 우물마루를 칸 대청을 중심으로 우측편에 1칸 반의 안

¹ 벽이나 돌담을 쌓는 데 쓰는, 한 사람이 네 덩이를 질 수 있을 만한 크기의 돌.

방과 1칸의 윗방을 ㄱ자형으로 꺾이는 부분에 드렸고 여기에 붙여서 1칸 반의 부엌을 만들었는데 상부를 다락으로 사용하고 있다.

구조는 자연석으로 쌓은 기단위에 덩빙주초석을 놓고 네모기둥을 세웠는데 기둥머리에는 양봉(樑棒)이 없이 주심도리와 대들보만이 함께 결구되어 있다. 지붕들은 대들보 위에 동자주대공을 직접 놓고 종도리를 받고 있는 3량가구이며, 지붕은 홑처마 맞배 기와지붕을 이루고 있다.

안채와 서재인 엄선재, 그리고 행랑채가 튼ㄱ자형으로 배치되고 또 그 옆에는 사당인 무릉사가 있고 앞으로는 단아하고 운치있는 함월정이 서로 위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구성요소를 비교적 잘 보여주고 있는 고택이다.



〈출처 및 참고문헌〉

- 문화재청 (www.cha.go.kr)

삼탄집

三灘集

종 목 시도유형문화재 제137호

지 정 일 1984. 12. 31.

시 대 조선시대



편찬/발간 경위 이 문집은 두 본이 전해온다. 한 본은 중종 9년(1514) 이승소의 아들 이희(李熙)와 외손자 이수동(李壽童)이 편집·간행한 것으로 6권 2책이며 목활자본이다. 권두에 신용개(申用溉)와 남곤(南袞)의 서문이 있다. 서문에서 남곤은 성종이 간행하려고 수집하였다가 명을 내리기 전에 죽어 출판되지 못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다른 한 본은 1535년 외손자 이수동이 충청도 관찰사로 있을 때 청주목에서 간행한 것으로 총 15권으로 편집된 목판본이다. 이 가운데 9권부터 15권까지의 2책이 전해진다.

서지사 1514년 간행본(6권 2책, 목활자본)은 성암고서박물관에 있고, 1535년 간행본(15권 2책, 목판본)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다. 한편 중종 8년(1513)에 간행된 『함흥판본 삼탄집』은 14권 5책로 개인(최정출)이 소장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37호로 지정되어 있다.

내용 1514년 간행본은 권두에 저자의 행장과 묘지 각 1편, 권1~6에 부(賦) 1편, 사(辭) 2편, 시 693수가 수록되어 있고, 1535년 간행본은 권9에 시 139수, 권10·11에 기(記) 4편, 서(序) 21편, 발(跋) 3편, 해(解) 1편, 권12에 잠(箴)·논(論)·의(議) 각 1편, 잡저 7편, 책제(策題) 7편, 권13에 서(書) 1편, 제문 6편, 책(冊) 3편, 청사(靑詞) 2편, 교(敎) 1편, 전(箋) 5편, 권14·15에 비갈(碑碣) 8편, 묘지 8편, 행장 1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두 본을 아울러 살펴보면 시는 미인도(美人圖)·병풍화(屏風畵)를 읊은 것이 많고, 「통상인허곡(通上人虛谷)」 등 일본(日本)과 류큐(琉球)에서 온 사신들 속에 끼어 있는 승려들을 비롯하여 불자들과 화답한 시가 여러 수 보인다. 기 중 「명석사만경현기(攄石寺萬景軒記)」도 불가(佛家)의 글이다.

서(序)에는 송서(送序)가 5편, 시편(詩編) 서문이 11편, 『황화집(皇華集)』 등 관판본에 대한 서문 5편이 있다.

발은 시편의 발문들이고, 병서(兵書)에 대한 발문이 1편 있다. 송서(送序)나 시서(詩序)에는 상인(上人)¹과 관계되는 글이 많은데, 이로써 송유배불(崇儒排佛)²의 조선 초까지도 불교사상의 영향이 컸음을 알 수 있다. 「회간대왕묘의(懷簡大王廟議)」는 성종의 아버지인 덕종(德宗)이 이미 중국으로부터 회간대왕에 봉해진 점과, 또 사친(私親)에 대한 중국 조정의 전례를 들어 그 신위를 문소전(文昭殿)에 합부해야 한다고 주장한 글이다.

잡저는 형조판서 사직소와 계(契)에 관계된 글들이다. 「유생금란계(儒生金蘭契)」·「난파계(鑾坡契)」·「장병관계(掌兵官契)」·「관서열읍태수계(關西列邑太守契)」 등 유생으로부터 태수(太守)에 이르기까지 계(契)의 조직이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사회상의 한 단면을 이해하는 데 참고 자료가 된다.

책제는 북쪽의 야인과 남쪽의 왜와 류큐, 또 여러 섬들의 사신에 대한 접대와 방비 등 국방 문제를 다룬 것이 대부분이다. 청사는 불가의 기도문으로 고려 시대의 문집에서는 보이나 조선 시대에는 명맥이 끊긴 것이다. 비갈들은 신숙주(申叔舟)·김질(金礪) 등에 관한 것이다. 또 이 문집에는 간행에 관계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출처 및 참고문헌〉

- 삼탄집(三灘集, 이승소, 정선웅 역, 한국고전번역원, 2008)

1 지혜와 덕을 갖춘 승려의 존칭

2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숭상하는 일

충주 오갑사지 석조여래좌상

忠州 烏岬寺址 石造如來坐像

종 목 시도유형문화재 제144호

지 정 일 1984. 12. 31.

시 대 고려시대

소 재 지 충주시 양성면 모점1길 404(모점리)

찾아가기 **자가차량** 감곡IC → 북부로(4.8km) → 삼당1길(2.6km) → 양암로(3.7km) → 모점1길(3.9km)



형태와 특징 고려중기의 석불로 추정되며 기법이 섬세하고 정교하게 조각이 되어있어 우수한 작품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이 불상은 불신상대 중대 하대의 4석으로 조성되었는데 두정의 육계와 상호에 약간씩의 마모와 수인이 절단된 것을 제외하면 상태가 양호하게 보존되었을 뿐 아니라 상대석의 양연좌와 의문의 처리 형태나 하대의 복연좌 등이 매우 수려함을 보이고 있다.

백호공 미안 비량 구진 등의 형태가 원만하고 법의는 우견편단(右肩偏袒)¹인데 옷주름은 양 어깨를 덮고 전면에서 무릎 밑으로 흘러 양 무릎 사이에서 겹겹의 주름을 조형하였다. 석조불상의 코 부분이 떨어져 전래되어 온 이야기가 있는데 석불의 코 부분을 떼어 물에 타 미시면 소원성취가 된다고 하여 코가 없어졌다고 전해진다. 지금도 불상이 있는 앞 밭에서는 명창(고려 명종 22년:1192) 3년이라 새겨진 기와와 오갑사라 쓰여진 기와가 출토되어 이 부분에 거대한 사찰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출처 및 참고문헌〉

• 문화재청 (www.cha.go.kr) • 충주시청 (www.chungju.go.kr)

¹ 오른쪽 어깨 옷깃을 한쪽으로 뜯어는 것

이수일 진무공신교서 및 초상

李守一 振武功臣敎書 및 肖像

종 목 시도유형문화재 제178호

지 정 일 1995. 06. 30.

시 대 조선시대

소 재 지 충주시 중앙탑면 중앙탑길 112-28
(탑평리, 충주박물관)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411 → 중앙탑 정류장 하차, 10개 정류장, 충주박물관

자전거량 충주IC → 공원대로(0.9km) →
첨단산업로(5.8km) → 중앙탑길(0.6km),
충주박물관)



개설 비단 바탕에 채색. 가로 184cm, 세로 99cm. 이수일의 초상화는 단령(團領)¹과 사모관대(紗帽冠帶)를 갖추 입은 뒤 바닥에 채전을 깔고 교의자(交椅子)에 앉아서 발을 의담(椅踏) 위에 올려 놓고 두 손을 공수한 반우향의 의자에 앉은 전신상[全身交椅坐像]이다. 도상이 17세기 초 공신도상들의 전형적인 특징과 공통점이 매우 많다. 그래서 진무공신(振武功臣)에 녹훈되었을 때 그려진 공신도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내용

1) 초상화

낮고 풍만한 오사모(烏紗帽) 그리고 단령 옆 자락의 과장된 트임과 그 아랫부분의 단순화된 직사선 표현, 단령 뒷자락의 형식화된 삼각형 묘사도 17세기 초의 공신도상들과 매우 흡사하다. 교의자의 등받이와 손잡이가 둥그렇게 말린 모습이나 농묵(濃墨)²의 먹선으로 외곽선을 그린 다음 명

1 깃을 둥글게 만든 공복

2 짙은 먹물

암 차이를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갈색 진채(眞彩)³를 평면적으로 칠한 것도 17세기 초상화의 통상적인 예와 같다.

발을 놓는 의답도 조각 장식을 넣은 목제(木製)로서 윗면에는 돛자리를 묘사하되 짧은 사선을 수 없이 넣어 올을 일일이 표현한 것도 17세기의 전형적인 공신도상들과 같은 모습이다.

홍배는 적색 진채 바탕에 금분으로 뇌문(雷文)⁴을 선묘(線描)한 다음, 상부 배경에 적황녹청(赤黃綠靑)의 채운(彩雲)을 그리고, 하부 배경에는 모란을 그렸다. 그 다음 중앙에 해치 한 마리를 그린 해치 홍배이다. 무관(武官)을 상징하는 해치는 온몸에 붉은 갈기가 돌고 입을 벌려 포효하며 서 있다. 관대는 황색 바탕에 검은 무늬가 있는 띠돈을 사용한 서대(犀帶)이다. 띠돈을 끼운 금속 테에는 금분을 칠했다. 전반적인 화법도 기본적으로는 17세기 초의 공신도상들과 거의 유사한 기법이되 다소 세련된 감각이 있다.

얼굴은 굵기와 농담의 차이가 별로 없는 붉은 필선으로 윤곽선과 주름선을 잡았다. 그 뒤 붉은 기가 도는 살색을 가볍게 선염(渲染)⁵하였다. 그 다음 주름선 주위를 약간 더 붉은색으로 살짝 우려서 미세하나마 요철을 표현하였다.

눈은 위 눈꺼풀 부분에 먹선을 덧 그어 강조하고 가는 필선으로 속눈썹을 그렸다. 눈동자는 먹선으로 원형 외곽선을 그리고 내부를 담묵(淡墨)으로 칠하였다. 그 뒤 농묵의 점을 찍어 동공을 표현하였다. 그 다음 흰자위 부분에 흰색을 담채(淡彩)하고 양쪽 눈초리 부분에 약간의 홍기를 주며 마무리했다. 수염은 가늘고 짙은 먹선으로 선묘하였다. 그 뒤 담묵으로 수염 전체를 우렸으며, 부분적으로 갈색 필선과 갈색 선염도 삽입하였다.

단령의 옷주름은 직선 중심으로 단순화된 먹선을 사용하여 묘사하되, 먹선이 17세기 초의 전형적인 공신도상들처럼 굵고 질지 않아 보다 세련되고 경쾌한 느낌을 준다. 그리고 단령의 운문(雲文)⁶을 선묘한 뒤 전체를 중묵(中墨)만으로 선염하였다. 통상 자색으로 담채했던 이전의 전형적인 공신도상들과는 약간 다른 방식이다. 단령의 옆 자락이 벌어지며 드러난 안감에는 청색과 녹색 진채를 사용하여 강한 장식적 효과를 거두었다. 동시에 홍배나 채전 등의 화려한 채색과 유기적인 호응을 이루는 효과도 얻고 있다.

3 진하고 강하게 쓰는 채색

4 번개무늬

5 색칠할 때 한쪽을 진하게 하고 다른 쪽으로 갈수록 옅고 흐리게 하는 일

6 구름무늬

비단은 올이 고운 통견이고, 아교와 백반을 적게 사용하여 반짝임이 없는 톱툰한 느낌이 좋은 편이다. 6·25 피난 시에 세로로 세 겹을 접었기 때문인 듯 비단에 세로 방향으로 두 군데 길게 꺾이고 부러진 상흔이 있다.

현재 얇은 장지에 흉부까지 그린 정면관(正面觀)과 측면관(側面觀)의 초본(草本)도 함께 전해지고 있다. 기본적인 화법은 대체로 정본과 유사하다.

2) 교서(정사공신녹권)

정사공신녹권은 그 형식과 형태가 통상의 예와 같다. 두루마리 뒷면의 구수(句首) 부분에 “振武功臣二等李守一(진무공신이등 이수일)”의 첨(簽)이 있고, 미자(尾子) 부분에 “金時讓製 柳時慶書(김시양제 유시경서)”의 첨이 있다.

공신녹훈 교서의 반포일은 “天啓五年 四月日(천개오년(1625년) 사월 일)”이며, 교서의 표제는 “敎誥誠奮威出氣 振武功臣 輔國崇祿大夫 行慶尙右道水軍節度使 兼三道統制使 鷄林府院君 李守一 書(교 알성분위출기 진무공신 보국숭록대부 행경상우도수군절도사 겸삼도통제사 계림부원군 이수일 서)”라 쓰여 있다.



〈출처 및 참고문헌〉

- 한국의 초상화 (조선미, 열화당, 1983)
- 문화재청 (www.cha.go.kr)

임경업 초상¹

林慶業 肖像

종 목 시도유형문화재 제179호

지 정 일 1995. 06. 30.

시 대 조선시대

소 재 지 충주시 설미면 구향골길 16-5(세성리, 별묘)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240 → 우체국앞 정류장 하차, 24개 정류장

자가차량 충주IC → 중부내륙고속도로
(17.0km) → 19번 국도(5.0km) → 매남이
길(2.2km)



내용 비단 바탕에 채색. 세로 160cm, 가로 90cm. 임경업의 초상화는 교의자 뒤의 오른쪽 배경에 높은 향궐(香櫃)을 배설한 뒤 그 위에 사자 향로와 가요(哥窯) 화병을 놓은 다음 화병에 송죽매(松竹梅)의 세한삼우(歲寒三友)를 꽂은 것도 그렇다. 흥배는 대단한 추상적 서운문(瑞雲文) 중심으로 이루어진 명칭 미상의 독특한 형태인 점 등은 모두 17세기 조선 초상화와는 다른 명나라의 이국적인 풍격이다.

『임충민공고적(林忠愍公故蹟)』에 의하면, 1640년 6월에 명나라 장수가 황제에게 임경업의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하여 중국 화가를 보내서 초상화 2벌을 그린 다음 1벌은 가져가고 1벌은 그에게 주었다고 한다. 임경업의 초상화가 명나라 풍격을 보이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사실에서 연유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전하는 이 초상화는 18세기에 다시 그려진 조선 초상화로 추정된다.

전반적인 도상은 명나라 풍을 따르고 있지만, 화법의 일부가 조선 후기의 초상화법과 상통되는 점이 많다. 특히 오사모의 날개 무늬를 일일이 정세하게 묘사하여 착시를 일으킬 정도로 사실적인 묘사를 시도한 것이 그렇다. 더욱이 단령의 운보문(雲寶紋) 주변에 작은 장식 문양들을 복잡하게

¹ 임경업초상은 이 그림 외에도 2009년 12월 4일 문화재자료 제69호로 지정되어 충주 임충민공 충렬사에 소장하고 있는 초상화 1점이 있으나 관련내용이 동일하여 생략하였다.

첨가하여 장식 취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현전본을 기준으로 볼 때, 18세기 이후의 우리나라 초상화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이다.

얼굴은 3단계 정도의 농담 변화가 있는 갈색 필선으로 윤곽선과 주름선을 잡았다. 주름선 주변에 갈색으로 가볍게 선염(渲染)하여 명암을 표현하였다. 이마와 인중에는 얇은 자국과 작은 점까지 표현하였다. 눈의 동공은 중앙 부분을 짙게 칠하고 주변으로 가면서 얇게 풀어서 동그란 입체감을 표현하였다. 관복은 기본적으로 옷주름을 다소 생략하여 표현하되, 직선과 곡선을 적절히 혼합하여 알맞게 묘사한 다음 옷주름 주변을 가볍게 선염하였다. 관복의 운모문 문양은 약간 짙은 청색 필선으로 선묘(線描)한 뒤 단령(團領)² 전체를 청색으로 담채(淡彩)하였다. 이는 17세기 초의 초상화와도 다르고 18세기 후반과도 다른 것이다. 명나라 풍의 관복 표현법을 많이 따른 결과로 생각된다. 홍배의 채색은 조선 초상화와 달리 두터운 석채(石彩)³를 후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물기가 있어 다소 얇은 느낌이 드는 채색으로 이루어진 것도 명나라 풍을 따른 결과로 보인다.

호피는 갈색 담채의 필선으로 무늬를 꼼꼼하게 묘사한 뒤 바탕을 황색으로 물게 담채하였다. 책상과 의단(椅踏)에는 회색으로 조각 장식과 문양을 선묘하였고, 삼금대(鍍金帶)⁴와 향로, 화병에는 금분을 사용하였다. 금분의 질이 좋지 않았던지 색조가 다소 어둡고 탁한 편이다. 화면 우상변에는 단정한 해서체로 쓴 “충민공임장군유상(忠愍公林將軍遺像)”이라는 표제가 있다. 비단은 울이 굵고 도톰한 광폭 통견을 사용하였다. 전 폭에 걸쳐 비단이 꺾이고 박락된 데다가 때가 많이 타서 보존 상태가 좋지 않은 편이다. 특히 하반부는 퇴락이 다소 심한 편이다. 1984년 유리 액자로 개장하며 족자 상태의 원형을 잃었으며, 이때 훼손이 심한 부분을 조악하게 보채(補彩)하였다.

이 초상화와 도상이 동일한 것이 국립중앙박물관에 1벌 소장되어 있다. 박물관 본이 보존 상태도 보다 좋은 편이다.

〈출처 및 참고문헌〉

- 한국의 초상화 역사 속의 인물과 조우하다 (문화재청 편, 놀와, 2007)
- 한국의 초상화 (조선미, 열화당, 1983)

² 깃을 둥글게 만든 공복

³ 진채

⁴ 화려한 문양이 새겨진 금띠

유백증 초상

俞伯曾 肖像

종 목 시도유형문화재 제180호

지 정 일 1995. 06. 30.

시 대 조선시대

소 재 지 충주시 노은면 둔터로 88-21(가신리)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입만**
142 → 가신 정류장 하차, 42개 정류장

자기차량 감곡IC → 중부내륙고속도
로(0.3km) → 북부로(4.8km) → 둔터로
(6.5km)



구성 및 형식 세로 174cm, 가로 95cm, 비단 바탕에 채색. 유백증의 초상화는 얼굴에 주름과 흰 수염이 없는 젊은 용모인 점이나 도상과 화법이 17세기 초 공신도상의 전형과 유사한 점이 많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37세인 1623년에 정사공신(靖死功臣)에 녹훈된 뒤 그려진 공신도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유백증은 성품이 강직하고 충직하여 직언을 서슴지 않음으로써 관계에서 많은 화를 당하였다. 초상화도 전체적으로 단순하고 강경한 미감이 두드러져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매우 효과적으로 전해 주고 있다. 현재 조선식 족자 표구 형태로 전해지고 있다. 정사공신 녹권도 원형대로 보존된 채 함께 소장되어 있다.

내용 도상은 단령(團領)¹과 사모관대(紗帽冠帶)를 정장한 뒤 바닥에 채전(彩氈)²반우향으로 앉아서 공수(拱手)³한 조선 중기 공신도상의 전형적인 모습과 같다. 단령 옆 자락을 크게 터서 넓게

1 깃을 둥글게 만든 공복

2 카펫

3 두 손을 마주잡음

별린 뒤 이를 곧은 사선으로 단순화시켜 표현한 것이나, 단령 뒷자락이 교의자 위로 접혀 올라온 것을 삼각형 형태의 기하학적인 감각으로 묘사한 방식도 같다.

단령의 옷주름을 짙고 강한 먹선으로 단순화시켜 묘사함으로써 신체를 매우 평면적으로 처리하였다. 그 뒤 먹을 섞은 어두운 자주색을 전면에 걸쳐 동일하게 담채(淡彩)하고 옷주름 사이에도 전혀 명암을 표현하지 않았다. 그래서 신체의 평면성을 더욱 강조한 표현도 전형적인 양식과 같다. 그러나 17세기의 통상적인 예와 달리 단령의 운문(雲文)⁴은 생략하고 표현하지 않아 다소 소략한 묘법을 보여 준다.

사모를 농묵(濃墨)으로 짙게 칠하고 위로 솟은 모정(帽頂)을 약간 얇게 칠한 것은 일반적인 예와 같다. 그러나 양 날개의 외곽선을 짙은 농묵 필선으로 그린 다음 내부의 문양을 완전히 생략한 채 중묵으로만 우러서 표현했다. 일반적으로 모란문이나 운문을 묘사했던 것과 다른 소략한 표현이다. 얼굴은 농담의 차이가 거의 없는 붉은색 필선으로 윤곽선과 주름선을 잡았다. 그리고 붉은 빛이 많이 도는 살구색을 가볍게 담채하였다. 그 뒤 광대뼈로 인해 도드라진 부분과 눈 주변, 코 밑, 귓속 등의 오목한 부분까지 모두 적색으로 우렸다. 즉, 요철의 차이를 전혀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기법으로 표현하는 관념적 음영법을 사용했다.

눈은 눈동자의 동그란 외곽선을 가는 농묵 필선으로 그리고 그 내부를 중묵으로 우린 다음 농묵의 점을 찍어 동공을 표현했다. 위 눈꺼풀 선은 먹선으로 그어 강조한 뒤 가는 먹선으로 상하 속눈썹을 일일이 묘사했다. 콧구멍은 먹선으로 윤곽선을 강조하여 깊은 명암의 차이를 표현했다. 수염은 농담과 굵기의 차이가 거의 없는 농묵 세선으로 묘사한 뒤 담묵(淡墨)으로 약간 무겁게 우렸다. 목 부분은 중의(中衣)에 칠한 흰색이 일어나며 혼색되어 다소 얼룩이 생겼다.

흉배는 적색 뇌문(雷文)⁵바탕 위에 모란과 구름을 배경으로 백한(白鵑) 두 마리를 그린 운한(雲鵑) 흉배이다. 관대는 삼금대(鍍金帶)⁶인데, 흉배와 관대에는 금분과 은분을 사용하여 장식적 효과를 강조했다.

교의자의 손잡이는 농묵의 먹선으로 윤곽선을 그리고 갈색 진채(眞彩)⁷를 칠했다. 통상의 예와 달리 오른쪽 손잡이는 생략한 채 그리지 않았다. 교의자의 받침대도 먹선으로 윤곽선을 그리고 은분

4 구름무늬

5 번개무늬

6 화려한 문양이 새겨진 금띠

7 진하고 강하게 쓰는 채색

을 칠한 다음 장식 문양을 먹선으로 선묘(線描)했다. 은분은 많이 박락된 상태이다.

의답(椅踏)은 먹선으로 기본 형태를 선묘하였다. 그리고 갈색을 담채한 뒤 불룩하게 나온 부분과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을 가리지 않고 모두 담묵으로 우려서 요철의 차이를 관념적으로 표현했다. 윗면은 네 가장자리에 청색 진채(眞彩)로 색 띠를 두른 뒤 그 내부를 황색으로 담채하고 담묵 필선으로 돛자리의 올을 일일이 묘사했다.

채전은 가는 먹선으로 문양의 외곽을 간략히 구획한 뒤 각각의 기본색을 담채로 칠하였다. 그 위에 다시 석채(石彩)⁸를 두텁게 점묘하여 강한 장식적 효과와 함께 직조로 인한 질감까지 표현했다.

〈출처 및 참고문헌〉

- 한국의 초상화 역사 속의 인물과 조우하다 (문화재청 편, 놀와, 2007)
- 한국의 초상화 (조선미, 열화당, 1983)

허한·허적 초상

許憺 · 許積 肖像

종 목 시도유형문화재 제201호

지 정 일 2000. 10. 27.

시 대 조선시대

소 재 지 충주시 소태면 주치길 13(오랑리)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356 → 별모 정류장 하차, 33개 정류장
자가차량 동충주IC → 충원대로(1.7km)
→ 구룡로(6.4km) → 소태로(4.2km)



내용 비단 바탕에 채색, 「허한초상」(왼쪽)은 세로 147cm, 가로 63cm, 「허적초상」 세로 162cm, 가로 97cm, 「허적초상」은 머리에는 오사모(烏紗帽)¹를 쓰고, 얼굴은 좌측면이 3/4가량 보인다. 단령(團領)²을 입고 공수(拱手)³하고 의자에 앉은 전신상이다. 의자에는 표피(豹皮)가 깔려있고, 바닥은 붉은색 채전에 마름모꼴이 연속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화면의 오른쪽에는 “대광보국승록대부 의정부영의정겸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 세자사 허적진(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 許積眞)”, “효묘계사평안도관찰사시사십사세본(孝廟癸巳平安道觀察使時四十四歲本)”, “당저이십년병진칠월중모(當寧二十年丙辰七月中摹)”라고 쓰여 있다. 이 화기(畫記)로 보아 허적이 효종 4년(1654) 평안도 관찰사 시절인 44세 때 이 초상화가 그려졌고, 정조 20년(1796)에 다시 모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이 초상화는 모사되었을 당시인 18세기의 양식으로 그려졌다. 사모는 비교적 높고, 관

1 검은색 모자의 일종

2 관리들이 입던 관복

3 두 손을 맞잡음

복은 음영법이 적극적으로 적용되었고, 신체 표현은 이전 시기보다는 자연스러우며 의자와 발받침에는 표피(豹皮)가 깔려 있다. 하지만 바닥 부분은 원본의 영향을 보여주듯 17세기 공신초상화에서 주로 보이는 붉은색 채전이 묘사되었고 바닥과 벽을 구분하기 위해서 다섯 가지 색으로 띠를 둘렀다.

「허한초상」은 머리에는 오사모(烏紗帽)를 쓰고, 얼굴은 좌측면이 3/4가량 보인다. 단령을 입고 공수하고 의자에 앉은 전신상이다. 얼굴과 사모는 반측면이지만 몸체와 의자는 정면을 향하고 있다. 화면의 오른쪽에 “증대광보국송록대부익정부영의정겸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상감사행통정대부이천도호부사(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行通政大夫利川都護府使)”, 왼쪽에는 “광주진관병마동첨절제사행오공허한(廣州鎮管兵馬同僉節制使杏楊公許憫)”이라고 쓰여 있는데, 허한의 관직 시기 이외에 초상화의 시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없다.

허한은 허적의 아버지이지만 「허한초상」은 관복의 색깔과 문양, 흉배, 의자 표현과 양식 등을 보아 근대 이후에 그려진 초상화로 보인다. 특히 관복의 안료가 박락(剝落)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조선시대 초상화의 큰 특징인 배채(背彩)의 흔적이 전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및 참고문헌〉

- 초상화 연구 초상화와 초상화론 (조선미, 문예, 2007)

충주 이수일 신도비

忠州 李守一 神道碑

종 목 시도유형문화재 제205호

지 정 일 2001. 03. 30.

시 대 조선시대

소 재 지 충주시 금가면 석교길 19(오석리)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324-1 → 석교 정류장 하차, 26개 정류장
자가차량 동충주IC → 충원대로(2.7km)
→ 서부순환대로(4.7km) → 감생로
(1.1km)



개설 이수일(1554~1632)의 호는 은암(隱庵)이며, 선조 16년(1583)에 무과에 급제한 후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큰 공을 세웠다.

그 후 밀양부사와 경상좌도 수군절도사를 맡았으며 정유재란 때에는 왜적 격퇴에 공을 세워 가선대부에 올랐다. 인조 2년(1624) 이괄의 난이 일어났을 때에는 반란군을 크게 무찔러 서울을 수복한 공으로 진무공신 2등에 계림부원군에 봉해진 뒤 형조판서에 이르렀다.

이 비는 받침과 머릿돌은 화강암으로, 몸체는 대리석으로 만들었다. 받침은 웅장하고 추상적인 형태로 거북 모양을 조각하였으며, 그 위에 4,100여 자의 글자를 새긴 비를 만들어 올렸다. 머릿돌의 앞뒷면에는 각각 2마리의 용을 섬세하게 새겼다. 비의 크기는 전체 높이가 420cm, 비신높이 243cm, 비의 폭 97cm, 비의 두께 27cm이다.

조선 현종 8년(1667)에 세운 이 비는 이경여(李敬輿)가 글을 짓고 김좌명(金佐明)이 글씨를 썼으며, 김수항(金壽恒)이 비문을 새겼다. 웅장하고 섬세한 조각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거북 받침돌의 형태가 미술사적 자료와 학술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비의 주변에는 이수일의 묘(충청북도 시도기념물 제21호)와 사당인 충훈사(忠勳祠)가 있다.

〈출처 및 참고문헌〉 • 문화재청 (www.cha.go.kr)

불설대보부모은중경

佛說大報父母恩重經

종 목 시도유형문화재 제224호

지 정 일 2003. 05. 09.

시 대 조선시대

소 재 지 충주시 직동길 271-56(직동, 석종사)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777 → 법원사거리 정류장 하차(4개 정류장) → 일반 550 환승 → 석종사 정류장 하차. 20개 정류장

자가차량 충주IC → 중원대로(6.6km) → 호암대로(1.6km) → 직동길(3.0km)



개설 『불설대보부모은중경(佛說大報父母恩重經)』은 중국의 고승(高僧) 구마라습(鳩摩羅什)이 인도(印度)의 불경(佛經)을 한역(漢譯)한 것이다.

전반부에는 아이를 낳고 기르며 성장하기까지의 부모님의 은혜를 10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삽화(插畵)가 수록되어 있으며, 후반부에는 부모님의 은혜에 자손들이 보답키 위해 지켜야할 규범이나 처신 행동 등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불설대보부모은중경』은 구마라습의 한역본(漢譯本)을 입수(入手)하여 조선 태종 7년(1407)~단종 2년(1454) 사이에 목판본(木版本)으로 간행된 적이 있다. 내용과 삽화 및 지질(紙質) 등으로 보아 조선 태종 7년(1407)에 궁중에서 간행한 목판본으로 추정된다.

내용 책의 크기는 가로 14.0cm, 세로 27.0cm이며 선풍장(旋風裝)으로 장정(裝訂)¹ 되어 있다. 19판의 목판에 새겨 인쇄한 것으로 판(板)의 크기는 가로 50.0cm, 세로 21.0cm이며, 행수는 매판 28행, 자수는 매행 15자이다. 자경(字徑)은 1.5cm~2.0cm이다. 함께 수록된 삽화는 매우 수려하다.

¹ 제본에서, 책을 매어 꾸밈.

이 『불설대보부모은중경』은 표지가 없는 점이나 내지(內紙)에 묻어있는 얼룩 등으로 미루어 볼때 복장물(服藏物)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인출(印出)의 상태나 지질 등으로 보아 조선초기의 우리나라 목판인쇄문화를 엿보는데 매우 가치가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불설대보부모은중경』은 조선초기 궁중에서 간행된 책으로 중국의 고승 구마라습이 인도 불경을 번역한 것을 입수하여 삼화를 곁들여 간행한 희귀본으로 불경간행 역사, 국어사 및 판화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지질도 매우 좋은 편으로 가치가 크다.



〈출처 및 참고문헌〉

- 문화재청 (www.cha.go.kr)

충주 추평리 삼층석탑

忠州 楸坪里 三層石塔

종 목 시도유형문화재 제225호

지 정 일 2003. 06. 13.

시 대 고려시대

소 재 지 충주시 엄정면 추평리 576-6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343 → 탑평 정류장 하차. 30개 정류장

자가차량 동충주IC → 충원대로(4.0km)
→ 내창로(0.8km) → 내창로(3.9km)



형태와 특징 추평리의 일명 탑평마을에 있는 삼층석탑으로, 주변에서 수습되는 도자기와 기와 편들로 보아 고려 전기인 11세기경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각종 문화재 자료에 단층기단의 삼층석탑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재는 기단 갑석 아래 부분이 시멘트로 고정되어 있어 확인할 수 없다. 탑 높이는 2.3m이며, 기단 갑석의 크기는 146×146cm, 초층 면석의 크기는 81×81cm이다. 2매의 판석으로 조성된 기단 갑석 위에 아무런 조식 없이 초층 탑신이 놓였는데, 이 점은 각 층이 동일하다. 초층 탑신석은 2·3층과 현격한 체감을 보이는 등 전체적으로 균형을 잃고 있다. 옥신과 옥개석이 각각 잘 다듬어진 하나의 돌로 조성되었으며, 각 층 탑신 양쪽에는 우주가 모각되었다. 낙수면 물매는 급한 편이며 전각에는 반전이 경쾌하다. 옥개석 받침은 각 층 4단으로 정연한 치석 솜씨와 함께 통일신라 시기의 양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각 옥개석 모서리 양쪽으로 풍경을 달았던 2개의 원공(圓孔)이 뚜렷이 남아 있다. 상륜부는 한 돌에 새겨진 노반¹과 복발²이 남아 있으나 한동안 땅 위에 방치되어 있었던 듯 마모가 심하다.

〈출처 및 참고문헌〉

- 오천년 중원문화의 중심지 충주의 문화재 (충주시, 2004)
- 충주 중원지역 출토 와당 (충주시·예성동호회, 1991)

¹ 탑의 꼭대기 층에 있는 네모난 지붕 모양의 장식.

² 탑의 노반(露盤) 위에 바리때를 얹어 놓은 것처럼 만든 부분.

충주 원평리 삼층석탑

忠州 院坪里 三層石塔

종 목 시도유형문화재 제235호

지 정 일 2004. 04. 02.

시 대 고려시대

소 재 지 충주시 신니면 원평리 108-1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159, 172, 155 → 내포 정류장 하차, 30개
정류장

자전거량 충주IC → 중부내륙고속도로
(0.5km) → 중원대로(8.6km) → 신덕로
(2.0km)



개설 원평리의 일명 미륵대이 마을에 있는 단층 기단의 삼층석탑으로, 이 지역에는 신라 성덕 왕 1년(702)에 창건된 선조사(善祖寺)가 있었다고 하나 인조 14년(1636) 병자호란 때 폐사되었다는 것 이외에는 자세한 사찰의 연혁이 전해지지 않는다. 다만 관련 유물로 추정되는 미륵불입상과, 화사석이 결실된 사각형 석등이 있다. 불상 옆 우측으로 약 7m 지점에 이 삼층석탑이 남아 있는데, 이 탑 이외에도 1930년대에 다른 곳으로 이전한 삼층석탑 1기가 더 있었다고 한다. 불상은 고려시대 전반기 유물임이 확인되었으며, 탑신은 이 불상과 같은 석재임을 확인할 수 있다.

형태와 특징 탑의 높이는 2.95m이며, 지대석 폭은 1.88m이다. 탑은 결손 부분이 많으며 기단과 탑신의 풍화 정도가 큰 차이를 보인다. 사각형의 자연 암반을 지대석으로 삼았는데, 단층기단이 놓이는 부분은 면석을 집어넣을 수 있게 안쪽을 약간 깎았다. 기단은 두 장의 동·서 면석 사이에 다른 두 장의 판석을 끼워 만들었으며, 동·서 판석 면이 남·북 면의 우주를 겸비하고 동·서 면의 우주는 알개 모각¹하였다. 기단과 각 층의 우주는 지나치게 좁게 표현되어 건물 기둥의 의미를 상실하였다. 끼워져 있는 기단 면석의 하나가 결손되어 들여다보이는 내부에는 안쪽이 다듬어져 있지 않은 면석이 노출되어 있다. 기단 갑석은 큰 편으로 얇으며 위로 탑신 받침이 넓게 1단 각

1 이미 존재하는 조각 작품을 그대로 본떠 새김.

출되었다. 동·서 면석에는 전면에 걸쳐 3개의 짐승모양 다리가 유려한 큰 향로가 두드러지게 조각되었으며, 조각 내부는 몇 개의 음각선으로 세부를 표현하였다.

탑신은 옥신과 옥개석이 각각 하나의 돌로 조성되었는데, 비록 3층 옥개석이 유실되었으나 각 층이 정확하게 정사각형으로 다듬어져 있어 기단부와는 달리 정지한 일면을 보인다. 옥개석 낙수면 우동마루 전각(轉角)은 투박하나 추녀 상단은 부드럽게 반전하고 있고, 3단의 낮은 옥개석 받침을 가지고 있다. 초층 탑신에 비해 2·3층의 탑신 높이는 현저하게 감축하여 삼층석탑의 전형적인 비례를 보인다. 초층 면석 각 면에는 약 5cm 가량 돌출된 입상이 조각되어 있는데, 마멸이 심하여 세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많은 탑들에서 알 수 있듯이 사천왕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륜부는 일부 손상된 노반석이 놓여 있을 뿐이다.

의의와 평가 이 탑은 관련 자료를 잃어버린 채 황폐하게 남아 있는 절터처럼 그 원형이 일부 변형되고 손실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정연한 구성과 초층 면석에 돌출된 양각의 조각이 남아 있는 3층의 탑신은 좌측의 불상과 동시대에 조성되었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기단 면석의 향로 조각은 초층 탑신면의 조각과는 전혀 다른 수법으로 불탑에서는 일찍이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예이다. 이 중 탑신 부분은 고려 중기를 넘지 않는 양식으로 보이며, 이 시기 석탑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출처 및 참고문헌〉

- 사지 (충청북도, 1982)
- 한국불교사찰사전 (이정, 불교시대사, 1996)

충주 청룡사 위전비

忠州 靑龍寺 位田碑

종 목 시도유형문화재 제242호

지 정 일 2004. 09. 27.

시 대 조선시대

소 재 지 충주시 소태면 청룡사지길 147
(오량리, 청룡사)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입관**
354 → 오량 정류장 하차, 52개 정류장
자카차량 동충주IC → 충원대로(9.8km)
→ 구룡고개길(2.3km) → 주치길(2.8km)



개설 이 비는 4면이 적혀 있는 대형 비로 비신 높이 140cm, 너비 69cm, 두께 23cm이며, 받침돌은 거북 모양으로, 머리 부분은 용이 조각된 옥개석 형태로 조각되어 있어 특이하다.

이 비는 '위전(位田 : 사찰이나 관청 등 경영에 필요한 토지)비'로, 숙종 4년(1692) 청룡사의 중건 및 경영 등과 관련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신도들이 전답을 기증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비에는 통정대부 승휘(崇徽)가 비를 세운 대표자로 되어 있고, 기타 시주한 신도들의 이름과 품목, 수량이 적혀 있다. 또한 2~3차에 걸쳐 추가로 기록된 부분도 있어 청룡사가 몇 차례 중건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는 당시의 사찰과 관련한 경제상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금석문이라 할 수 있다. 전체 높이가 2m가 넘는 대형 사면비로, 비신의 높이는 140cm, 너비는 69cm, 두께는 23cm이다. 이 비의 받침돌은 거북 모양이고 머리 부분은 탑의 옥개석 형태로 되어 있으며 그 마루에는 용이 조각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

〈출처 및 참고문헌〉

- 조선금석총람(朝鮮金石總覽)
- 사지(충청북도, 1982)
- 문화재청 (www.cha.go.kr)

불설사십이장경

佛說四十二章經

종 목 시도유형문화재 제265호

지 정 일 2005. 01. 07.

시 대 고려시대

소 재 지 충주시 직동길 271-56(직동, 석종사)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777 → 법원사거리 정류장 하차(4개 정류장) → 일반 550 환승 → 석종사 정류장 하차. 20개 정류장

자기차량 충주IC → 중원대로(6.6km) → 호암대로(1.6km) → 직동길(3.0km)



개설 고(苦)·무상(無常)·무아(無我) 등과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42장으로 나누어 적절한 비유와 함께 간명하게 풀이하였다. 크기는 가로 14.5cm, 세로 21.5cm로 인쇄상태 및 지질로 보아 고려 우왕 10년(1384)에 판각되었을 당시 인쇄본으로 추정된다.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판각한 글씨체를 새김에 있어 정교하고 인쇄상태가 선명하여 불교사 뿐만 아니라 서지학 연구에도 가치있는 사료이다.

불교의 요지를 42장으로 나누어 석가의 교훈을 적절한 비유와 함께 간명하게 풀이한 것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판각한 글씨체를 새김에 있어 정교하고 인쇄상태의 선명성과 지질로 보아 귀중한 자료가 되므로 불교사 연구뿐만 아니라 서지학¹⁾에 있어서도 가치있는 자료이다.

〈출처 및 참고문헌〉

- 문화재청 (www.cha.go.kr)

1 도서의 고증·해제·역사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 문헌학.

인천안목 권상

人天眼目 卷上

종 목 시도유형문화재 제266호

지 정 일 2005. 01. 07.

시 대 조선시대

소 재 지 충주시 직동길 271-56(직동, 석종사)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777 → 법원사거리 정류장 하차(4개 정류장) → 일반 550 환승 → 석종사 정류장 하차, 20개 정류장

자전거량 충주IC → 충원대로(6.6km) → 호암대로(1.6km) → 직동길(3.0km)



개설 목판으로 간행된 1권 1책의 경전으로, 중국 남송의 순희(淳熙, 1174~1189) 연간에 선종의 고승 지소(智昭)가 임제종(臨濟宗) · 위양종(滙仰宗) · 조동종(曹洞宗) · 운문종(雲門宗) · 법안종(法眼宗) 등 이른바 선문오종(禪門五宗) 조사(祖師)들의 약전(略傳)과 법어(法語), 학인접화법(學人接化法) 등의 강요(綱要)를 요약한 것이다.

‘인천안목’의 뜻은 인간, 천상 일체가 중생의 안목이 된다는 의미이다. 이 책은 중국 원나라의 수도에 있던 고려대성수경선사(高麗大聖壽慶禪寺)에서 공민왕 6년(1357)에 강금강(姜金剛)에 의해 중간된 판본을 저본으로 하여 조선 태조 4년(1395)에 무학대사(無學大師) 자초(自超, 1327~1405)가 경기도 양주 회암사(檜巖寺)에서 번각(翻刻)하여 배포한 판본이다.

이 책은 고려 때 간행된 판본이 조선 태조 때 왕사 무학대사에 의해 다시 복각된 선서(禪書)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전권이 모두 전하지는 않으나 조선시대 초기의 목판인쇄 · 불교학 · 서지학 분야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출처 및 참고문헌>

• 문화재청 (www.cha.go.kr)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7~10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卷七~十

종 목 시도유형문화재 제26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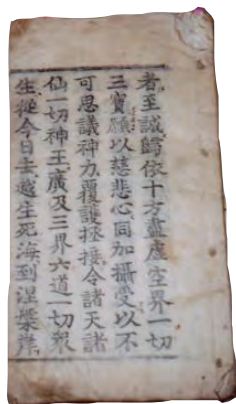
지 정 일 2005. 01. 07.

시 대 조선시대

소 재 지 충주시 직동길 271-56(직동, 석종사)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777 → 법원사거리 정류장 하차(4개 정류장) → 일반 550 환승 → 석종사 정류장 하차. 20개 정류장

자전거량 충주IC → 중원대로(6.6km) → 호암대로(1.6km) → 직동길(3.0km)



개설 표지는 없는 상태이나 권미에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10(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第十)'으로 되어 있어 책명을 알 수 있다. 권7의 10장부터 권10까지의 1책만 전한다. '자비도량참법'은 죽은자의 영혼을 천도하는데 쓰이는 불교의 의식집으로 미륵불(彌勒佛)의 몽감(夢感)에 따른 자비도량을 양무제(梁武帝)때 고승들이 찬수¹한 것으로 전한다. 이 책은 상교심정한 10권짜리 정본을 바탕으로 하여 1370년에 판각인출한 것을 그 후 조선시대에 중간²한 것으로 보인다.

미륵여래의 몽감에 따라 죽은 자의 영혼을 자비도량으로 천도하는데 쓰이는 불교의 의식집이다. 중국 양나라 무제때 고승법사들이 찬술한 것을 우리나라에서 판각, 인쇄한 책으로 고려시대 판각한 책판이 조선초기까지 보존되었다가 필요에 의해서 인출한 사례를 보여주는 것으로 서지학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출처 및 참고문헌〉

- 문화재청 (www.cha.go.kr)
- 충주시청 (www.chungju.go.kr)

1 글이나 자료 따위를 모아 정리함. 또는 그렇게 하여 책으로 만들.

2 이미 펴낸 책을 거듭 간행함.

유백증 정사공신교서

俞伯曾 靖社功臣敎書

종 목 시도유형문화재 제268호

지 정 일 2005. 05. 06.

시 대 조선시대

소 재 지 충주시 노은면 둔터로 88-21
[가산리, 충경사(忠景祠) 충경공유백증영정]



개설 충경공 유백증(1587~1646)이 인조반정시 공을 세워 1625년 정사공신(靖社功臣) 3등에 책봉될 당시의 녹권(錄券)¹. 정사공신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과 1등공신 10인, 2등공신 15인, 3등공신 28인 등 총 53명의 공신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정사공신록권은 인조반정 때 공을 세운 공신들에게 내린 녹권으로 조선 인조조의 정치사 연구, 인물연구, 교서 및 녹권 연구 및 서지학 연구에 매우 가치가 있는 자료로 평가되며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필사본이며 권축장(두루마리)으로 되어있고 크기는 230cm×40cm이다. 유백증은 조선 인조 때의 문신으로 대사간, 이조참판 등을 역임하고 인조반정 때의 공으로 정사공신 3등으로 책봉되었다. 이 녹권은 당시 우의정 강석기(姜碩期))가 제하고² 강극유(姜克裕)가 서하였다³.

〈출처 및 참고문헌〉

- 문화재청 (www.cha.go.kr)
- 충주시청 (www.chungju.go.kr)

¹ 공신의 훈공(勳功)을 새긴, 쇠로 만든 패.

² 덜어 내거나 빼다.

³ 임금이 벼슬시킬 사람의 이름을 직접 적어서 내리던 일.

충주 미륵대원지 석조귀부

忠州 彌勒大院址 石造龜趺

종 목 시도유형문화재 제269호

지 정 일 2005. 05. 06.

시 대 고려시대

소 재 지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사지길 150(미륵리)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245 → 미륵리 정류장 하차, 45개 정류장

자기차량 충주IC → 중부내륙고속도로 (17.0km) → 인보로(2.8km) → 미륵송계로(8.2km)



형태와 특징 우리나라 최대규모의 귀부로 원위치의 자연석을 다듬어 만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비신은 남아 있지 않으며 비신꽃이 홈이 조성되어 있으나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어서 실제 비신이 있었는지의 여부도 불투명하다. 귀갑문은 표현되지 않았고 거북등 좌측 경사면에 2마리의 새끼거북이 새겨져 있다.

이곳에 본래부터 있었던 자연암반을 이용하여 조각한 거북모양의 비석받침이다. 이 절터의 내력을 적은 사적비를 더받치기 위하여 조성된 듯하나 현재 비석이 남아있지 않아 정확한 제작시기와 용도를 확인할 수 없으며, 뒷면 일부의 조각이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품이다. 화강암으로 조성된 거북이 등에는 비를 세우기위해 파놓은 홈이 있고, 머리와 다리가 힘차게 표현되었으며, 왼쪽 윗면에는 새끼거북 2마리가 귀엽게 조각되어 있다. 거북이 등에 귀갑문이 표현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단순한 형태이지만, 웅대한 거북이의 모습에서 생명력과 힘이 느껴진다.

〈출처 및 참고문헌〉

- 문화재청 (www.cha.go.kr)
- 충주시청 (www.chungju.go.kr)

충주 창동리 석조약사여래입상

忠州 倉洞里 石造藥師如來立像

종 목 시도유형문화재 제271호

지 정 일 2006. 03. 03.

시 대 고려시대

소 재 지 충주시 중앙탑면 청금로 112-6(창동리)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411 → 창동 정류장 하차, 7개 정류장
자전거량 충주IC → 중원대로(3.3km) →
요도천변길(3.4km) → 청금로(1.1km)



개설 창동리 노천에 있는 고려시대의 석조(화강암) 약사여래입상이다. 이 불상은 원래 청금산 장 인근의 폐광에서 발견되어 1977년에 현재의 위치로 옮겼는데, 원위치는 창동사지로 짐작되는 곳이다.

절터에는 자기편과 기와편, 그리고 주초석 등이 남아 있었고 5층석탑도 조성되어 있었는데, 5층석탑은 이 불상과 함께 현재의 자리로 함께 이전되었다.

형태와 특징 두광과 신광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호리병 모양의 광배 안에 얇은 부조로 조각된 이 불상은 왼손에 약함으로 보이는 지물을 들고 있어 약사여래불로 판단된다.

육계는 옆으로 넓고 크며, 둥근 윤곽의 얼굴은 전체 신체에 비해 매우 크다. 부조 자체는 깊지 않으나, 안면부의 양감을 비교적 풍부하게 처리하여 부처의 미소가 완연하게 드러난다.

목이 매우 짧고 얼굴에 비해 찌막한 키이지만, 두툼한 인체의 양감 묘사는 이 불상을 친근하면서도 제법 당당하게 보이게 한다.

양 어깨를 덮은 착의법을 보이며, 오른손은 설법의 수인(手印)을 결하고 있다. 가슴에서 아래로 늘 어지는 옷주름은 간략하면서도 큼직한 선으로 처리되었고, 왼손 팔뚝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가사자락이 매우 강조되어 표현된 점이 독특하다. 이러한 표현은 고려불화의 아미타내영도(阿彌陀

來迎圖) 등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모티프이기도 하다.

의의와 평가 이 불상은 전반적으로 많이 간략화된 작품이지만, 윤곽선만으로 깊이감이 풍부한 양감을 성공적으로 표현해내고 있으며, 온화한 안면처리에서 매우 뛰어난 조각가의 기량을 엿볼 수 있다. 같은 충주지역의 고려시대 석불상이지만, 대소원면 문주리 석불좌상이나 양성면 강천리와 지당리의 석불입상과는 또 다른 지역적 양식 특징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고려시대 불상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출처 및 참고문헌〉

- 충주시 문화유적 (청주대학교박물관, 2002)

충주 충렬사비

忠州 忠烈祠碑

종 목 시도유형문화재 제272호

지 정 일 2006. 10. 04.

시 대 조선시대

소 재 지 충주시 충열1길 6(단월동, 충렬사)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610 → 단월동 정류장 하차, 4개 정류장

지가차량 충주IC → 중부내륙고속도로
(0.9km) → 충원대로(5.6km) → 곤평1길
(0.8km)



개설 현재 충렬사 경내에 비각을 세워 보호하고 있는데 비신 앞뒤면에 총 1,420 여자가 새겨져 있다. 전면 상단에 좌행으로 ‘어제달천충렬사비(御製達川忠烈祠碑)’라 전각(篆刻)¹하였는데 비제 다음 바로 본문을 쓰고 끝에 이 비문의 서자와 전자를 쓴사람을 밝히고 있다. 자헌대부 예조판서겸 직제학 이병모(李秉模)가 글을 쓰고 이조판서 윤동섭(尹東暭)이 전자를 썼다.

이 비는 충민공 임경업장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석비이다. 받침돌과 비신석(碑身石)은 화강암으로 만들었으며 규모는 비신 높이 183cm, 너비 71cm, 두께 42cm로 앞면과 뒷면에 글자를 새겼는데 글자수는 총1,420여자에 달한다. 전면 상단에서 좌행으로 ‘어제달천충렬사비(御製達川忠烈祠碑)’라 전각하였으며 글자크기는 상하 13, 좌우9cm, 본문이 3cm인데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비문은 정조가 지었으며 비제 다음 바로 본문을 쓰고 본문 끝에 글씨를 쓴 이와 전지를 쓴 이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출처 및 참고문헌〉

- 문화재청 (www.cha.go.kr)
- 충주시청 (www.chungju.go.kr)

¹ 호패에 새긴 글자를 색으로 메우던 일.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종 목 시도유형문화재 제275-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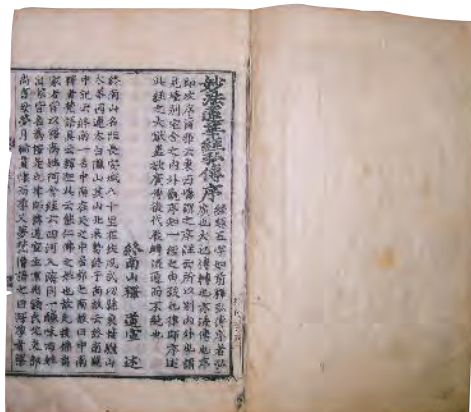
지 정 일 2009. 09. 11.

시 대 조선시대

소 재 지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사지길 300
(미륵리, 대광사)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246 → 미륵리 정류장 하차, 45개 정류장 대광사

자차여행 충주IC → 중부내륙고속도로 (17.0km) → 안보로(2.8km) → 미륵승계로(8.2km)



개설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은 ‘법화경(法華經)’이라 약칭하기도 하며 우리나라 천태종(天台宗)의 근본경전(根本經典)으로 부처가 되는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음을 기본사상(基本思想)으로 하고 있다.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은 후진(後秦)의 구마라습(鳩摩羅什)이 번역한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7권을 宋의 계환(戒環)이 해석한 것으로, 『화엄경(華嚴經)』과 함께 우리나라 불교사상(佛教思想)의 확립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쳤으며 삼국시대 이래로 가장 많이 유통(流通)된 불교경전이다.

이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은 만력(萬曆) 21년(年) (계미 癸未, 1583)에 산인(山人) 승인(崇印)이 신간(新刊)하였으나 정유란(丁酉亂)으로 판(版)의 절반 정도가 불타버리자 산인(山人) 담현(曇玄)이 무신년(戊申年)(1608) 가을에 중간(重刊)¹하여 보급하였으나 5~6년이 지나자 초권(初卷)의 완결(完缺)²이 심하여 다시금 만력(萬曆) 43년(年) (을묘(乙卯), 1615) 가을에 송광사(松廣寺)에서 개간(改刊)하여 유통시킨 판본이다.

현재 총 5책이 전하는데 1권, 2~3권, 4~5권, 6~7권이 4책 1질을 이루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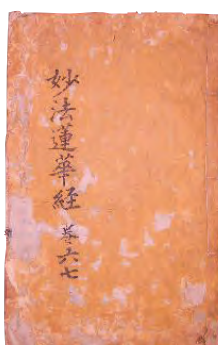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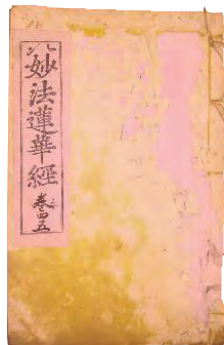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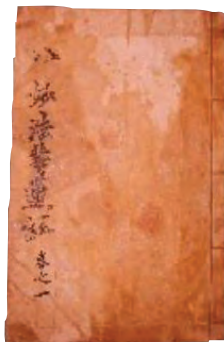
1 이미 펴낸 책을 거듭 간행함.

2 나무, 돌, 쇠붙이 따위에 새긴 글자가 닳아서 흐려짐.

묘법연화경 1책이 따로 전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5책을 소장하고 있다.

목판본(木版本)이다. 판식은 사주단변(홍전서(弘傳序)는 쌍변(雙邊)), 무계(無界), 반곽의 크기는 판심 포함 25.2cm×18.7cm이며 10행 17자다. 상하하향화문어미(上下下向花文魚尾)이나 흑어미(黑魚尾), 상하내향(上下內向)인 경우도 있다. 책은 33.7cm×21.6cm이다. 판심제(版心題)³는 법화경서(法華經序), 묘법서(妙法序), 묘법(妙法), 법육(法六) 등이다.

이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은 불교경전 연구 및 서지학적 가치가 높은 자료로 비록 변상도⁴가 누락되었으나 간기⁵가 분명하고, 임진왜란 전후의 판본이 모두 나타나는 자료로서 뛰어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출처 및 참고문헌〉

- 문화재청 (www.cha.go.kr)

³ 판심에 표시된 책의 이름.

⁴ 불교 경전의 내용이나 그 교의를 알기 쉽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림.

⁵ 책의 간행지·간행자·간행연월 등 간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것.

임경업 추련도

林慶業 秋蓮刀

종 목 시도유형문화재 제300호

지 정 일 2009. 04. 10.

시 대 조선시대

소 재 지 충주시 충열1길 6(단월동, 충렬사)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610 → 단월동 정류장 하차, 4개 정류장

자기차량 충주IC → 중부내륙고속도로
(0.9km) → 중원대로(6.6km) → 충원대로
(2.0km)



개설 충청북도 충주시 임충민공 충렬사(사적 제189호)에 보관 중인 보검으로, 명장 임경업(林慶業, 1594~1646)이 사용하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양호한 보존 상태와 명문¹으로, 2009년 4월 10일에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00호로 지정되었다.

형태와 특징 추련도는 임경업이 사용하던 보검으로, 전체 길이 101.4cm, 폭 6cm, 칼날 길이 86.7cm의 크기이다. 손잡이와 칼집은 나무로 만들었고, 황동으로 장식하였으며, 칼코는 철판 방자 위에 주석과 납으로 도금하였다.

칼날의 양 면에 다음과 같은 칠언절구와 일부 판독되지 않는 명문이 있다.

시절이여! 한번 왔다 가면 다시 오지 않나니(시호시래부재래 時乎時來否在來)
한번 태어나고 죽는 것은 모두 여기에 있도다(일생일사도재연 一生一死都在筵).
대장부의 한평생은 나라 위한 마음뿐이고(평생장부보국심 平生丈夫報國心)
삼척의 추련도를 십 년 토록 갖고 갈았다(삼척추련마십년 三尺秋蓮磨十年).

1 금석(金石)이나 기명(器名) 따위에 새겨 놓은 글.

(임불합유시 □ □ 林物合有時 □ □)

충렬사에는 추련도와 함께 실제 전투용으로 사용하던 용천검(龍川劍)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전쟁 때에 분실하였고, 추련도만 남아있다. 추련도는 임경업 장군이 찼던 칼로, 조선 후기 도검 문화와 칼날의 명문을 통해 주인공의 기개와 애국심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출처 및 참고문헌〉

- 임충민공실기(林忠愍公實記) (윤행임, 1791; 임순헌, 1890)
- 임경업장군 추련검의 보존처리보고서 (이오희, 충주시, 2005)
- 문화재청 (www.cha.go.kr)

충주 용화사 석조여래입상

忠州 龍華寺 石造如來立像

종 목 시도유형문화재 제311호

지 정 일 2009. 12. 04.

시 대 고려시대

소 재 지 충주시 주덕읍 능말2길 75(삼청리, 용화사)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121 → 능촌 정류장 하차, 23개 정류장

자가차량 충주IC → 종원대로(3.2km) →
충청대로(2.6km) → 능말2길(0.7km)



개설 충주용화사석조여래입상은 하나의 큰 돌에 광배(光背)¹와 불상을 함께 조각한 작품이다. 왼손에는 무엇인가를 들고 있는 모습인데 보주(寶珠)² 또는 연봉우리와 같은 형상이지만 확실한 지물은 알 수 없다. 얼굴 부분에 마모가 심한 편이며 전체적으로 고려시대의 특징을 따르고 있다. 현재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11호로 지정되어 있다.

형태와 특징 1925년에 노천에 있던 석불을 발견하고 그 장소에 태고종 소속의 용화사(龍華寺)를 창건하여 봉안³하였다고 한다. 대좌⁴는 새로 조성한 것이며 얼굴부분과 광배의 일부분이 파손되었으며 상의 뒷부분은 정⁵으로 쪼아 거칠게 다듬어 놓았다. 이 입상은 광배를 갖추고 있으며 한

1 회화나 조각에서 인물의 성스러운 빛을 드러내기 위하여 머리나 등의 뒤에 광명을 표현한 원광. 두광(頭光), 신광(身光), 거신광(擧身光) 따위가 있다.

2 보배로운 구슬.

3 신주(神主)나 화상(畫像)을 받들어 모심.

4 불상을 올려놓는 대. 상현좌, 생령좌, 연화좌 따위가 있다.

5 돌에 구멍을 뚫거나 돌을 쪼아서 다듬는, 쇠로 만든 연장. 원뿔형이나 사각형으로 끝이 뾰족하다

돌에 불상을 고부조⁶로 조각한 작품이다. 당당한 어깨에 단구⁷의 비례를 보이는데 이는 불상 하단 부가 대좌 속에 묻혔기 때문이다.

얼굴은 거의 마모되었고 머리의 부분도 없어졌는데 얼굴은 동그란 형태이다. 귀는 길어 거의 어깨에 닿아 있다. 오른손은 가슴 위까지 들어 손가락을 구부린듯한데 명확하지 않다. 왼손은 가슴 앞에서 무엇인가를 들고 있는 모습인데 약함으로 추정하기도 하지만 형태가 뚜렷하지 않아 확실하지는 않다. 대의(大衣)⁸는 우견편단(右肩偏袒)⁹이며 옷주름은 단순한 편이다.

〈출처 및 참고문헌〉

• 문화재청 (www.cha.go.kr)

⁶ 양이나 형상을 나타낸 살이 매우 두껍게 드러나게 한 부조.

⁷ [같은 말] 단신(短身)(작은 키의 몸).

⁸ 설법을 하거나 걸식할 때에 입는 승려의 옷. 삼의(三衣) 가운데 가장 큰 것을 이른다.

⁹ 상대방에게 공경의 뜻을 나타내는 예법의 하나. 왼쪽 어깨에 옷을 걸치고 오른쪽 어깨는 드러낸다.

충주 미륵대원지 사각석등

忠州 彌勒大院址 四角石燈

종 목 시도유형문화재 제315호

지 정 일 2010. 04. 30.

시 대 고려시대

소 재 지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사지길 150(미륵리)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245 → 미륵리 정류장 하차, 45개 정류장

자가차량 충주IC → 중부내륙고속도로
(17.0km) → 안보로(2.8km) → 미륵송계
로(8.2km)



형태와 특징 충주미륵대원지(사적 제317) 안에 있는 이 사각석등은 기단부, 화사석(석등의 불을 켜는 곳), 지붕돌의 3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단부의 지대석은 일부 깨지기는 하였으나 원래는 사각형의 판석형 석재였음을 알 수 있다. 하대석은 투박한 복판 연화문으로 장식되어 있다. 연화문은 대형으로 새겨져 있지만 돌을 다듬는 수법이 깔끔하지 못하고 다소 불균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석등 화사석 세부

하대석 상면에는 사각형 홈을 파고 간주석을 끼워 고정했다. 간주석은 사각평면의 석주형이다. 표면에 보주형 안상이 새겨지고, 그 안에 좌우대칭을 이루는 화형 문양이 새겨져 있다. 상대석은 하부에 양련문을 표현하였는데, 하대석에 비하여 정교하게 조각하였다. 연화문은 복판으로 각 면이 가운데 배치된 연화문을 중심으로 좌우로 펼쳐나가는 형상으로 표현되어 하대석과 대조를 이룬다. 화사석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모서리마다 원형 기둥을 세워 지붕돌을 받치도록 했다. 지붕돌은 하부를 수평으로 다듬고 판통된 원공을 시공하였다. 낙수면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합각부는 약간 돌출되도록 다듬었다. 상륜부는 현재 사각형 받침대가 올려져 있는데 나머지 부재들은

결실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하며, 간주석과 화사석은 독특한 수법으로 되어 있어 주목되고 있다.

미륵리 사각석등은 지붕돌 밑에 모서리마다 원형 기둥을 세워 화사석을 마련한 독특한 형태이다. 이러한 절구 방식은 현화사·개국사 등 고려 초기부터 중기 사이에 수도인 개경 일대에 세워진 사찰에서 볼 수 있으므로 특정 사찰에서만 적용한 석등 양식으로 여겨진다. 또한, 고려시대 수도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미륵리 사지에 개경지역 양식의 석등이 세워졌다는 것은 석등 양식의 지방 전파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자료이다.

〈출처 및 참고문헌〉

- 한국의 석등 (박경식, 학연문화사, 2013)
- 충주시지 (충주시, 2001)
- 한국석등양식 (정명호, 민족문화사, 1994)
- 미륵대원의 연구 (신영훈, 고고미술 146 · 147, 한국미술사학회, 1980)
- 문화재청 (www.cha.go.kr)

충주 혜원정사 석불좌상 및 복장유물

忠州 慧圓精舍 石佛坐像 및 腹藏遺物

종 목 시도유형문화재 제351호

지 정 일 2013. 11. 08.

시 대 조선시대

소 재 지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만정길 194
(장성리, 혜원정사)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150, 159, 120, 122 → 성종1구 정류장
하차, 10개 정류장

자가차량 충주IC → 중부내륙고속도로
(0.9km) → 중원대로(0.8km) → 장성길
(0.3km)



개설 보살상의 높이 67cm, 여래좌상의 높이 33cm, 나한상¹의 높이 28.2cm. 3구의 상들은 모두 불석으로 만든 불상들로, 표면은 채색되어 있다. 가장 큰 상은 높이 67cm 정도의 보살좌상이고, 나머지 2구는 천불상²류의 소형 여래좌상과 나한상이다. 보살좌상에서 나온 복장 유물로는 이 불상이 1659년 법주사에 봉안된 사실이 적혀 있는 복장기, 붉은색 보자기에 싸인 후령통³, 그리고 묘법연화경 인쇄물과 다라니⁴ 등이 있다.

이 불상들은 현재 충주혜원정사에 봉안되어 있으나, 2009년까지 보은군 삼년산성 내 보은사에 전하던 상들이다. 보은사는 100여 년 전에 법주사의 승려 박정하가 창건한 절이다. 따라서 법주사에 봉안되었던 불상들이 보은사 창건 이후 보은사로 이전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2009년 이후 보은사에서 같은 계통의 사찰인 충주혜원정사로 옮긴 것이다.

1 나한을 새긴 상(像).

2 대승불교의 천불신앙에 근거하여 천 구의 불상을 집합적으로 조성한 조각군.

3 불상이나 불화 등을 조성할 때 함께 넣는 금·은·칠보 등의 보물과 오곡(五穀)·오향(五香)·오약(五藥)을 복장(服藏)이라 하며, 후령통은 이 복장을 넣는 통을 이르는 말이다.

4 한량없는 뜻을 지니고 있어 모든 악한 법을 버리고 한량없이 좋은 법을 지니게 한다는 불교 용어.

형태와 특징 보살좌상은 규모가 작은 삼존상의 협시보살⁵상으로 추정되고, 나머지 두 상은 천불상 내지는 오백나한⁶류 불상 중의 하나로 추정된다. 현재 법주사에서 이러한 상이 봉안될 수 있는 곳으로 팔상전을 들 수 있으나, 현재 팔상전 내에는 이보다는 후대에 만들어진 불상들이 봉안되어 있다.

먼저 보살좌상은 보관⁷을 쓰고 보발이 어깨에 걸쳐져 있는데, 보관은 따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 머리와 함께 조각되어 붙어 있다. 불신은 머리 부분이 크고 몸 부분이 작아서 어린아이 같은 비례를 보인다. 보관 밑으로 머리카락이 둥글게 내리워져 있고 얼굴도 약간 옆으로 넓적하여 동안의 모습이다. 상호는 단정하고 큰 귀가 붙어 있다.

천의를 양어깨에 걸치고 가슴 부근에는 내의의 상단과 되접힌 치마 윗단이 보인다. 수인은 양손을 무릎 위에 얹어 셋째와 넷째 손가락만 구부린 특이한 모습이다. 치마에는 양다리를 묶은 장식이 표현되어 있고 치마 끝단은 힘차게 발 양쪽으로 뻗치면서 늘어져 있다. 이 불상의 힘찬 조형은 특히 상의의 옆면 하단에서 율동적으로 뻗쳐 있는 천의 자락 표현에서 볼 수 있다.

복장기에 의하면 이 불상을 제작한 조각장은 수화승 혜희(惠熙), 그리고 상민(尙敏), 경림(敬林) 등이다. 혜희가 17세기에 조각한 법주사 원통보전의 목조관음좌상은 힘찬 조형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혜원정사 보살좌상과 공통점을 보인다.

소형의 여래좌상은 머리가 나발이고 중심계주와 정상계주가 있다. 머리를 약간 옆으로 숙이고 있으나 상호가 단정하고 두 손을 옷 속에 넣어 공수자세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작은 상이나 상호나 옷주름 조각에서 보살좌상과 같은 단정한 양식을 보인다. 소형의 나한상은 가장 작은 상으로 역시 두 손을 옷 속에 넣어 무릎 앞에 모으고 있는데 얼굴의 표정이나 옷자락 조각에서 역시 보살좌상·여래좌상과 공통의 특징을 보인다.

의의와 평가 이 3구의 불석상들은 같은 양식을 보이고 또한 법주사 원통보전의 목조관음좌상과도 공통된 양식을 보이므로, 아마도 법주사에서 17세기 불사(佛事) 때에 일괄로 조성된 상들로 추정된다. 복장기에 의하면 보살좌상은 천불과 16나한이 함께 봉안된 곳에서 삼존상의 협시보살

5 본존불(本尊佛)을 좌우에서 보좌하는 보살.

6 불교에서 아라한과를 성취한 500명의 아라한.

7 보석으로 장식된 관을 뜻하지만 특히 불상의 머리 위에 얹는 관을 의미한다.

상으로 봉안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소형 여래좌상과 나한상은 천불상 내지는 나한상의 일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묘법연화경과(왼쪽) 후령통

〈출처 및 참고문헌〉

- 한국의 사찰문화재 전국사찰문화재일제조사 (문화재청,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06)
- 충북지역의 혜희작 불상 연구 (김춘실, 중원문화연구 20,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13)

묘법연화경 권1

妙法蓮華經 卷一

- 종 목** 시도유형문화재 제357호, 제358호
- 지 정 일** 2014. 03. 07.
- 시 대** 조선시대
- 소 재 지** 충주시 신내면 선당길 147(선당리, 고불선원)
-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157 → 선당마을 정류장 하차, 30개 정류장, 고불선원
- 자카리량** 충주IC → 중원대로(8.6km) → 신덕로(3.2km) → 선당길(0.7km), 고불선원



개설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은 줄여서 ‘법화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실상과 방편을 설하며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본사상으로 하고 있다. 한국불교의 근본경전으로 화엄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

357호는 모두 7권 중 1권 1책으로 선조 7년(1574)에 월악산 덕주사(德周寺)에서 간행한 목판본으로 간행시기와 간행처를 알 수 있고 임진왜란 직전의 불교와 인쇄문화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며, 358호는 전라도 순창의 복천사(福泉寺)에서 간행된 자료로 인기에 나타난 특징은 강백년-강현-강세황 3대와 진주강씨 여러 인물의 인장이 보여 강세황 후손 가문의 소장본이다.

<출처 및 참고문헌>

- 문화재청 (www.cha.go.kr)

심현담요해

十玄談要解

종 목 시도유형문화재 제362호

지 정 일 2015. 05. 05.

시 대 조선시대

소 재 지 충주시 중앙탑면 중앙탑길 112~28
(탑평리, 충주박물관)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입만**
411 → 중앙탑 정류장 하차, 10개 정류장
충주박물관

주차장 충주IC → 종원대로(0.9km) →
첨단산업로(5.8km) → 중앙탑길(0.6km),
충주박물관



개설 심현담요해는 불교 해설서로 중국 당나라의 상찰(常察, ?~961)이 선종인 조동종(曹洞宗)의 가풍과 수행자의 실천 지침 등을 칠언율시 형식으로 노래한 10수의 계송(偈頌)을 정리한 심현담(十玄談)을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 1435 ~ 1493)이 간략하게 풀이한 책이다.

김시습은 본관 강릉(江陵), 자 열경(悅卿), 호 매월당(梅月堂)·동봉(東峰)·청한자(淸寒子)·벽산(碧山), 법호 설잠(雪岑), 시호 청간(淸簡)이라 하며 생육신(生六臣)의 한 사람이다. 서울에서 부친 김일성의 아들로 출생하였다.

그는 어렸을 적부터 신동(神童)으로 이름이 높았는데, 3세 때 보리를 땃돌에 가는 것을 보고 “비는 아니 오는데 천둥소리 어디서 나는가, 누른 구름 조각조각 사방으로 흩어지네(無雨雷聲何處動 黃雲片片四方分)”라는 시를 읊었다 하며, 5세 때 이 소식을 들은 세종에게 불려가 충애를 받았다.

그러나 15세 되던 해에 어머니를 여의고 외가에 몸을 의탁했으나, 외숙모도 별세하는 등, 그의 앞길은 순탄하지 못하였다.

이어 삼각산 중흥사(重興寺)에서 공부하다가 수양대군이 단종을 내몰고 왕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통분하여, 책을 태워버리고 승려가 되어 이름을 설잠이라 하고 전국으로 방랑의 길을 떠났다. 9년간을 방랑하면서 『당유관서록(右遊關西錄)』 『당유관동록(右遊關東錄)』 『당유호남록(右遊湖

南錄』등을 정리하여 그 후지(後志)를 썼다.

세조 9년(1463) 효령대군(孝寧大君)의 권유로 잠시 세조의 불경언해(佛經諺解) 사업을 도왔으나 세조 11년(1465) 다시 경주 남산에 금오산실(金鰲山室)을 짓고 입산하였다. 그곳에서 한국 최초의 한문소설 『금오신화(金鰲新話)』를 지었고, 『산거백영(山居百詠)』(1468)을 썼다. 1483년 방랑의 길을 나섰다가 충남 부여(扶餘)의 무량사(無量寺)에서 죽었다.

본 저서는 불교 경전과 선어록을 바탕으로 김시습의 선사상을 드러낸 저술로 고려 말 이후의 불교 사상과 조선 전기의 인쇄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출처 및 참고문헌〉

- 김정미, 2011, 김시습 -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소설 작가이자 생육신의 한 사람, 네이버캐스트 인물한국사 (<https://terms.naver.com/>).

지리신법

地理新法

종 목 시도유형문화재 제363호

지 정 일 2015. 06. 05.

시 대 조선시대

소 재 지 충주시 중앙탑면 중앙탑길 112-28
(탑평리, 충주박물관)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입만**
411 → 중앙탑 정류장 하차, 10개 정류장
충주박물관

자카치량 충주IC → 중원대로(0.9km) →
첨단산업로(5.8km) → 중앙탑길(0.6km),
충주박물관



내용 2권 1책. 목판본. 호순신(胡舜申)이 여러 가지 풍수지리설을 종합, 분류하고 그 중 중요한 것만을 골라 정리한 책으로, 우리 나라 풍수지리의 기본 지침서가 되고 있다.

내용은 권1에 오산도식(五山圖式)·오행론(五行論)·산론(山論)·수론(水論)·탐랑론(貪狼論)·문곡론(文曲論)·무곡론(武曲論)·우필거문좌보론(右弼巨門左輔論)·염정론(廉貞論)·파군론(破軍論)·녹존론(祿存論)·형세론(形勢論)·택지론(擇地論) 등이 순서대로 실려 있다.

권2에는 정삼십육룡통설론(定三十六龍統說論)·주산론(主山論)·용호론(龍虎論)·기혈론(基穴論)·좌향론(坐向論)·방수론(防水論)·연월론(年月論)·조작론(造作論)·상지론(相地論)·변곡론(辨谷論) 등이 수록되어 있다.

「오산도식」에서는 각각 금국(金局)·수국(水局)·목국(木局)·화국(火局)으로 생긴 산을 그림으로 보여 주고, 풍수지리설에서 필수인 12성과 포태법(胞胎法)¹을 적용하여 길흉을 비교하고 있다.

그리고 끝에 12성 및 포태의 작용, 배치하는 방법과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첨가해 놓았다. 「오행론」에서는 오행의 변체(變體)인 대오행(大五行)을 설명하고 있는데, 방위에 따른 오행의 배치가 특이하게 되어 있다.

¹ 사람의 수태에서부터 입모까지의 일생을 12단계로 구분, 배치하여 모든 점술에 대응하여 길흉을 판단하는 방법.

즉, 자(子) · 인(寅) · 갑(甲) · 진(辰) · 손(巽) · 신(申) · 신(辛) · 술(戌)은 수(水), 을(乙) · 병(丙) · 오(午) · 임(壬)은 화(火), 간(艮) · 묘(卯) · 사(巳)는 목(木), 정(丁) · 유(酉) · 건(乾) · 해(亥)는 금(金), 미(未) · 곤(坤) · 경(庚) · 계(癸) · 축(丑)은 토(土)로 규정되어 일반적 오행인 정오행(正五行)과는 방위에 많은 차이를 보인다.

「수론」에서 산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므로 음에 속하고, 물은 항상 유동하는 것이므로 양에 속한다고 전제하고, 산은 변하지 않으므로 체(體)가 되지만 물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묘지의 길흉은 물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주장한다.

「탐량론」·「문곡론」·「무곡론」·「거문론」·「염정론」·「파군론」·「녹존론」·「우보론」·「좌필론」 등은 9성의 이름으로 각각의 성이 주관하는 길흉을 상세히 설명하고, 때에 따라 길이 흉으로 바뀌고 흉이 길로 변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설명하고 있다.

「용호론」은 산세(山勢)의 생김새와 혈(穴)의 중요 부분은 좌우에 있는 청룡과 백호의 생김새와 직결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혈이 좋아도 용호(龍虎)가 법도에 맞지 않으면 명당이 될 수 없음을 밝혀 놓았다.

이 밖에도 혈의 기본사항을 설명한 「기혈론」, 좌향에 따라 길흉이 좌우되고 발복(發福)²시기가 달라진다는 「좌향론」, 터가 좋아도 묘를 쓰는 날과 길흉이 합치되어야 발복된다는 「연월론」 등이 실려 있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출처 및 참고문헌〉

- 朝鮮時代 河崙의 風水觀 研究 (박인호, 원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8)

² 윤이 틈어서 복이 닥침. 또는 그 복.

충주 청명주

忠州 清明酒

종 목 시도무형문화재 제2호

지 정 일 1993. 06. 04.

소 재 지 충주시 중앙탑면 청금로 112-10
(창동리, 중원당)

보 유 자 김영기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411 → 창동 정류장 하차, 7개 정류장

자가차량 충주IC → 중원대로(3.3km) →
요도천변길(3.4km) → 청금로(1.1km), 중
원당



1. 고두밥 짓기
3. 누룩 성형하기

2. 누룩 띄우기
4. 덧술 저어주기 및 담기

개설 일년 24절기 중에서 청명일에 사용하기 위하여 담그었다고 하여 청명주라 한다.

최초로 빛은 시기와 인물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확실치 않으나 중앙탑면 창동리에 누대로 김해김 씨가문에서 대대로 귀한 손님을 맞을 때 접대하던 술이라 한다.

청명주를 만드는 법은 먼저 통밀을 가루내어 순수한 밀가루만을 모아 반죽하여 누룩을 띄운다. 찹쌀을 씻어 시루에 써서 고두밥을 만든다. 항아리에 찹쌀고두밥, 누룩, 죽으로 만든 밀술 순으로 반복하여 쌓는다. 모두 약 100여일정도 지나 청명일에 이르면 발효가 완료되며, 이 때 청주를 떠 낸다. 알코올 도수는 10~20(도)이며, 기능보유자는 김영기(金榮基)이다.

〈출처 및 참고문헌〉

- 지정조사보고서 (충청북도청, 1993)

사기장

沙器匠

종 목 시도무형문화재 제10호

지 정 일 2013. 04. 05.

소 재 지 충주시 엄정면 도자기길 10(신만리)

보 유 자 이종성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344 → 도룡교 정류장 하차, 22개 정류장
자기차량 동충주IC → 충원대로(1.4km)
→ 북부로(2.4km) → 세고개안길(1.4km)



개설 사기장이란 백토(白土) 등을 혼합하여 그릇 형태를 만든 다음 1300℃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구워낸 사기그릇을 만드는 기술 또는 사람을 말한다.

조선 후기에 관요(官窯:정부 관리 하에 도자기를 만드는 곳)가 폐쇄되자 도공들이 전국 각 지방으로 흩어지면서 지방에서 민요(民窯:민간에서 도자기를 만드는 곳)가 번창하였다.

사기장 보유자 이종성은 1974년 전통도예(백자)에 입문한 이래 호산 안동호(경기도 무형문화재 제5호) 선생에게 백자 철학을 전승받아 조선백자의 맥을 이어가고 있으며 백자 뿐만 아니라 청자에 이르기까지 두루 섭렵하였다. 도예기법 중 투각기법은 많은 수련 과정이 요구되는 기법으로서 특히 이중 투각에 뛰어난 솜씨를 지니고 있어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 받았다.

〈출처 및 참고문헌〉

- 충주시청 문화예술과 (www.chungju.go.kr)

야장(삼화대장간)

冶匠

종 목 시도무형문화재 제13호

지 정 일 2003. 10. 24.

소 재 지 충주시 충인1길 12(충의동)

보 유 자 김명일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172, 240 → 무학시장 정류장 하차, 4개

정류장

자가차량 충주IC → 중부내륙고속도로
(0.9km) → 증원대로(8.3km) → 국원대로
(0.5km)



개설 대장간은 쇠를 달구어 각종 연장을 만드는 곳이다. 무딘 농기구나 기타 각종 연장을 불에 달구어 버리기도 하고, 새로 만들어내기도 하였으며 이런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대장장이라고 한다.

보유자 김명일은 부친이 우마차 바퀴 테두리 공장 운영시 어깨너머로 쇠부리를 익히다가 1954년 근처 대장간에 취업하여 대장기술을 전수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보유자의 대장기술은 전통의 대장기술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생산품목은 농기구(도끼, 호미, 낫, 쇠스랑, 팽이 등), 건축재(문고리, 문손잡이, 망치)등이며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주문제작도 하고 있다. 현재 전수경력은 46년이며 1974년부터 보유자의 처남 이치우가 기술을 전수받고 있다.

전통적인 대장간의 일은 메질(두드리는것) 벼름질(형태작업), 담금질(열처리)등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만 되는데 이와 같은 전통적인 대장간 일을 전수하고 있다.

대장간은 옛부터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농기구, 연장 및 생활도구 등을 생산하는 곳이었으나 현대화에 밀려 점차 사라져가는 현실에서 재래식의 화덕과 풀무를 사용하여 오랜 경험과 숙련된 기술로 전통대장기술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출처 및 참고문헌〉 • 문화재청 (www.cha.go.kr) • 충주시청 (www.chungju.go.kr)

대목장

大木匠

종 목 시도무형문화재 제23호

지 정 일 2011. 04. 29.

소 재 지 충주시 사작산8길 29(문화동)

보 유 자 신재언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172, 240 → 공설시장 정류장 하차, 5개 정
류장

자전거량 충주IC → 중부내륙고속도로
(0.9km) → 중원대로(8.5km) → 사작산14
길(0.3km)



개설 나무를 재료로 하여 집짓는 일에서 재목을 마름질하고 다듬는 기술설계는 물론 공사의 감리까지 겸하는 목수로서 궁궐, 사찰, 군영시설 등을 건축하는 도편수를 가리키기도 한다. 대목장은 문짝, 난간 등 소규모 목공일을 맡아하는 소목장과 구분한데서 나온 명칭으로 와장, 드잡이, 석장, 미장이, 단청장 등과 힘을 합하여 집의 완성까지 모두 책임진다. 통일신라,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는 벼슬이 주어졌으나 오늘날에는 사찰이나 서원, 향교, 전통한옥 등을 짓는 것으로 대목장 기술이 전수되어 오고 있다. 대목장은 그 기법이 엄격히 전승되기 때문에 기문(技門)이 형성되어 있다. 기문(技門)은 기술로서 한 가문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기문에서의 대목장은 절대권위를 지닌다. 조부 신성집(1877~1954)대로부터 부친 신혁목(1921~1968)으로부터 이어온 전통건축기법을 19살 때에 입문하여 전수활동 및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1999년부터 둘째인 신태선도 입문하여 전수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기문(技門)이 대를 이어 가문화하여 활발한 전수 및 연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방의 특성을 잘 보존하면서 전통성을 유지해 갈 수 있는 향토적 전통성을 보이고 있다. 예술적인 측면에서 전통재료의 사용, 전통목조건축 제작과정, 치목과정의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건조기법, 각기 다른 문양조각의 의장 표현, 설계도면을 직접 그려서 시공하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출처 및 참고문헌〉 • 문화재청 (www.cha.go.kr)

주물유기장

鑄物鋤器匠

종 목 시도무형문화재 제24호

지 정 일 2011. 08. 18.

소 재 지 충주시 충인7길 19(충인동)

보 유 자 박갑술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172, 240 → 공설시장 정류장 하차, 5개
정류장

자가차량 충주IC → 중부내륙고속도로
(0.9km) → 증원대로(8.3km) → 중앙로
(0.6km)



개설 우리나라 유기는 청동기의 주조로부터 시원을 찾을 수 있으며 이러한 유기의 제조방법은 단조(두드림)로 만드는 방짜유기와 주조(틀에 부어 제작)로 만드는 주물 유기로 구분된다.

방짜유기는 향동이라고도 하며 전통악기나 식기류를 만들고 주물유기는 추동이라 하여 거푸집을 쓰는 주물기법으로 만든다.

박갑술(朴甲述)은 50년 이상을 주물 유기 제작에 종사하였으며 사라져가는 전통기법인 구름식 돌림틀을 직접 제작하여 가질작업을 하는 등 전통 주물 유기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 지정되었다.

주물 유기장 박갑술 선생은 경북 김천에서 태어나 박수돌(선친)옹에게 주물유기를 배웠으며 1959년 충주지역에 자리잡고 주물유기 생산에 종사해 왔다.

현재 영남유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충주지역에서는 주물로 유기를 생산하는 업체는 이 곳 뿐이다.

박갑술선생이 제작하는 주물 유기제품은 구리(78%)와 주석(22%)을 합금하여 사용한다.

유기의 생산공정은 크게 부질공정과 가질공정으로 나뉘는데 부질공정은 쇠를 녹여 거푸집에 부어 거친상태의 낫쇠 제품을 만들기까지의 공정이며 가질 공정은 거친표면을 깎고 연마하여 광택이나 는 상태로 만드는 공정이다.

〈출처 및 참고문헌〉 • 문화재청 (www.cha.go.kr) • 충주시청 (www.chungju.go.kr)

충주 이수일 묘소

忠州 李守一 墓所

종 목 시도기념물 제21호

지 정 일 1978. 02. 22.

시 대 조선시대

소 재 지 충주시 금가면 석교길 19(오석리)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324 → 석교 정류장 하차, 26개 정류장

자전거량 동충주IC → 충원대로(2.7km)

→ 서부순환대로(4.7km) → 김생로(1.1km)



개설 인조 때 이괄의 난을 진압한 이수일(李守一, 1554~1632)의 무덤으로, 그는 본관은 경주(慶州)이고, 자는 계순(季純)이며, 호는 은암(隱庵)이다. 훈련대장 우의정 이완(李浣)의 부친이다. 선조 16년(1583)에 무과에 급제하였으며, 인조 2년(1624) 이괄(李适)의 난을 진압하여 계림부원군(鷄林府院君)에 봉해졌다.

묘역은 약 500평으로, 부인 전주이씨와 합장묘이다. 원형 봉분¹을 8매의 화강암 호석(護石)²으로 둘러쌌으며, 봉분 앞에 묘비·상석·장명등 및 좌·우에 동자석·장군석·망주석을 세웠다. 석물들이 세월의 흔적으로 검게 변한 것이 많고 이끼도 많이 끼어 있다.

묘소 입구 길가에는 현종 8년(1667)에 세운 신도비³가 있다. 비문은 이경여(李敬輿)가 짓고 김좌명(金佐明)이 썼으며, 제전(題篆)은 김수항(金壽恒)의 글씨이다. 묘소 아래 50m지점에 사당이 있다.

〈출처 및 참고문헌〉

- 인물지 (충청북도, 1987)
- 문화재지 (충청북도, 1982)
- 문화재청 (www.cha.go.kr)

¹ 흙더미를 쌓아올려 만든 둥근 모양의 무덤을 말한다.

² 무덤의 외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돌을 이용하여 만든 시설물.

³ 죽은 사람의 평생사적을 기록하여 묘 앞에 세운 비.

충주 박팽년 사당

忠州 朴彭年 祠堂

종 목 시도기념물 제27호

지 정 일 1978. 10. 27.

시 대 조선시대

소 재 지 충주시 신니면 참샘길 113(신청리)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152 → 수청 정류장 하차, 37개 정류장

자가차량 충주IC → 중부내륙고속도로
(0.5km) → 중원대로(8.6km) → 49번 지방
도(0.8km)



개설 조선 전기 사육신의 한 사람인 박팽년의 위패를 모신 곳으로 박팽년(朴彭年, 1417~1456)의 본관은 순천(順川)이고, 자는 인수(仁叟)이며, 호는 취금헌(醉琴軒)이다. 세종대의 집현전 학사였으며 단종 복위 운동에 참여하다 죽은 사육신 가운데에 한 사람이다. 시호는 충정(忠正)으로 숙종 때에 내려졌고 영조 34년(1758)에 이조판서로 추증(追贈)되었다.

박팽년의 사우¹는 전면 3칸과측면 2칸의 팔작지붕 목조 기와집이다. 이것은 영조 51년(1775) 충신문(忠臣門)이 정려(旌閭)될 때에 함께 세웠으며, 입구에는 일각대문(一角大門)²을 두고 흙과 돌을 섞은 담장을 둘렀다.

사우 앞에는 솟을 삼문 형식의 충신문이 있는데 중앙에는 박팽년의 것이 있다. 왼쪽에는 둘째 아들 박순(朴珣), 오른 쪽에는 박순의 유복자 박일산(朴一珊)의 충신문 편액³이 걸려있는데, 순조 31년(1831)에 정려된 것이다. 1968년에 충주시에서 복원하였고, 본래는 지금 위치에서 20m지점에 떨어져 있던 것을 1977년에 옮긴 것이다.

1 [같은 말] 사당(祠堂)(조상의 신주(神主)를 모셔 놓은 집).

2 대문간이 따로 없이 양쪽에 기둥을 하나씩 세워서 문짝을 단 대문.

3 종이, 비단, 널빤지 따위에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써서 방 안이나 문 위에 걸어 놓는 액자.



박팽년 사우 입구



박팽년 사당 입구

〈출처 및 참고문헌〉

- 추강집 (秋江集)
- 인물지 (충청북도, 1987)
- 문화재지 (충청북도, 1982)
- 문화재청 (www.cha.go.kr)

충주 남산성

忠州 南山城

종 목 시도기념물 제31호

지 정 일 1980. 01. 09.

시 대 삼국시대

소 재 지 충주시 직동 산24-1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513 → 요각골 정류장 하차, 21개 정류장

자전거량 충주IC → 종원대로(7.4km) →
사직로(3.1km) → 안림로(3.2km) → 충주
호수로(4.1km)



개설 종목면적 1,165㎡, 둘레 1,120m, 성벽 높이 6.5m, 너비 5~6.5m. 산 정상을 둘러쌓은 테
괴식¹ 산성으로, ‘마고성(麻姑城)’이라고도 한다.

전설에 의하면 삼한시대에 마고선녀(麻姑仙女)가 7일 만에 축성하였다고도 하고, 또는 백제 개로
왕 21년(475) 성 아래 북쪽의 안림동(安林洞)에 이궁(離宮)을 짓고 남산에 성을 쌓았다고 한다.

해발 636m의 남산 또는 금봉산(錦鳳山)이라 부르는 산의 정상부에서 동쪽으로 두 개의 작은 계곡
8부능선을 에워싼 석축산성²이다.

안쪽 벽은 계곡 부분만 2m쯤 협축(夾築)³하였고, 성벽 위에 여장(女牆)⁴이 너비 1.2m, 높이 60cm
쯤 남은 곳이 있는데, 바깥 성벽에서 곧바로 쌓아올리고 미석(眉石)⁵을 사용하지 않은 평여장(平女

1 산정상에 산성을 축조한 것

2 돌로 쌓은 산성

3 성벽(城壁) 쌓기에서, 외성(外城)과 내성(內城)의 이종으로 쌓는 방식

4 성벽 위에 설치한 높이가 낮은 담

5 눈썹돌. 성가퀴 위쪽 밑에 밖으로 조금 튀어 나오게 쌓은, 눈썹 모양과 같은 납작한 돌

塙)⁶이다.

문터가 사방에 모두 있으며, 바깥쪽에서의 입면(立面)⁷이 뿔코로 된 것으로 보아 모두 현문(懸門)⁸이 시설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성안 동쪽 계곡 쪽으로 세 군데의 집수처(集水處)가 확인되었고, 동문터의 남쪽에는 수구(水口)⁹가 원형대로 남아 있다.

수구는 물이 성벽의 중간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고, 출수구(出水口)는 성벽 바깥바닥에서 약 60cm쯤 올라온 벽의 중간에 미석이 있으며, 높이 65cm, 아랫너비 60cm, 윗너비 26cm여서 마치 궁륭모양 돌방무덤의 단면처럼 생긴 특이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성 북쪽의 마스막재[心項峴]에는 관애(關陴)¹⁰가 시설되어 있어서 삼국시대의 국원성(國原城) 혹은 중원경(中原京)의 외곽을 형성한 것으로 보이며, 일종의 나성(羅城)¹¹ 구실을 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남산성 집수지(위)와 성벽(아래)

〈출처 및 참고문헌〉

- 고려사 (高麗史)
- 충주산성종합지표조사보고서 (충주시·충주공업전문대학박물관, 1984)
- 중원의 역사와 문화유적 (김현길, 1984)
- 문화재지 (충청북도, 1982)
- 내고장전통가꾸기 (충주시, 1981)

6 성 위에 낮게 쌓은, 위가 편평한 담

7 정면, 측면 따위에서 수평으로 본 모양

8 아래위로 여닫게 되어 있는 문

9 물을 끌어 들어거나 흘려 내보내는 곳

10 국경에 있는 관문과 요새의 높고 험한 지역을 가리키는 말

11 안팎 2층으로 구성된 성곽에서 안쪽의 작은 성과 그 바깥의 도시까지 감싼 바깥쪽의 긴 성벽

충주 임경업 묘소

忠州 林慶業 墓所

종 목 시도기념물 제67호

지 정 일 1984. 12. 31.

시 대 조선시대

소 재 지 충주시 풍동 산45-1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입만**
612 → 상풍마을 정류장 하차. 6개 정류장
자가차량 충주IC → 종원대로(4.4km) →
서부순환대로(4.9km) → 상풍2길(1.7km)



개설 임경업(林慶業, 1594~1646)의 본관은 평택(平澤), 자는 영백(英伯), 호는 고송(孤松), 시호는 충민(忠愍)이다. 그는 광해 10년(1618) 무과에 급제하였고, 인조반정 때는 김류의 휘하에 있다가 이괄(李适)의 난 때에 정충신(鄭忠信)의 휘하에서 공을 세웠다.

봉분은 부인 전주이씨와 합장묘이며 호석(護石)을 둘렀다. 묘역에는 본래 묘비·망주석·석양(石羊)만이 있었으나, 1982년 보수, 정화 때 상석¹·동자석²·무관석³·장명 등을 새로 만들어 세웠다. 상석 밑에는 좌우로 연결된 길고 얇은 석단이 있다. 묘비는 비신(碑身)의 높이 138m, 폭 56cm, 두께 28cm로 개석(蓋石)을 갖추었으며, 풍동마을 입구에 신도비⁵가 있다.

〈출처 및 참고문헌〉

• 인물지 (충청북도, 1987) • 문화재지 (충청북도, 1982) • 문화재청 (www.cha.go.kr)

- 1 무덤 앞에 제물을 차려 놓기 위하여 넓직한 돌로 만들어 놓은 상
- 2 무덤 앞 좌. 우편에 마주보거나 나란히 세워져 있는 석상
- 3 능(陵) 앞에 세우는 무관(武官) 형상으로 만든 돌
- 4 무덤을 조성할 때 석실 위에 덮는 한 쪽이나 두 쪽으로 된 방형(方形)의 석재
- 5 죽은 사람의 평생사적을 기록하여 묘 앞에 세운 비

충주 문주리 요지

忠州 文周里 窯址

종 목 시도기념물 제81호

지 정 일 1988. 09. 30.

시 대 조선시대

소 재 지 충주시 대소원면 문주리 50-1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200-1, 202-1 → 팔봉 정류장 하차, 21개
정류장

자카치량 충주IC → 중원대로(4.4km)
→ 서부순환대로(6.5km) → 팔봉향산길
(4.4km)



개설 가마터는 문주리 팔봉부락 입구 오른쪽 강안(江岸)의 경사면에 자리하고 있으며, 1986년 충주공업전문대학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가 된 곳이다. 이 와요지는 지금은 충주시 소유이나 1985년 당시 소유자였던 유기봉씨가 발갈이 도중 소가 지하로 빠지는 바람에 이상히 여겨 신고 함으로써 현지 조사 결과 조선시대 와요지임이 밝혀지게 되었다. 남북 길이 12m, 폭 1.8m 규모의 작은 와요로 강안의 자연 경사면과 단구장의 지형 조건을 이용하여 남에서 북으로 오르는 단장 하부 지면을 파내어 아궁이를 만들고 단상부를 이용하여 소성실을 경사지게 만들었는데 소성실과 아궁이는 생토층을 깊이 파내고 천장부를 지표로 삼은 일종의 지하식 등요(登窯)이다. 이곳에서는 주로 조선 시대에 가장 흔한 청해파문이 시문된 두께가 비교적 두꺼운 기와들이 출토되었는데 이는 목조 건물이 불에 약하므로 기와에 청해파문(靑海波紋)을 찍어 덮음으로써 화기를 수기로 누른다는 생각에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문주리 와요지는 팔봉서원이 1582년에 설립된 후 현종 13년(1672)에 사액 받아 선현봉사와 자제교육을 담당하다 고종 8년(1871)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하여 폐원되었음을 감안할 때 서원의 건립을 위하여 16세기 말경부터 17세기 사이에 경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출처 및 참고문헌〉

- 중원문주리와요지 발굴조사보고서 (충주공업전문대학박물관, 1986)
- 충주시청 (www.chungju.go.kr)

충주 미륵리 요지

忠州 彌勒里 窯址

종 목 시도기념물 제100호

지 정 일 1994. 12. 30.

시 대 조선시대

소 재 지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송계로 835(미륵리)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245, 246 → 미륵리 정류장 하차, 44개 정류장

자가차량 충주IC → 중부내륙고속도로 (17.0km) → 안보로(2.8km) → 미륵송계로 (8.2km)



개설 미륵리 점말마을 앞 밭일대에 위치하는데, 밭에서 북서쪽으로 이어지는 낮은 구릉의 남쪽 사면에 가마터¹ 2곳과 자기퇴적층의 더미가 1곳 있다.

현재 확인된 가마터 2곳은 천장부의 파괴와 내부의 두꺼운 퇴적으로, 가마의 윗쪽 부분으로 보여지며 그 앞부분의 일부는 밭 아래쪽에 묻혀 있다. 확인된 가마의 규모는 1호 가마가 동서 190cm, 남북 140cm, 높이 100cm쯤이고, 2호는 동서 220cm, 남북 240cm이다. 자기퇴적층은 구릉의 남쪽 사면 발단부에 그 일부가 노출되어 있는데, 1호는 20세기 전반기의 백자제기와 대접 등이 출토되고 있고, 2호는 17세기 철화백자 사발편들이 출토되고 있어 제작시기를 추정해볼 수 있다.

이 요지는 17세기와 20세기의 전통가마의 축조방법과 자기 생산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 보존상태가 잘 되어 있고, 작업장과 함께 자기를 쌓은 퇴적층이 잘 남아 있는 곳이다.

〈출처 및 참고문헌〉

- 중원문주리와요지 발굴조사보고서 (충주공업전문대학박물관, 1986)
- 충주시청 (www.chungju.go.kr)

¹ 질그릇이나 사기그릇, 기와 따위를 굽는 가마가 있던 옛터

충주 대림산성

忠州 大林山城

종 목 시도기념물 제110호

지 정 일 1999. 12. 31.

시 대 고려시대

소 재 지 충주시 살미면 향산리 산45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240, 246, 223 → 풍동 정류장 하차, 16개 정류장

자전거량 충주IC → 중부내륙고속도로 (0.9km) → 중원대로(4.4km) → 서부순환대로(6.5km)



개설 둘레 약 5,144m로 대림산의 가파른 지형을 활용하여 축조한 포곡식(包谷式) 토석혼축성(土石混築城)으로, 평면형태는 동서로 긴 타원형에 가깝다. 현재 성벽 일부와 우물터·봉수지(烽燧址) 등이 남아 있다.

이 성은 충주시 남쪽 4km 지점에서 새재[鳥嶺]와 계립령(鷄立嶺)으로 통하는 큰 길을 막아 충주의 남쪽을 방어하던 요새로서, 달천(達川) 주변의 험준한 지형을 이용하여 산봉우리의 서쪽과 강변으로 트인 계곡을 둘러싸고 있다.

2017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이 발굴조사를 진행하였고, 연조(煙竈, 불이나 연기를 피웠던 시설)를 비롯해 봉수대 내부의 석축과 주거지, 방호벽, 출입시설 등이 확인되었다. 이 봉수대는 충주시의 진산(鎭山)인 대림산의 정상부에 위치해 충주 일대를 조망할 수 있는데, 서쪽으로는 달천과 탄금대, 동쪽으로 계명산과 마즈막재 등을 조망할 수 있다. 조선 후기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는 조선시대 5개의 봉수노선 중 제2거 봉수노선에 딸린 간봉노선으로 기록돼 있다.

거제 가라산(加羅山)에서 시작, 문경을 거쳐 연풍 주정산(周井山)봉수→충주 대림성(大林城)봉수→충주 마산(馬山)봉수→음성 가집산(加葉山)봉수→음성 망이산(望耳山)봉수를 거쳐 다시 제2거 직봉과 연결된다.

대림산성의 봉수대는 연조의 구조와 배치양상 뿐만 아니라 시설 전체를 보여주고 있어 봉수대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대림산성 전경

〈출처 및 참고문헌〉

- 문화유적총람 (문화재관리국, 1977)
- 문화재지 (충청북도, 1982)
- 중원의 역사와 문화유적 (김현길, 청지사, 1984)
- 중원의 산성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2008)

충주 주정산 봉수

忠州 周井山 烽燧

종 목 시도기념물 제113호

지 정 일 2000. 09. 15.

시 대 조선시대

소 재 지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산47-2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240, 246 → 오산 정류장 하차, 33개 정류장

자전거 과산C → 중부내륙고속도
로(0.6km) → 미선로(1.7km) → 안보로
(1.9km)



개설 봉수대는 햇불과 연기를 이용하여 급한 소식을 전하던 옛날의 통신수단을 말하며, 높은 산에 올라가서 불을 피워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빛으로 신호를 보냈다.

충주시 상모면 온천리와 괴산군 장연면 추정리의 경계부분인 주정산 봉우리에 있는 이 봉수대는 고려시대에 축조되어 조선시대까지 이용된 것으로, 남쪽의 미륵리 마골재에서 봉수를 받아 북쪽의 대림산 봉수대에 전하였다.

한국전쟁 당시 대부분 훼손되었으나 발굴조사 결과 남북으로 긴 타원형의 방호벽, 석등을 갖춘 남북 2곳의 출입구, 화구(火口)와 화덕을 갖춘 봉조 5개소가 확인되었다.

이곳에서는 조선시대의 자기류와 그릇조각, 한자와 한글을 같이 새긴 그릇뚜껑, 석제품 등의 각종 유물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이 봉수대는 봉수대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기우제¹를 지내는 제의 장소로도 이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봉수대는 봉수대의 완전한 구조가 밝혀져 우리나라 봉수제도의 실증적 연구를 심화시킬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출처 및 참고문헌〉 • 문화재청 (www.cha.go.kr)

¹ 가뭄이 들었을 때 비가 내리기를 비는 제사

충주 김생사지

忠州 金生寺址

종 목 시도기념물 제114호

지 정 일 2000. 12. 22.

시 대 통일신라시대

소 재 지 충주시 금가면 김생로 325(유송리)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324, 324-1 → 반송 정류장 하차, 21개 정
류장

자가차량 동충주IC → 충원대로(4.4km)

→ 보라매로(0.2km) → 김생로(2.7km)



개설 김생사지는 신라의 명필인 김생(711~791)이 만년에 창건한 사찰터이다. 김생은 성덕왕 10년(711)에 가난하고 미천한 가문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글씨에 능하였고 원성왕 7년(791) 80세 까지 붓잡기를 쉬지 않았다. 이 사지는 주변에 장대석¹이 많고 석탑재와 기와조각, 도자기조각이 산재해 있어 이곳을 ‘와당밭’이라고 일컫을 정도로 와전류(瓦塼類)가 많이 출토되었다. 김생사지는 『수산집』의 김생사중수기(金生寺重修記)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을 통하여 북진애(北津崖)－예성(藥城)의 북쪽나루－ 즉 현 위치의 김생사에서 두타행(頭陀行)을 닦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수년전까지 있었던 고와가(古瓦家)의 본체 용마루에서 ‘건륭을미(乾隆乙未-1775)’ 망와 4점과 ‘성상오십일년을미 충청도 충주’의 암기와가 발견되었다. 수습된 유물로 보아 신라시대에 창건되어 고려시대에 크게 번창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근래까지 조선시대 고가터가 남아 있으며 1979년 당시 두채의 건물에 ‘ㄷ’형태로 있었다. 절터의 서쪽 강가에는 김생이 쌓았다는 김생제방(金生堤防)이 있는데 이 제방은 강물에 의한 토량 침식을 예방, 사지의 평탄대지를 조성하기 위해 자연 석으로 쌓았던 것으로 40~50cm 정도의 길이에 높이 3~4m 규모로 남아 있으나 현재는 충주댐 건설로 물에 잠겨 자취를 찾기 힘들다.

〈출처 및 참고문헌〉 • 문화재청 (www.cha.go.kr)

1 길게 다듬어 만든 돌

충주 조동리 고인돌

忠州 早洞里 支石墓

종 목 시도기념물 제119호

지 정 일 2001. 09. 14.

시 대 청동기시대

소 재 지 충주시 동량면 조동탑평1길 10(조동리)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315, 316, 317 → 탑평 정류장 하차, 17개
정류장

자전거량 동충주IC → 충원대로(2.5km)
→ 대전조동길(3.9km) → 동산로(0.4km)



개설 고인돌은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으로 지석묘라고도 부른다. 우리나라의 고인돌은 4개의 반침돌을 세워 돌방을 만들고 그 위에 거대하고 평평한 덮개돌을 올려놓는 탁자식과, 땅속에 돌방을 만들고 작은 반침돌을 세운 뒤 그 위에 덮개돌을 올린 바둑판식으로 구분된다.

충주 조동리의 지석묘는 조동리 탑평마을 중심부에 위치하며 민가에 둘러싸여 있다. 여러 개의 자연돌을 고임돌로 사용하고 그 위에 커다란 덮개돌을 올려 놓은 전형적인 바둑판식 고인돌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특히 다른 지방의 고인돌과 달리 덮개돌 위에 평면 타원형의 돌을 올려 놓아 3층의 탑과 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어 매우 특이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덮개돌 위의 2층은 본래 고인돌 축조와는 시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불교 전래 이후 탑의 모습을 모방하여 쌓은 것으로 추정되어 고인돌과 불교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독특한 양식으로 주목된다.

조동리 지석묘는 바둑판식 고인돌로서 3층 구조의 특이한 외부구조를 갖추고 있고, 보존상태도 매우 양호하며, 청동기시대의 묘제연구에 중요한 학술 자료가 된다. 특히, 조동리 선사시대(신석기~청동기) 생활유적과 인접하고 있어 중원지방의 청동기시대 생활문화상을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유적이다.

〈출처 및 참고문헌〉 • 문화재청 (www.cha.go.kr)

충주 조동리 유적

忠州 早洞里 遺蹟

종 목 시도기념물 제126호

지 정 일 2002. 10. 25.

시 대 선사시대

소 재 지 충주시 동량면 조동1길 15
(조동리, 조동리선사유적박물관)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315, 316, 317 → 면사무소앞 정류장 하차,
14개 정류장

자가차량 동충주IC → 충원대로(2.5km)
→ 대미길(1.1km) → 지동로(3.1km)



개설 충주댐에서 약 3km 떨어진 남한강 하류 쪽에 위치한 대규모의 선사시대 유적이다. 당시 이곳은 밭이었으나 1990년 9월 10일에 내린 집중호우로 남한강 기슭의 퇴적층위가 깎여나가면서 빗살무늬토기와 간 돌검, 돌도끼 등 많은 석기 유물이 드러난 것을 이곳 밭주인이 발견함으로써 조동리 선사유적의 존재가 알려졌다.

조동리 선사유적은 8,811㎡에 이르며, 크게 세 지구로 나뉘어진다. 1지구는 동량면사무소 앞의 충적대지이고, 2지구는 남한강 하류 지점, 3지구는 철교 서쪽의 남한강변 충적대지 일대이다. 1996년 3월부터 2000년까지 충북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세 차례에 걸쳐 발굴 조사가 실시되었다.

조동리 선사유적은 2002년 10월 25일 충청북도 기념물 제126호로 중목되었고, 2005년 11월 9일에는 이곳에서 출토된 유적과 유물을 보존하고 소개하기 위해 조동리 선사유적박물관을 개관하였다.

내용 조동리 선사유적의 퇴적층위는 4개의 문화층으로 나뉘며, 이보다 아래는 자연퇴적층이다. 문화층인 제3·제4 퇴적층은 상·하위 신석기시대 문화층이고, 제2퇴적층은 청동기시대 문화층이다.

신석기시대 문화층에서는 다량의 빗살무늬토기와 돌도끼, 그물추 등 생활에 필요한 연모¹와 뼈씨가 출토되었다. 이와 함께 연대 값을 알 수 있는 숯도 출토되었다. 빗살무늬토기는 짧은 빗금무늬, 생선뼈무늬 등 10여 가지의 무늬가 있고 바탕흙과 제작 수법, 문양 형태 등에서 한강·금강과 남해안 계통의 토기와 비슷한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신석기시대 문화층에서는 유구가 확인되지 않았다. 신석기시대 아래층에서 출토된 숯 시료를 통한 절대 연대값은 $5,295 \pm 545 \text{ B.P.}$ (기원전 3,000여년)로 측정되었다.

청동기시대층에서는 집터 6기, 불탄 자리 17기, 수혈(竪穴) 11기, 돌무지 1기, 우물 1기(근대) 등 모두 35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집터의 형태는 네모꼴·긴네모꼴·타원형·등근꼴 등 4가지가 조사되었다.

청동기시대의 불탄 자리 17기의 구조는 특별한 시설없이 바닥을 오목하게 판 수혈 형태, 바닥을 약간 파고 강돌과 깎돌을 이용해 등글게 2~3겹 쌓아 만든 돌무지형태, 자갈돌을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돌려놓아 만든 돌돌림 형태 등으로 나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돌돌림 형태 중 길쭉한 자갈돌을 원형으로 돌려놓아 만든 불탄 자리 2개를 서로 이어 '안경테모양'과 같은 꼴을 갖춘 것(청동기 아래층)이다. 수혈의 형태는 원형·타원형·긴네모꼴 등이 있다.

청동기시대 문화층에서는 붉은 굽 잔토기, 민무늬 토기, 붉은 간토기, 팽이형 토기, 가지무늬 토기, 구멍무늬 토기 등 다양한 토기류와 그물추, 화살촉, 돌보습, 돌도끼, 갈판, 찌개, 가락바퀴 같은 석기류가 출토되었다. 특히 각종 석기류는 당시 생활 연모가 발달했음을 보여준다. 이 밖에도



1. 동물뼈 출토상태



2. 불뎀자리



3. 수혈유구

¹ 물건을 만들거나 일을 할 때에 쓰는 도구와 재료

쌀·보리·밀·조·도토리·복숭아씨 등 곡물과 열매, 씨앗 등이 출토되어 청동기시대에 대규모 취락을 형성하고, 농경과 어로 등 생산경제 활동이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청동기시대 위층에 있는 제1호 집터는 $2,700 \pm 165$ B.P.(기원전 800여년), 제1호 불뎌 자리는 $2,995 \pm 135$ B.P.(기원전 1,000여년)로 나왔다.

의의와 평가 조동리 선사유적은 신석기시대 문화층과 청동기시대 문화층이 잘 보존되어 있다. 신석기시대 문화층에서는 빗살무늬토기가 다량 출토되었는데, 이는 지금까지 충청북도 지방에서 확인된 가장 오래된 신석기시대 유적이다.

이 유적에서 농경과 어로 등 생활 활동과 관련된 연모가 다수 출토되었으며, 곡물과 열매씨앗 등이 다수 조사되었다. 또한 청동기시대에 이곳에 대규모 취락을 형성하고 활발한 생산경제 활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동리 선사유적은 중원 지역의 선사시대(신석기~청동기) 문화와 생산경제 등의 학술적 연구에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된다.

〈출처 및 참고문헌〉

- 충주 조동리 선사유적 (충북대학교박물관, 2002)
- 충주 조동리 선사유적 (충북대학교박물관, 2001)
- 선사유적발굴 도록 (충북대학교박물관, 1998)
- 연보 (충북대학교박물관, 1996)
- 연보 (충북대학교박물관, 1995)
- 충주조동리발굴조사개보 (이용조·우종윤, 충북대학교박물관연보 5, 1996)

충주 팔봉서원

忠州 八峰書院

종 목 시도기념물 제129호

지 정 일 2003. 06. 13.

시 대 조선시대

소 재 지 충주시 대소원면 팔봉안길 11-6(문주리)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200-1, 202-1 → 팔봉 정류장 하차, 21개
정류장

자카차량 충주IC → 중원대로(4.4km)
→ 서부순환대로(6.5km) → 팔봉향산길
(4.1km)



개설 선조 15년(1582)에 지방유림의 공의로 이자(李耜)·이경연(李慶延)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고 광해군 4년(1612) 김세필(金世弼)·노수신(盧守愼)을 추가 배향하였다.

현종 13년(1672)에 '팔봉(八峰)'이라고 사액되었으며, 선현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오던 중 고종 5년(1868)에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되었다. 그 뒤 서원은 복원하지 못하고 서원터에 담장과 정문(旌門)을 세웠다가 1998년에 전통양식으로 복원하였다.

선조 15년(1582) 건립되고 현종 13년(1672)에 사액받은 서원으로 지방 유교교육을 담당했던 곳이며, 이곳에 위패를 봉안한 이자, 이연경, 김세필, 노수신 등 4분은 조선시대 사화(士禍)와 관련되어 지조와 절개를 지켰던 인물로 학문에도 정통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처 및 참고문헌〉

- 충청북도지 (청주문화원, 1975)

충주 신청리 고인돌

忠州 新淸里 支石墓

종 목 시도기념물 제133호

지 정 일 2004. 11. 26.

시 대 청동기시대

소 재 지 충주시 신니면 신청리 502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154 → 신의 정류장 하차, 29개 정류장

자가차량 충주IC → 종원대로(8.6km)

→ 49번 지방도(0.8km) → 신의수청길

(1.3km)



개설 이 고인돌은 개석식¹ 고인돌로 본래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덮개돌 윗면에 크고 작은 구멍<성혈(性穴)>이 141개 분포하고 있어 선사시대 거석문화 연구, 특히 매장행위와 관련된 중요한 자료이다.

충북도내에서 발견된 고인돌로서는 큰편에 속하며 덮개돌(482×370×125cm)의 윗면에는 지름 10~4cm, 깊이 3~1cm가량되는 크기의 구멍이 약 80여개 나있다. 이 구멍들을 당시의 가족인 씨족수로 보는 경우와 별자리로 해석하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

이 고인돌은 개식으로 덮개돌의 긴 방향은 남북이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원래 여기에는 여자와 남자로 상징되는 2기의 고인돌이 있었다고 전해지나 여성고인돌은 예전의 하천공사시 깨어 사용되었다고 하며 지금 남아있는 것은 남성고인돌이다.

이곳에서 남쪽으로 흐르고 있는 요도천의 맞은 편에는 견학리 토성이 자리하고 있다.

〈출처 및 참고문헌〉

- 문화재청 (www.cha.go.kr)
- 충주시청 (www.chungju.go.kr)

¹ 지하에 만든 무덤방 위에 바로 뚜껑으로 덮은 형식

충주 부흥사 방단적석유구

忠州 富興寺 方壇積石遺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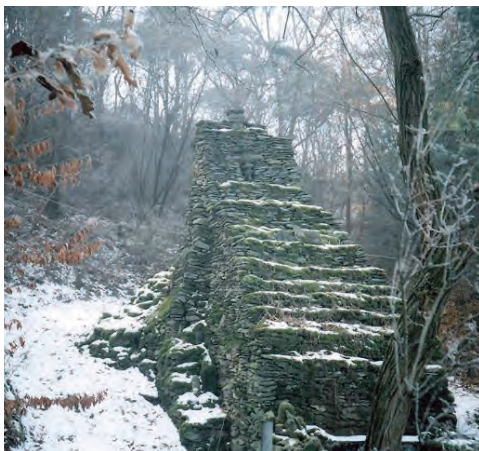
종 목 시도기념물 제136호

지 정 일 2005. 10. 21.

시 대 조선시대

소 재 지 충주시 엄정면 서계1길 15-25
(목계리, 부흥사)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360, 361 → 목계 정류장 하차, 23개 정류장
자전거량 동충주IC → 충원대로(1.4km)
→ 북부로(1.7km) → 김생로(1.0km) → 구
룡로(2.9km)



개설 충주시 부흥사 경내 산신당 옆에 있는 돌탑으로, 목계 부흥사 돌탑이라고도 한다. 돌탑의 규모는 높이가 약 8m, 둘레가 약 13m이다. 현재 부흥사가 소장, 관리하고 있다.

이 돌탑은 벽돌보다 좀 더 작고 타원형의 납작한 돌을 쌓아 올려 만들었다. 탑의 모양은 밑은 사각형이고 위로 올라가면서 폭이 좁아지는 사각뿔과 유사한 형태이다. 정면에서 볼 때 방형의 기단 위에 4단의 탑신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원래는 방단식 이형탑으로 추측된다. 산비탈에 붙여 쌓아서 탑의 뒷면은 지면에 의지하고 있으나 지금은 탑이 약간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돌탑의 앞면 아래에는 사람이 허리를 구부리고 드나들 수 있는 크기의 출입구를 갖춘 감실이 있고, 내부에는 부흥산신위(富興山神位)라고 새긴 비석이 있다. 이로써 이 돌탑은 본래 산신각으로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탑의 조성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고려 후기에서 조선 전기로 추정된다. 현재 감실 앞 왼쪽에 ‘고 최봉출 탑(故 崔奉出 塔)’이라고 적힌 비석이 있는데, 근래에 최봉출이라는 사람이 무너진 윗부분을 다시 쌓았다는 말이 전한다.

이 유구는 윗부분이 허물어져 다시 쌓아올리면서 약간 변형된 것으로 보이나 축조 형태가 매우 희귀한 문화재로서 불교와 민속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출처 및 참고문헌〉 • 문화재청 (www.cha.go.kr)

충주 견학리 토성

忠州 見鶴里 土城

종 목 시도기념물 제137호

지 정 일 2006. 01. 06.

시 대 통일신라시대

소 재 지 충주시 신니면 견학리 441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151 → 견학리 정류장 하차, 26개 정류장
자전거량 충주IC → 종원대로(3.2km) →
충청대로(0.7km) → 신덕로(3.0km)



개설 낮은 구릉의 끝 부분에 위치한 평면 네모꼴의 토성인데 충주지역 유일의 네모꼴 토성으로 중요시된다.

충주 서쪽 서죽삼거리에서 서북쪽으로 4km쯤 떨어져 가섭산의 동쪽 낮은 구릉에 있고, 성 안은 경작지이며 북벽·동벽은 본래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서벽은 없어지고 남벽은 일부만 남았다. 성벽의 높이는 2~3m이고 성벽 바깥은 급경사를 이루었다.

현존하는 성벽은 북벽 44m, 동벽 58m, 남벽 32m로 모두 144m인데, 본래는 220m쯤이었다고 여겨진다. 남북 약 60m, 동서 약 45m의 장방형의 토성이었다.

성벽은 서벽의 아랫부분에서 남작한 돌들이 나타남을 보아 기단부는 성벽의 안팎 언저리에 돌을 깔아 만들고, 그 위로 일정한 간격의 열개¹를 만들어 흙을 넣고 다지는 판축(版築)에 의하여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2차에 걸친 발굴조사를 통하여 축성과 관련된 기둥구멍이 일정한 간격으로 노출되었으며, 성벽에 대한 한차례 수축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판축토의 내부에서 일부 수습된 삼국시대의 연질토기를 통하여 그 축성 시기를 추정해 볼 수 있으며, 그 외에도 9세기를 전후한 시기의 유물들이 내부 건

¹ 어떤 사물이나 조직의 전체를 이루는 짜임새나 구조

물지 등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어 이 유적은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까지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견학리토성 전경

〈출처 및 참고문헌〉

- 문화재지 (충청북도, 1982)
- 방형토성의 이례 (차용길, 유무병박사회갑기념논총, 1984)
- 중원의 산성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2008)

충주 우천석·우팽 묘소

忠州 禹天錫禹倅 墓所

종 목 시도기념물 제140호

지 정 일 2007. 03. 09.

시 대 조선시대

소 재 지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산105-1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333 → 산척 정류장 하차, 18개 정류장

자가차량 동충주IC → 충원대로(1.4km)
→ 북부로(2.4km) → 동산로(0.6km) → 송
강행정길(0.6km)



우천석묘 전경

개설 조선시대 조성된 묘소로 정확한 조성연대는 미상이나 우천석이 충렬왕 6년(1280) 문하시중에 올랐으며, 충주에 장지¹(葬地)를 정한 이래 후손들의 세거지²(世居地)가 되었다. 묘표는 1919년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우팽은 우천석의 차자로 우천석 묘소 뒤편에 있는데 조성시기는 조선시대이며 묘표와 문관석은 조성 당시의 것이고 묘비는 1980년에 세웠다. 우천석 묘소는 약160㎡ 정도의 방형분³으로 4~5단 쌓아 호석을 두르고 있으며, 호석의 높이는 90cm이다. 방형의 전면은 263cm, 측면은 550cm이고 상석과 문인석⁴이 있으며 좌측으로는 구묘표가 있으며 문인석은 비교적 정교한 솜씨로 조성되



우천석묘 문인석

1 장사하여 시체를 묻는 땅

2 양반가문의 집성촌

3 봉분, 혹은 분구가 방주형 혹은 방대형으로 축조된 무덤

4 (왕)릉·묘(墓)의 봉분 앞에 세우는 문인(文人)과 무인(武人) 석상

있으며 특히 양쪽 문인석의 모습이 이채롭다. 우팽 묘소도 방형분으로 할석을 4,5단씩 쌓아 호석을 둘렀고 호석의 높이는 60~100cm이다. 전면은 340cm, 측면은 540cm로 석물로는 상석(床石)과 망주석(望柱石), 문인석(文人石) 등이 있으며 보존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다. 할석을 4~5단씩 쌓아 호석을 두른 방형분(方形墳)으로 묘소 조성양식상 특이한 면이 있다. 비석의 원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팽묘 전경

우천석 묘표의 정면에는 고려시중단양우공휘천석지묘(高麗侍中丹陽禹公諱天錫之墓)라 하였고, 좌측면에는 세기미십일월삭조십칠세손도하원상십팔세인하이십세손태정립(歲己未十一月朔朝十七世孫導河元相十八世引河二十世孫泰鼎立)라고 새겼다.

우팽 묘표는 정면에 고려밀직부사추봉증사우공팽지묘(高麗密直副使追封侍中事禹公倂之墓)라 새겼으며 좌측면에는 세기미십일월삭조십칠세손도하원상십팔세인하이십세손태정립(歲己未十一月朔朝十七世孫導河元相十八世引河二十世孫泰鼎立)라고 새겼다.

이 묘소들은 별도의 가공을 하지않은 자연 할석으로 4~5단씩 쌓아올려 경사면을 따라 묘가 조성되어 호석의 측면은 앞이 높고 뒷면이 낮은 방형분(方形墳)이면서 자연 할석으로 호석을 두른 묘제는 지역내에서는 보기드문 예이다.

〈출처 및 참고문헌〉

- 문화재청 (www.cha.go.kr)

충주 이시진 묘소

忠州 李時振 墓所

종 목 시도기념물 제149호

지 정 일 2010. 12. 10.

시 대 조선시대

소 재 지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1길 149-11
(대전리, 산17-1)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320 → 대전리 정류장 하차, 17개 정류장

자가차량 동충주IC → 충원대로(1.5km)
→ 대전리1길(1.5km)



개설 이시진(1578~1633)은 조선시대 「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에 기록된 효자로서 국가로부터 정려를 받은 인물이다.

이시진 묘소(李時振 墓所)는 17세기 전반부터 20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전주이씨 임영대군 효자공파 6세손인 이시진 묘부터 13세손인 이명규 묘까지 조성되어 있다. 묘역(墓域)은 구릉의 능선을 따라 李時振 墓, 李晩栽(이시진의 장자) 墓, 李世彦(이만재의 장자) 墓, 李億齡(이세연의 장자) 墓, 李顯昌(이억령의 장자) 墓(묘), 5대에 걸친 직계 장손들의 묘소가 차례로 조성되어 있다. 李鶴齡(이학령-이세연의 차자) 墓(묘), 李濟弘 墓(이제홍 묘), 李思遠 墓(이사원 묘), 李明圭 墓(이명규 묘) 등 방계 후손들의 묘도 함께 있는데 능선부에서 약간 비켜 조성되어 있다.

5대묘는 봉분과 석물¹(상석², 혼유석³, 향로석⁴, 석비⁵, 망주석⁶ 등)을 갖추고 있으며 상석과 혼유

- 1 무덤 앞에 세우는, 돌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물건
- 2 무덤 앞에 제물을 차려 놓기 위하여 넓직한 돌로 만들어 놓은 상
- 3 상석의 뒤와 무덤의 앞에 놓는 긴네모꼴의 돌
- 4 무덤 앞에 향로를 올려놓는 네모반듯한 돌
- 5 돌로 만든 비석
- 6 무덤을 꾸미기 위하여 무덤 앞의 양옆에 하나씩 세우는 돌로 만든 기둥

석, 향로석 등은 조성당시의 석물이며 석비와 망주석은 대개 2003년 종중에서 일괄 건립한 것이다. 이시진, 이제홍 묘 석비는 당시의 것이다.

이시진 묘에는 석비(石碑)(2점), 망주석(望柱石), 혼유석(魂遊石), 상석(床石), 향로석(香爐石) 등을 갖추고 있으며 석비 1점은 2003년에 건립하였으며 망주석도 이때 세운 것으로 보인다.

무덤은 평면 사다리꼴 형태이며 가로 6m, 세로 6m, 높이 1.5m 정도이다. 부인 전주 황씨와 풍산 심씨를 합장하였다. 이시진(李時振; 1578~1633)은 전주이씨 임영대군파(全州李氏 臨瀛大君派) 6세이다.

이만재 묘는 이시진 묘 바로 아래에 위치하며 상석(床石), 혼유석(魂遊石), 향로석(香爐石)(이상 조성 당시), 석비(石碑), 망주석(望柱石)(이상 2003년)등을 갖추고 있다. 무덤의 형태는 평면 사다리꼴에 가까우며 가로 5.2m, 세로 8m, 높이 1.6m 정도이다. 분묘 조성 당시 석비를 세우지 않고 상석 전면(前面)에 ‘절충장군 행 용양위부호군 전주이공 만재지묘 배 숙부인 파평윤씨 부좌 계좌(折衝將軍 行 龍驤衛副護軍 全州李公 晩裁之墓 配 淑夫人 坡平尹氏 附左 癸坐)’라 각자(刻字)하였다. 이만재(李晩裁)는 이시진(1625~1705)의 장자이다.

이세언(1646~1708) 묘는 이만재 묘 아래에 위치한다. 상석(床石), 향로석(香爐石)(이상 조성 당시), 석비(石碑), 망주석(望柱石)(이상 2003년)등을 갖추고 있다. 무덤의 형태는 평면 삼각형에 가까우며 가로 5m, 세로 6.5m, 높이 1.5m 정도이다. 분묘 조성 당시 석비를 세우지 않고 상석 전면(前面)에 ‘성균진사 전주이공 세언지묘 배 공인 죽산박씨 부좌 계좌(成均進士 全州李公 世彦之墓 配 公人 竹山朴氏 附左 癸坐)’라 각자(刻字)하였다. 이세언(李世彦)(1646~1708)은 이만재의 장자이다.

이억령 묘는 이세언 묘 바로 아래에 위치한다. 상석(床石), 향로석(香爐石)(이상 조성 당시), 석비(石碑), 망주석(望柱石)(이상 2003년)등을 갖추고 있다. 무덤의 형태는 유돌 분이며 직경 4m, 높이 1m 정도이다. 분묘 조성 당시 석비를 세우지 않고 상석 전면(前面)



이시진 묘비석

에 ‘통사랑 전주이공 억령지묘 배 유인 김해김씨 부좌계좌(通仕郎 全州李公 億齡之墓 配 孺人 金海金氏 附左癸坐)’라 각자(刻字)하였다. 이억령(李億齡; 1672~1722)은 이세인의 장자이다.

이현창 묘는 이억령 묘 우측 아래(이학령 묘 바로 아래)에 위치하며 2009년 부인 밀양박씨와 합장하면서 봉분을 재 조성하였다. 상석, 혼유석, 향로석, 석비, 망주석 등을 갖추고 있다(2009년 건립). 봉분은 유돌분으로 직경 3m, 높이 1.2m 정도이다. 이현창(李顯昌)(1695~1771)은 이억령의 장자(長子)이다.

의의와 평가 이시진 묘소(李時振 墓所)는 조선 당시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순조 12년(1812)에 세운 것으로 추정되는 이시진 묘비(묘표)와 상석, 향로석, 계체석 등이 잘 남아있어 조선후기 묘제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 『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에 등장하는 이시진의 효행을 실체적으로 보여주는 유적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출처 및 참고문헌〉

- 문화재청 (www.cha.go.kr)

충주 양능길·양여공 묘소

忠州 梁能吉·梁汝恭 墓所

종 목 시도기념물 제153호

지 정 일 2012. 01. 06.

시 대 고려~조선시대

소 재 지 충주시 엄정면 신만리 58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343, 344 → 도룡교 정류장 하차, 22개 정
류장

자전거량 동충주IC → 충원대로(1.4km)
→ 북부로(2.4km) → 세고개안길(1.4km)
→ 솟방이길(0.9km)



개설 양능길은 고려 개국공신으로 충주양씨 문중에서 시조로 삼고 있고, 묘소는 형태가 팔각형의 죽절형¹(竹節形) 모서리 기둥을 새긴 호석²(護石)을 두른 특이한 양식이다. 일부 풍화되고 결실된 부분을 보수한 흔적이 있으나, 고려시대 분묘 유적으로 그 유례가 희귀하다.

양능길의 15대손 양여공(梁汝恭)은 조선시대 초기의 인물로 급제 후 예조정랑까지 오른 효자로 이름난 인물이다. 양능길과 양여공은 충주지역의 인물사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묘소가 원위치에 원형대로 보존되어 있어 하나로 묶어 보호할 필요가 있다.

〈출처 및 참고문헌〉

- 문화재청 (www.cha.go.kr)

¹ 대나무마디형태

² 무덤의 외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돌을 이용하여 만든 시설물

충주 김세렴 묘소

忠州 金世濂 墓所

종 목 시도기념물 제165호

지 정 일 2017. 08. 04.

시 대 조선시대

소 재 지 충주시 양성면 본평리 산6-46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입반**
361, 364 → 당평 정류장 하차, 51개 정류장
자가차량 감곡IC → 북부로(4.8km) → 가곡로(1.2km) → 북상골길(0.9km))



개설 김세렴(金世濂, 선조 26년(1593)~인조 24년(1646)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호조판서와 도승지 등을 지냈다. 자는 도원(道原), 또는 도렴(道濂), 호는 동명(東溟)이며, 시호는 문강(文康)이다. 광해군 8년(1616년) 24세에 장원으로 문과에 급제하였다. 예조와 홍문관, 사간원 등에서 근무하던 중, 대북파의 인목대비(仁穆大妃)의 폐모(廢母)논의에 반대하다 평안도로 귀양갔다. 1623년 인조반정으로 복귀한 후, 정묘호란 당시 체찰사(體察使) 이원익(李元翼)을 수행하였다. 인조 14년(1636) 통신사 부사(副使)로 임명되어 일본 에도[江戸]에 다녀왔다. 이후 호조판서, 함경도 및 평안도 관찰사를 역임 후 인조 24년(1646) 세상을 떠났다. 그는 성격이 청렴하고 강직하였다고 하며, 일본에 갔을 때 관백 도쿠가와 이에미쓰[德川家光]와 학문에 대한 논의를 한 뒤 그로부터 금 1백70정(錠)의 전별금을 받았으나 오사가 근교 앞의 하천에 이르러 그金を 모두 던져버렸다고 한다. 한편, 대동법의 보급 등에 노력하였다고 전한다.

〈출처 및 참고문헌〉

• 문화재청 (www.cha.go.kr)

충주 영모사

忠州 永慕祠

종 목 문화재자료 제19호

지 정 일 1998. 01. 09.

시 대 조선시대

소 재 지 충주시 동량면 내동1길 26-11(대전리)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320 → 내동 정류장 하차, 16개 정류장

자기차량 동충주IC → 충원대로(1.5km)
→ 대전리1길(2.0km) → 내동2길(0.2km)



개설 충주 최씨의 시조인 최승(崔陞)과 선조 8분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다. 최승은 신라 문성왕 8년(846)에 흥년이 들어 도적이 많아지자, 중국 당나라 무종(武宗)의 명을 받아 이들을 무력으로 평정하였다. 또한 통일신라 진성여왕 3년(889)에 반란이 일어나자 이를 수습하였다.

영모사는 남쪽을 향해 있으며 앞쪽에 있는 문은 가운데를 높인 솟을대문이고 최승이 살았을 때의 업적을 기록한 신도비와 석교가 있다.

1922년에 충주 최씨 후손들에 의해 창건되어 신라말 발해 청해에서 병마사로 내임하여 충주 최씨 시조가 된 최승 등 선조 8위의 위패를 모시고 배향하여 향사하고 있다. 남향으로 배치된 건물의 규모는 앞면 4칸, 옆면 3칸을 꺾히어 전퇴¹⁾를 두었는데 앞으로는 솟을삼문을 세웠다.

삼문 앞으로는 최개국(崔蓋國)신도비, 최승(崔昇)신도비 외에 최홍사(崔弘嗣)비, 최주환(崔周煥) 기념비 등과 추원교(追遠橋)가 있다. 최승의 초명은 안잠(安潛)이며 본관은 당나라의 청하(淸河)이다.

〈출처 및 참고문헌〉 • 문화재청 (www.cha.go.kr) • 충주시청 (www.chungju.go.kr)

1 집재의 앞쪽에 다른 기둥을 세워 만든 조그마한 칸살

충주 송선사지 당간지주

忠州 崇善寺址 幢竿支柱

종 목 문화재자료 제43호

지 정 일 2004. 09. 17.

시 대 고려시대

소 재 지 충주시 신니면 송선길 56(문송리)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157 → 문송리 정류장 하차, 40개 정류장
자가차량 충주IC → 종원대로(8.6km) →
덕고개로(1.0km) → 가리골길(3.2km))



개설 동서로 나란히 섰던 당간지주¹는 현재 서쪽의 것만 남아있고 동쪽의 지주는 없어졌다. 위 부분에는 큼직한 간구가 나있고 외측 좌우면은 모죽임²을 하였다.

일제 강점기때 신덕저수지를 축조할때 부재로 사용하였는데 동쪽 지주를 자른 사람이 화를 입었기에 그나마 서쪽지주가 보존되었다고 전한다.

지주의 높이는 420cm로 송선사의 규모가 컸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지주가 위치한 곳부터 본래 사찰의 초입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당간지주의 내면 윗부분에 큼직한 간구를 마련하였고 바깥면은 모죽임을 하였다. 안쪽은 바깥면에 비해 덜 정교하게 다듬었으며 간대에서 위로 50cm되는 지점 중앙에 정사각형의 자연석을 다듬어 윗면에 2개의 당간삽입공을 만들었다.

충주지역에서는 현재 수안보면 중원미륵리사지와 이곳에 당간지주가 전하고 있는데 비록 당간지주의 한 쪽은 없어졌지만 남아있는 지주는 당시 송선사지의 위상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출처 및 참고문헌〉 • 문화재청 (www.cha.go.kr) • 충주시청 (www.chungju.go.kr)

1 당(幢)을 거는 장대인 당간(幢竿)을 걸어두기 위하여 세운 기둥

2 조각이나 건물, 탑을 만들때 각진 모서리 부분을 둥글게 깎아내는 기법을 말하는 것

충주 연안이씨 쌍효각

忠州 延安李氏 雙孝閣

종 목 문화재자료 제46호

지 정 일 2005. 03. 11.

시 대 조선시대

소 재 지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1길 25(대전리)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360, 361 → 도리 정류장 하차, 12개 정류장

자전거량 동충주IC → 충원대로(1.5km)
→ 대전리1길(0.3km)



개설 부모님에게 지극한 효성을 다한 이시희(李時熙)와 이시걸(李時杰) 형제의 효행을 기리기 위하여 조선 경종 2년(1722)에 명정된 정려(旌閭)¹이다.

이씨 형제는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성이 조정에게까지 알려져 조선 경종 2년(1722)에 정려를 세우도록 나라에서 명하였고 고종 15년(1878)에 이들이 살았던 충주시 살미면 신당리에 효자각이 건립되었다. 이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을 당하여 형제가 함께 3년간 시묘(侍墓)²하였다고 한다.

1983년에 충주댐 건설로 인하여 수몰되게 되자 후손들이 이곳으로 옮겨 세웠다.

건물은 정면 1칸, 측면 1칸의 겹처마 맞배지붕으로 사면을 홍살로 막았으며, 안에는 쌍효비가 세워져 있다. 둘레는 돌담장으로 두르고 정면에 솥을 대문을 두었다.

〈출처 및 참고문헌〉

- 문화재청 (www.cha.go.kr)
- 충주시청 (www.chungju.go.kr)

¹ 충신, 효자, 열녀 등을 그 동네에 정문(旌門)을 세워 표창하던 일

² 부모의 상을 당하여 성분한 다음, 그 서쪽에 여막을 짓고 상주가 3년 동안 사는 일

충주 미륵대원지 석조보살 의좌상

忠州 彌勒大院址 石造菩薩倚坐像

종 목 문화재자료 제47호

지 정 일 2005. 05. 06.

시 대 고려시대

소 재 지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사지길 150(미륵리)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245 → 미륵리 정류장 하차, 45개 정류장

자가차량 충주IC → 중부내륙고속도로
(17.0km) → 안보로(2.8km) → 미륵송계로
(8.2km)



개설 머리에 보관을 쓴것으로 보이며 관식¹은 어깨까지 내려온다. 목에는 삼도흔 보이며 왼손은 법의자락을 잡고 있고 오른손은 배부분에 댄것으로 보인다. 왼발은 수직으로 내렸으며 오른발은 왼발 종아리 뒤쪽에 대고 있다.

관석에 조각한 보살상으로 의자에 걸터앉아 사색에 잠겨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얼굴은 가름한 편으로 마모가 심하여 정확한 형상은 보이지 않으나 머리에는 보관을 썼으며 양쪽귀를 감싸고 어깨까지 관식이 드리워져있다. 보살의 목에는 세 겹의 주름살이 보이고 옷은 왼쪽 어깨에만 걸치고 오른쪽 가슴은 드러낸 모습으로 표현되었으며 삼국시대부터 많이 조성된 반가사유상과 비슷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마모가 심한데다 겉게 변색되어 있어 조각이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고려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될 뿐 원래의 위치와 용도는 분명하지 않다. 높이 95cm, 두께 50cm, 폭은 68cm이다.

〈출처 및 참고문헌〉

- 문화재청 (www.cha.go.kr)
- 충주시청 (www.chungju.go.kr)

¹ 관(冠)을 꾸미는 데 쓰던 물건

충주 문주리 석조여래좌상

忠州 文周里 石造如來坐像

종 목 문화재자료 제48호

지 정 일 2005. 05. 06.

시 대 고려시대

소 재 지 충주시 대소원면 팔봉로 359(문주리)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101 → 수주 정류장 하차, 23개 정류장

자기차량 충주IC → 성종두담길(3.2km)
→ 창현로(4.2km) → 팔봉로(3.2km)



개설 머리는 나발(螺髮)¹이며 육계는 표현되지 않았다. 얼굴에 비해 코는 크고 입은 작으며 눈은 반개한 모습이다. 양귀는 짧고 어깨는 다소 약간 위로 치켜진 모습이며 삼도가 표현되었다. 법의는 우견편단(右肩偏袒)²이며 수인은 항마인(降魔印)³을 결하고 있다. 대좌는 8각의 하대석과 중대석만 남아 있으며 불상 근처에 광배가 놓여 있다. 이 불상은 대좌와 광배를 갖추고 있는데 파손이 매우 심한 상태이다. 대좌는 안상과 연화문이 새겨진 하대석과 8각의 중대석이 남아있고, 상대석은 마당에 따로 보존되어 있다. 불상의 머리는 곱슬머리이고, 이마에는 백호공이 파여 있는데 대체로 얼굴부분의 조각이 정교하지는 못하다. 목에는 세 겹의 주름살이 보이고, 옷은 왼쪽 어깨에만 걸치고 오른쪽 어깨와 가슴은 드러내었다. 수인은 양 손을 무릎위에 올려놓는 항마촉지인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석가모니가 마군을 물리쳤을 때의 자세를 표현한 것이다. 광배는 두광과 신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모가 심하다. 대좌·석불·광배를 조성한 석질이 다르고 조각솜씨도 다른 것으로 보아 본래는 제각이 아니며, 대략 고려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및 참고문헌〉 • 문화재청 (www.cha.go.kr) • 충주시청 (www.chungju.go.kr)

1 불상 중 소라 모양으로 된 여래상의 머리카락

2 통견과 함께 부처가 가사를 입는 형식 중의 한 가지. 오른쪽 어깨는 가사를 벗어서 노출되고, 왼쪽 어깨에만 걸쳐 있는 형식을 말한다.

3 석가가 보리수아래에 앉아서, 악마를 항복시켜 성도하는 것을 형상화한 인상

충주 신흥사 석조나한상군

忠州 新興寺 石造羅漢像群

종 목 문화재자료 제50호

지 정 일 2005. 09. 16.

시 대 조선시대

소 재 지 충주시 엄정면 족동2길 197(신만리)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343, 344 → 족동 정류장 하차, 24개 정류장

자가차량 동충주IC → 충원대로(4.0km)
→ 내창로(1.2km) → 족동2길(1.9km)



개설 ‘나한’은 아라한의 줄임말로 수행에 정진하는 불제자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16나한, 500나한 등을 모신다. 신흥사에 전하는 나한은 일부인 4구만 전하는데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석조나한상군은 대웅보전 안에 근래에 만들어진 나한상과 함께 있다.

대리석재로 머리에 두건을 쓰고 손을 앞으로 모으고 있는데 형상은 4구가 제각기 다르다. 근래에 몸에 채색을 하여 원형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얼굴 모습이 소박한 특이한 상이다.

이 나한상들은 조선시대 초기의 작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원래 토제불상 1구와 석조나한상이 6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토제불상은 너무 훼손이 심하여 땅에 묻어버렸다고 하고, 북쪽 바위벽에 있었던 목이 결실된 2구의 석조나한상은 도난당했다고 한다. 이 석조나한상군은 충주 지역의 불교조각사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및 참고문헌〉

• 문화재청 (www.cha.go.kr)

충주 지당리 석조여래입상

忠州 智堂里 石造如來立像

종 목 문화재자료 제52호

지 정 일 2006. 03. 03.

시 대 조선시대

소 재 지 충주시 양성면 지당리 180(원불사)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364 → 삼당 정류장 하차, 53개 정류장

자가차량 동충주IC → 충원대로(0.4km)

→ 충원대로(1.4km) → 북부로(19.2km)



개설 머리는 소발에 육계¹는 표현되지 않았으며 얼굴은 풍만상이다. 입술은 두터우며 눈은 마멸이 심해 잘 알 수 없으나 일직선으로 보인다. 양손은 손바닥을 바깥으로 향하여 밑으로 내렸는데 왼손은 약지와 소지를 구부리고 있다. 목부분은 부수되었는데 삼도²가 확인되며 배면에는 특별한 장식이 없다. 조선시대 조성된 불상으로는 보기 드물게 2m가 넘는 대형의 석불로 양식적으로 정형적인 모습에서 퇴보하거나 형식화되어 자비와 엄숙함보다는 다소 친근함을 느끼게 하는 모습으로 당시 지방불상 양식의 일면을 고찰 할 수 있는 석불이다. 머리는 소발에 육계표현은 생략되었고 목부분이 보수되었지만 삼도흔이 확인되며 이 불상에 기도를 하면 아들을 낳는다고 하며 이곳은 불당, 마륵당, 산제당 등 3당이 있어 삼당리라 부른다고 한다.

〈출처 및 참고문헌〉

- 문화재청 (www.cha.go.kr)
- 충주시청 (www.chungju.go.kr)

¹ 부처의 정수리에 상투처럼 우뚝 솟아오른 혹과 같은 것

² 불상의 목에 가로로 표현된 세 줄기 주름

충주 강천리 석조여래입상

忠州 江泉里 石造如來立像

종 목 문화재자료 제53호

지 정 일 2006. 03. 03.

시 대 고려시대

소 재 지 충주시 양성면 강천리 산2-1

찾아가기 자가차량 감곡IC → 북부로(4.8km) →
삼당1길(2.6km) → 양암로(6.3km)



개설 원래는 야산에 방치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서음마을 뒤편에 시멘트로 기단을 만들고 그 위에 두었다. 서음마을 주변에는 기와편이 산재하고 있다. 석조여래입상은 불신이 네모난 평판석에 가까우며 옷주름의 조각이 소략한 상이다. 머리는 소발이며 오른쪽이 훼손되었으나 낮은 육계가 보인다. 미간에는 백호가 표현되었던 흔적이 남아 있다. 얼굴은 마모가 심하여 정확한 모습을 알 수 없으나, 둥근 눈과 작은 코를 볼 수 있다. 귀는 짧게 표현하였고 목은 시멘트로 보강하였다. 옷은 통견으로 가슴에서 V자형으로 깊게 파였으며 왼팔에 대의의 평행 옷주름이 보인다. 다리 부분은 약간 돌출되게 표현하였다. 오른손은 아래로 내려 손바닥을 밖으로 향하게 한 시무외인이고, 왼손은 가슴에서 장지와 엄지를 결한 정인을 취하였으나, 팔과 손은 몸체에 비하여 작게 표현되었다. 발목은 시멘트로 덮여 있어 파악할 수 없으며 뒷면은 아무런 표현이 없다.

이 석조입상은 불신이 평판석에 가까운 소략한 상으로 고려시대 지방 양식을 반영하고 있다.

〈출처 및 참고문헌〉

• 문화재청 (www.cha.go.kr)

충주 청룡사지 석종형승탑

忠州 靑龍寺址 石鍾形僧塔

종 목 문화재자료 제54호

지 정 일 2006. 03. 03.

시 대 조선시대

소 재 지 충주시 소태면 청룡사지길 147(오랑리)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354 → 오랑 정류장 하차, 52개 정류장

자기차량 동충주IC → 충원대로(9.8km)

→ 구룡고개길(2.3km) → 주지길(2.8km)



개설 이 부도는 조선시대에 유행하던 전형적인 석종형 부도로서 정사각형의 지대석 위에 2단의 하대석을 놓고 화강암의 탑신을 올려놓았다.

탑신 윗부분은 복발 모양으로 조성하여 정상부에 3단의 돌기부분을 조각하였고, 탑신의 전면부에 문자를 음각한 흔적이 보이는데, 마멸이 심하여 눈으로는 판독하기 어려우나 ‘고운당사리탑’으로 추정되고 있다.

비교적 대형에 속하는 부도 주변에는 장석을 방형으로 돌려놓아 탑구를 형성하였다.

〈출처 및 참고문헌〉

- 문화재청 (www.cha.go.kr)
- 충주시청 (www.chungju.go.kr)

충주 창룡사 다층청석탑

忠州 蒼龍寺 多層靑石塔

종 목 문화재자료 제56호

지 정 일 2006. 06. 30.

시 대 고려시대

소 재 지 충주시 고든골길 63-89(직동)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777 → 법원사거리 정류장 하차(4개 정류장) → **일반** 550 환승 → 직동삼거리 정류장 하차, 17개 정류장

자가차량 충주IC → 중원대로(5.9km) → 도장관주로(2.3km) → 직동길(1.9km)



개설 높이 35cm의 화강암 탑신석 위에 9층의 점판암제 옥개석¹이 올려져 있다. 평면 정사각형이며 초층 및 2층 옥개석 하면에는 연판문²이 장식되어 있으며 그 이상은 각형 층급받침을 새기고 있다. 충주 지역에서는 다른 예가 없으며 전국적으로도 몇 기 안되는 청석탑³으로 규모는 작으나 공예품과 같은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창룡사는 남산(금봉산) 중턱 기슭에 위치한 절로서 신라 문무왕(661~681)때 원효대사가 창건한 절이라고 전해지며 조선시대까지 두 차례에 걸쳐 중건되었다고 하며 1993년에 극락전을 지어 오늘에 이른다. 이 절의 앞마당에는 푸르스름한 빛이 나는 청석으로 만든 탑이 있는데 탑신은 없이 옥개석만 올려진 모습이다. 아래에서 2층까지의 부재 아래면에는 연꽃무늬가 새겨져 있으며 옥개받침은 모두 4단으로 되어있다. 옥개석 가운데에는 구멍이 뚫려있는데 이는 찰주구멍으로 보인다. 지금 현재 이 탑의 기단부는 청석 대신 화강암의 탑재로 받쳐지고 있으며 상륜부에는 복발⁴을 표현하기 위해 둥그런 돌 하나를 얹어 놓았다.

〈출처 및 참고문헌〉 • 문화재청 (www.cha.go.kr) • 충주시청 (www.chungju.go.kr)

1 석탑이나 석등 따위의 위에 지붕처럼 덮는 돌

2 펼쳐놓은 연꽃잎모양을 도안화한 무늬

3 검푸른 빛을 띠는 청석(점판암)으로 조성한 고려시대 석탑

4 탑(塔)의 노반(露盤) 위에, 바리때를 얹어놓은 것처럼 만든 부분

충주 이시진 효자각

忠州 李時振 孝子閣

종 목 문화재자료 제66호

지 정 일 2009. 05. 08.

시 대 조선시대

소 재 지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1길 149(대전리)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320 → 대전리 정류장 하차, 17개 정류장

자가차량 동충주IC → 충원대로(1.5km)
→ 대전리1길(1.5km)



개설 이시진(1578~1633)은 조선중기 때 효자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아주 슬퍼하여 전란(임진왜란)중에도 상복을 벗지 않았다. 또 어머니의 병환이 심해지자 손가락을 베어 피를 마시게 하여 소생케 하였으며 돌아가시자 3년간 시묘를 하여 몸이 야위어 거의 죽을 뻔하였다고 한다. 고을에 소문이 퍼져 사람들이 관찰사에게 보고하고 임금에게까지 알려져 선조 41년(1608) 정려를 명하여 세워진 효자문이다. ‘완산이시진지려 만력 무신춘 명정(完山李時振之閭 萬曆 戊申春 命旌)’이라 편액¹되어 있다.

남향으로 배치된 정려각의 규모는 정면1칸, 측면 1칸으로 구획하여 사면에 홍살²을 둘렀다. 기단은 자연석을 낮게 쌓았으며 그 위에 사각주 초석을 놓고 원형기둥을 세웠는데 공포는 만들지 않고 창방으로 결구된 주간에만 4개의 소로를 놓아 주심도리 장형을 받치고 있다. 가구는 양측 대량 상부에 제형대공을 설치하여 종도리를 받치도록 한 삼량집이며 겹처마 맞배지붕으로 단청을 하였다. 초석이나 기둥은 당시의 것으로 판단되며 기와는 보수하였다.

¹ 종이, 비단, 널빤지 따위에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써서 방 안이나 문 위에 걸어 놓는 액자

² 대문이나 중문 위에 만들어 댄 창살

『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340면에 유학(幼學) 이시진(李時振)에 대한 이야기가 「시진단지(時振斷指)」라 하여 그림과 함께 전하고 있다. 이시진(李時振; 1578~1633)은 본관이 전주(全州), 시호(諡號)는 충헌공(沖軒公), 자는 기부(起夫)이다. 이시진(李時振)의 지극한 효행에 감동한 온 마을 사람들이 연명³(連名)으로 글을 만들어 방백에게 전달하고 방백은 다시 임금님께 아뢰어서 선조(宣祖) 41년(1608) 봄 만력(萬曆) 무신(戊申) 춘(春)에 정려를 받아 효자문을 세워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그 효행은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7권 20면, 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 340면에 실려 있다.

『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는 1617년 유근이 편찬한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의 속편으로 18권 18책의 목판본으로 되어있다. 이 책은 72명의 충신과 효자, 열녀를 기리기 위해 쓰여 졌다. 편찬 동기는 임진왜란 이후 도의⁴가 문란해지자 국가에서 백성들의 도의를 회복하고자 펴낸 일종의 국민 윤리서이다.

〈출처 및 참고문헌〉

- 문화재청 (www.cha.go.kr)
- 충주시청 (www.chungju.go.kr)

³ 두 사람 이상의 이름을 한곳에 죽 잇따라 씀

⁴ 사람이 마땅히 지키고 행하여야 할 도덕적 의리

충주 수회록

忠州 壽會錄

종 목 문화재자료 제76호

지 정 일 2010. 07. 23.

시 대 조선시대

소 재 지 충주시 호암중앙1로 49(호암동)



개설 이 『수회록』은 현종 6년(1665)에 충청도 충주지역에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노인들이 조직한 유계(儒契)의 계원명단과 계원들이 쓴 시 및 활동내역을 수록한 1권1책의 필사본이다.

『수회록』에는 대략 1590년대를 전후하여 출생(出生)하였던 인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수록된 계회(契會)의 개최년도(開催年度)는 김정현(1591~1675)과 조옥(1595~?)이 을사년 정월십팔일(正月十八日)에 <칠십회통문(七十會通文)>을 출문¹(出文)한 간지²(干支)로 볼 때, 현종(顯宗) 6년(1665, 乙巳)년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 수회록(壽會錄)에는 대략 1590년대(年代)를 전후(前後)하여 출생(出生)한 인물(人物)들을 대상(對象)으로 하고 있다. 황산(黃山) 김유근(金迪根, 1785~1840)의 낙관이 찍혀있는 것으로 보아 그가 살았을 당시에 필사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야마즈미[山宇] 장서인³(藏書印)이 찍혀 있어 한 때 일본인이 소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표제(表題)는 수회록(壽會錄)으로 쓰여 있으며 표지는 붓글씨 연습에 사용했던 한지를 재사용하였는데 표지는 붓글씨 연습에 사용했던 한지를 재사용한

1 장부에 기록된 액수에서 지급한 금액

2 천간(天干)과 지지(地支). 십간(十干)과 십이지(十二支)

3 개인, 공공 단체, 문고 따위에서 간직하는 책에 찍어서 그 소유를 밝히는 도장

것으로 보인다. 결수는 5결이며 노끈을 사용하였다. 패선⁴폭은 2.2cm내외이며 자경은 1.2cm에서 1.5cm 정도이다. 분량은 64쪽이다. 첫머리에는 김정현(金鼎鉉), 조옥(趙沃)이 지은 통문이 나오고 다음에 기로회원 명단인 칠십회좌목(七十會座目)이 등장한다. 회원으로는 이시량(李時良), 안권(安權), 유영희(柳永禧), 정훈(鄭薰), 정시태(鄭時泰), 김정현(金鼎鉉), 충릉정(忠陵正), 윤형계(尹衡啓), 박(朴)겸, 조옥(趙沃), 한구(韓述), 윤여징(尹汝徵), 이(李)?, 정은(鄭蘊), 김이(金怡), 김익기(金益基), 김기곤(金起坤), 김응해(金應海) 등 총 18명의 자, 출생갑자, 본관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음 김응해(金應海)와 정태제(鄭泰齊)가 쓴 축시 서문과 송시열(宋時烈)의 발문(跋文), 기로회원들의 축시(祝詩), 남구만(南九萬)의 발문으로 끝맺고 있다.

기로회⁵(耆老會)는 고려 때 치사(致仕)한 선비들의 친목단체로 시작하여 그 모형을 고려 무신집권기 때 산림에 은둔한 문인이 죽림고회(竹林高會)를 이루어 친목 및 문학활동을 한 모임이었다. 이 「충주 수회록(忠州 壽會錄)」은 우암 송시열(尤庵 宋時烈)과 약천 남구만(藥泉 南九萬)의 발문(跋文)을 받은 점을 미루어 보아 기로좌목(耆老座目)의 문학적·학문적 명성을 짐작할 수 있는 학술적 가치가 충분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충주지역에 거주한 기노들의 명단과 그들의 활동 내역이 있어 사림문학(士林文學)의 배경을 연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출처 및 참고문헌〉

- 문화재청 (www.cha.go.kr)

⁴ 가로세로로 그은 선

⁵ 고려시대 나이가 많아 벼슬에서 물러난 선비들이 만든 모임

충주 고불선원 소조여래좌상

忠州 古佛禪院 塑造如來坐像

종 목 문화재자료 제78호

지 정 일 2010. 11. 05.

소 재 지 충주시 신니면 선당길 147(선당리)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157 → 선당마을 정류장 하차, 30개 정류장

자가차량 충주IC → 중원대로(8.6km) →
신덕로(2.0km) → 선당길(1.5km)



개설 신니면 선당리 고불선원(古佛禪院)에 단독으로 모셔져 있는 이 불상은 소조불(塑造佛)로서 양손을 일부 보수한 것을 제외하면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인데 얼굴에 철분을 칠하였다.

상호는 몸에 비하여 크게 표현하여 비례가 잘 맞지 않는 느낌이다. 얼굴은 네모진 모습이며 통통하게 살이 오르고 머리카락은 나발(螺髮)에 계주¹(髻珠)를 표현하였다. 이마에는 백호가 표현되었는데 보주는 최근에 삽입하였다고 한다. 몸통은 얼굴에 비하여 작게 표현되었는데 손가락 부분은 보수된 관계로 정확한 수인을 알 수 없으나 왼손은 손바닥을 하늘을 향해 왼쪽 무릎에 붙였으며 오른손은 축지인을 하고 있는 형상이다. 법의는 통견(通肩)으로 양어깨를 모두 덮고 있으며 대의 자락이 'U'자 형으로 대칭되게 흘러내려 장식적이다.

전체적으로 작은 체구에 옷주름을 두텁게 표현한 이 불상은 옷주름 양식을 보았을 때 고려시대 또는 18세기 것 중 하나로 보인다.

〈출처 및 참고문헌〉

- 문화재청 (www.cha.go.kr)

¹ 부처의 상투 가운데 있는 보배 구슬로 머리와 육계(肉髻) 사이에 구슬 모양으로 표현

충주 석보군 묘소

忠州 石保君 墓所

종 목 문화재자료 제84호

지 정 일 2011. 03. 04.

시 대 조선시대

소 재 지 충주시 소태면 다래울2길 20(양촌리)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354 → 선창 정류장 하차, 26개 정류장

자가차량 동충주IC → 충원대로(1.7km)

→ 구룡로(6.4km) → 소태로(1.0km)



개설 석보군(石保君, 이복생(李福生)) 묘(墓)는 세종 29년(1447) 경기도 양주군 미아리에 조성하였으나 시가지 확장으로 인하여 1958년 2월25일 충주시 소태면 양촌리 산46번지로 이장하였다.

고종 9년(1872)에 제작된 장명등¹(長明燈)과 묘표²(墓表)를 함께 이전하였다.

묘역 입구에 신도비(神道碑)가 있으며 석비(石碑)(2점), 망주석(望柱石), 혼유석(魂遊石), 상석(床石), 향로석(香爐石), 장명등(長明燈)(2점), 동자석³(童子石), 문인석(文人石), 양석(羊石) 등을 갖추고 있다. 묘표(墓表) 음기에 “송정후오임신 구월 일개립(崇禎後五壬申 九月 日改立)”이라는 기록이 있어 이 비의 건립이 고종 9년(1872) 9월임을 알 수 있다.

신도비는 1990년에 세웠으며 귀부와 이수를 갖추고 있다. 묘비(墓碑) 1점은 1964년(가침석⁴을 갖추)에 건립한 것이다. 장명등 1점을 제외한 기타 석물은 1990년경 묘소정화사업을 시행하면서 건립한 것으로 보인다.

1 분묘 앞에 불을 밝힐 수 있도록 돌로 만들어 세운 네모진 등

2 무덤 앞에 세우는 꽃돌

3 돌난간의 기둥 사이에 죽석(竹石)을 받치는 돌

4 성돌이나 빗돌 위에 덮여 었는 지붕 모양으로 된 돌

봉분은 높이 약 160cm에 직경 450cm이며 호석(護石)(95cm×79cm) 12매를 둘렀는데 그 안에 12지상을 양각하였다. 학성군 부인(鶴城君 夫人) 원주(原州) 김씨(金氏)와 합장하였다.

석보군(石保君) 이복생(李福生; 1399~1447)은 조선시대 정종의 9남으로 어머니는 숙의 해평윤씨(淑儀 海平尹氏)이다. 호는 검묵당(儉默堂), 시호는 정혜(靖惠)다. 명선대부에 이르고 석보군 겸 영종정경부사로 추봉됐다. 그는 효성과 우애가 돈독했으며, 학문에 통달하여 대문장이라 일컬었다.

석보군은 형 수도군과 함께 따라가 부왕을 정성껏 봉양했다. 그는 검묵(儉默)을 생활신조로 삼았다. 당시 사람들은 그를 검묵공자라고 일컬었다. 그래서 그의 당호도 검묵(儉默)이다.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경기도 양주군에서 현 위치로 이장한 까닭에 석물은 쉽게 옮길 수 있는 비석과 장명등만을 이장하였으나 왕자의 무덤으로 갖추어야 할 석물은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역사적으로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조선시대 왕실의 매장풍습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출처 및 참고문헌〉

- 문화재청 (www.cha.go.kr)

충주 봉불사 석조약사여래입상

忠州 奉佛寺 石造藥師如來立像

종 목 문화재자료 제88호

지 정 일 2012. 10. 12.

시 대 조선시대

소 재 지 충주시 수안보면 탐골1길 74(온천리)

찾아가기 **시외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시외**
수안보시외버스터미널 → 봉불사까지 도보
이동(1.2km)

자가차량 괴산IC → 미선로(1.7km) →
안보로(2.8km) → 주정산로(2.1km)



개설 봉불사 석조약사여래입상은 머리 부분이 몸에 비해 큰 편으로 높은 육계가 있고, 나발의 표현이 희미하다. 얼굴은 거의 마멸되어 윤곽만 보이고 법의는 통견(通肩)으로 가슴 앞이 U형으로 길게 벌어졌으며, 옷주름은 측면에서만 조금 확인된다. 수인은 오른손은 아래로 내리고 왼손은 배에 대어 약합(藥盒)을 들고 있어서 약사상의 특징을 보인다.

전체적으로 상의 파손과 마모가 심하며 또한 세부적인 표현도 거칠어서 민간에서 조성된 불상의 형태를 보인다.

조성시기도 구체적으로 판명하기 어려운상이나 인근에 작은 석탑이 전하고, 또한 마을 입구에는 비교적 규모가 큰 석탑이 전하는 것으로 보아 인근에 사지가 있었고 이곳에서 조성했던 불상으로 추정된다.

〈출처 및 참고문헌〉

• 문화재청 (www.cha.go.kr)

구 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

舊 朝鮮殖産銀行 忠州支店

종 목 등록문화재 제683호

지 정 일 2017. 05. 29.

시 대 일제강점기

소 재 지 충주시 관아4길 14(성내동)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172 → 국민은행 정류장 하차, 7개 정류장

자전거량 충주IC → 중부내륙고속도로
(0.9km) → 종원대로(8.3km) → 중앙로
(1.0km)



개설 1906년 7월 내륙지방 관찰부소재지에 본점을 두는 지방은행으로 충주농공은행이 설립되었다. 충주농공은행은 탁지부령에 따라 1907년 6월 한성, 공주, 충주의 3개 농공은행이 통폐합하여 주식회사 한호농공은행 충주지점으로 재출발하였다.

1908년 6월, 충청북도 관찰부가 충주에서 청주로 이전함에 따라 같은 해 9월에는 출장소로 격하되었다. 병탄이후 일본인들의 이주증가와 함께 자금수요가 증가하면서 1912년 8월부터 영업소 신축에 착수하여 11월에 현 위치에 완공되었다.

1918년에 일제는 농공은행이 경영파탄에 직면하자 6개 농공은행을 합병하여 식민지 산업금융기관으로 조선식산은행을 설립. 한호농공은행 충주지점은 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으로 명칭 변경되었다.

1933년 12월 현재의 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을 신축하여 해방 후 조선상호은행 충주지점, 한국상공은행 충주지점, 한국흥업은행 충주지점, 한일은행충주지점 건물로 쓰이다가 민간에 불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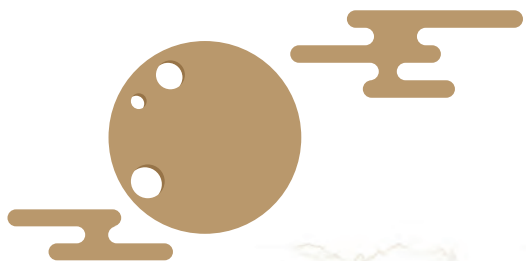
양식 및 주요 특징 1930년대에 각 지역에 세워진 금융기관의 전형인 목골조¹ 스투코(회반죽) 마감의 본관 건물과 사택에 해당되는 별관 건물(일본식 목조주택)이 이어져 있는 배치형태를 하고 있으며, 지붕은 만사르 지붕으로 지역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식민지배의 권위를 내세우는 모습을 하고 있다. 아르데코² 분위기의 장식과 수직으로 긴 창을 설치하여 1930년대에 도입되기 시작한 모더니즘의 일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출처 및 참고문헌〉

• 문화재청 (www.cha.go.kr)

¹ 동물의 뼈가 서로 맞물리듯 자재의 이음을 짜맞춰 건물을 짓는 건축양식

² 유연하면서 유동적인 기능이 높은 것을 동양적인 신비로운 색과 무늬를 넣어 이국적으로 처리한 것



Ⅲ. 문화재 현황표



Ⅲ. 문화재 현황표

연번	종목	명칭	명칭(한자)	지정일	분류	쪽
1	국보 제6호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忠州 塔坪里 七層石塔	1962-12-20	유적건조물/ 종교신앙/불교/탑	16
2	국보 제197호	충주 청룡사지 보각국사탑	忠州 靑龍寺址 普覺國師塔	1979-05-22	유적건조물/ 종교신앙/불교/탑	19
3	국보 제205호	충주 고구려비	忠州 高句麗碑	1981-03-18	기록유산/서각류/ 금석각류/비	21
4	보물 제16호	충주 억정사지 대지국사탑비	忠州 億政寺址 大智國師塔碑	1963-01-21	기록유산/서각류/ 금석각류/비	25
5	보물 제17호	충주 정토사지 법鏡대사탑비	忠州 淨土寺址 法鏡大師塔碑	1963-01-21	기록유산/서각류/ 금석각류/비	27
6	보물 제95호	충주 미륵리 오층석탑	忠州 彌勒里 五層石塔	1963-01-21	유적건조물/ 종교신앙/불교/탑	28
7	보물 제96호	충주 미륵리 석조여래입상	忠州 彌勒里 石造如來立像	1963-01-21	유물/불교조각/ 석조/불상	30
8	보물 제98호	충주 철조여래좌상	忠州 鐵造如來坐像	1963-01-21	유물/불교조각/ 금속조/불상	32
9	보물 제512호	충주 단호사 철조여래좌상	忠州 丹湖寺 鐵造如來坐像	1969-07-18	유물/불교조각/ 금속조/불상	34
10	보물 제656호	충주 청룡사지 보각국사탑 앞 사자석등	忠州 靑龍寺址 普覺國師塔 앞 獅子石燈	1979-05-22	유적건조물/ 종교신앙/불교/석등	36
11	보물 제658호	충주 청룡사지 보각국사탑비	忠州 靑龍寺址 普覺國師塔碑	1979-05-22	기록유산/서각류/ 금석각류/비	38
12	보물 제700-2호	선림보훈	禪林寶訓	2017-10-31	기록유산/전적류/ 목판본	39
13	보물 제1401호	충주 봉황리 마애불상군	忠州 鳳凰里 磨崖佛像群	2004-03-03	유물/불교조각/ 석조/불상	40
14	보물 제1527호	충주 백운암 철조여래좌상	忠州 白雲庵 鐵造如來坐像	2007-10-24	유물/불교조각/ 금속조/불상	42
15	사적 제189호	충주 임충민공 충렬사	忠州 林忠愍公 忠烈祠	1969-11-21	유적건조물/인물사건/ 인물기념/사우	44
16	사적 제317호	충주 미륵대원지	忠州 彌勒大院址	1987-07-18	유적건조물/ 종교신앙/불교/사찰	45
17	사적 제400호	충주 장미산성	忠州 薔薇山城	1997-11-11	유적건조물/ 정치국방/성/성곽	47
18	사적 제445호	충주 송선사지	忠州 崇善寺址	2003-04-25	유적건조물/ 종교신앙/불교/사찰	49



연번	종목	명칭	명칭(한자)	지정일	분류	쪽
19	사적 제463호	충주 누암리 고분군	忠州 樓岩里 古墳群	2005-03-25	유적건조물/ 무덤/무덤/고분군	52
20	명승 제42호	충주 탄금대	忠州 彈琴臺	2008-07-09	자연유산/명승/ 역사문화명승	55
21	명승 제49호	충주 계립경로 하늘재	忠州 鷄立嶺路 하늘재	2008-12-26	자연유산/명승/ 역사문화명승	57
22	국가무형문화재 제76호	택견	택견	1983-06-01	무형문화재/ 전통 놀이·무예/무예	59
23	국기민속문화재 제135호	충주 윤양계 고택	忠州 尹養桂 古宅	1984-01-14	유적건조물/주거생활/ 주거건축/가옥	66
24	국기민속문화재 제246호	이응해장군 묘 출토복식	李應海將軍 墓 出土服飾	2006-09-15	유물/생활공예/ 복식공예/의복	68
25	시도유형문화재 제6호	충주 경종 태실	忠州 景宗 胎室	1975-08-20	유적건조물/무덤/ 왕실무덤/조선시대	72
26	시도유형문화재 제8호	충주 창동리 오층석탑	忠州 創洞里 五層石塔	1975-08-20	유적건조물/ 종교신앙/불교/탑	74
27	시도유형문화재 제18호	충주 원평리 석조여래입상	忠州 院坪里 石造如來立像	1976-12-21	유물/불교조각/ 석조/불상	75
28	시도유형문화재 제19호	충주 미륵대원지 석등	忠州 彌勒大院址 石燈	1976-12-21	유적건조물/ 종교신앙/불교/석등	77
29	시도유형문화재 제33호	충주 미륵대원지 삼층석탑	忠州 彌勒大院址 三層石塔	1976-12-21	유적건조물/ 종교신앙/불교/탑	78
30	시도유형문화재 제57호	충주 향교	忠州 鄕校	1980-01-09	유적건조물/교육문화/ 교육기관/향교	79
31	시도유형문화재 제63호	충주 이상급 신도비	忠州 李尙級 神道碑	1980-01-09	기록유산/서각류/ 금석각류/비	80
32	시도유형문화재 제66호	충주 청녕헌	忠州 淸寧軒	1980-11-13	유적건조물/정치국방/ 궁궐·관아/관아	81
33	시도유형문화재 제67호	충주 제금당	忠州 製錦堂	1980-11-13	유적건조물/정치국방/ 궁궐·관아/관아	83
34	시도유형문화재 제68호	충주 축성사적비	忠州 築城事蹟碑	1980-11-13	기록유산/서각류/ 금석각류/비	84
35	시도유형문화재 제69호	충주 단호사 삼층석탑	忠州 丹湖寺 三層石塔	1980-11-13	유적건조물/ 종교신앙/불교/탑	85
36	시도유형문화재 제76호	충주 창동리 마애여래상	忠州 倉洞里 磨崖如來像	1980-11-13	유물/불교조각/ 석조/불상	87

연번	종목	명칭	명칭(한자)	지정일	분류	쪽
37	시도유형문화재 제87호	충주 최응성 고가	忠州 崔應聖 古家	1981-05-01	유적건조물/주거생활/ 주거건축/가옥	89
38	시도유형문화재 제137호	삼탄집	三灘集	1984-12-31	기록유산/전적류/ 목판본/사간본	91
39	시도유형문화재 제144호	충주 오갑사지 석조여래좌상	忠州 烏岬寺址 石造如來坐像	1984-12-31	유물/불교조각/ 석조/불상	93
40	시도유형문화재 제178호	이수일 진무공신교서 및 초상	李守一 振武功臣敎書 및 肖像	1995-06-30	기록유산/문서류/ 국왕문서/교령류	94
41	시도유형문화재 제179호	임경업 초상	林慶業 肖像	1995-06-30	유물/일반회화/ 인물화/초상화	97
42	시도유형문화재 제184호	유백증 초상	俞伯曾 肖像	1995-06-30	유물/일반회화/ 인물화/초상화	99
43	시도유형문화재 제201호	허한·허적 초상	許憫·許積 肖像	2000-10-27	유물/일반회화/ 인물화/초상화	102
44	시도유형문화재 제205호	충주 이수일 신도비	忠州 李守一 神道碑	2001-03-30	기록유산/서각류/ 금석각류/비	104
45	시도유형문화재 제224호	불설대보부모은중경	佛說大報父母恩重經	2003-05-09	기록유산/전적류/ 목판본/왕실본	105
46	시도유형문화재 제225호	충주 추평리 삼층석탑	忠州 楸坪里 三層石塔	2003-06-13	유적건조물/ 종교신앙/불교/탑	107
47	시도유형문화재 제235호	충주 원평리 삼층석탑	忠州 院坪里 三層石塔	2004-04-02	유적건조물/ 종교신앙/불교/탑	108
48	시도유형문화재 제242호	충주 청룡사 위전비	忠州 靑龍寺 位田碑	2004-09-27	기록유산/서각류/ 금석각류/비	110
49	시도유형문화재 제265호	불설사십이장경	佛說四十二章經	2005-01-07	기록유산	111
50	시도유형문화재 제266호	인천안목 권상	人天眼目 卷上	2005-01-07	기록유산/전적류/ 목판본/사찰본	112
51	시도유형문화재 제267호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7~10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卷七~十	2005-01-07	기록유산/전적류/ 목판본/사찰본	113
52	시도유형문화재 제268호	유백증 정사공신교서	俞伯曾 靖社功臣敎書	2005-05-06	기록유산/문서류/ 관부문서/증빙류	114
53	시도유형문화재 제269호	충주 미륵대원지 석조귀부	忠州 彌勒大院址 石造龜趺	2005-05-06	유적건조물/ 종교신앙/불교/기타	115
54	시도유형문화재 제271호	충주 창동리 석조약사여래입상	忠州 倉洞里 石造藥師如來立像	2006-03-03	유물/불교조각/ 석조/불상	116



연번	종목	명칭	명칭(한자)	지정일	분류	쪽
55	시도유형문화재 제272호	충주 충렬사비	忠州 忠烈祠碑	2006-10-04	기록유산/서각류/ 금석각류/비	118
56	시도유형문화재 제275-2호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2009-09-11	기록유산/전적류/ 목판본/사찰본	119
57	시도유형문화재 제300호	임경업 추련도	林慶業 秋蓮刀	2009-04-10	유물/생활공예/ 금속공예/무구	121
58	시도유형문화재 제311호	충주 용화사 석조여래입상	忠州 龍華寺 石造如來立像	2009-12-04	유물/불교조각/ 석조/불상	123
59	시도유형문화재 제315호	충주 미륵대원지 사각석등	忠州 彌勒大院址 四角石燈	2010-04-30	유적건조물/ 종교산양/불교/석등	125
60	시도유형문화재 제351호	충주 혜원정사 석불좌상 및 복장유물	忠州 慧圓精舍 石佛坐像 및 腹藏遺物	2013-11-08	유물/불교조각/ 석조/불상	127
61	시도유형문화재 제357호	묘법연화경 권1	妙法蓮華經 卷一	2014-03-07	기록유산/전적류/ 목판본/사찰본	130
62	시도유형문화재 제358호	묘법연화경 권1	妙法蓮華經 卷一	2014-03-07	기록유산/전적류/ 목판본/사찰본	130
63	시도유형문화재 제362호	심헌담요해	十玄談要解	2015-05-05	기록유산/전적류/ 활자본/금속활자본	131
64	시도유형문화재 제363호	지리신법	地理新法	2015-06-05	기록유산/전적류/ 활자본/금속활자본	133
65	시도유형문화재 제2호	충주 청명주	忠州 淸明酒	1993-06-04	무형유산/음식제조/ 민가음식/향토술빚기	135
66	시도유형문화재 제10호	사기장	沙器匠	2013-04-05	무형유산/공예기술/ 도자공예/도자공예	136
67	시도유형문화재 제13호	야장(삼화대장간)	冶匠	2003-10-24	무형유산/공예기술/ 금속공예/금속공예	137
68	시도유형문화재 제23호	대목장	大木匠	2011-04-29	형유산/건축기술/ 목재건축/목재건축	138
69	시도유형문화재 제24호	주물유기장	鑄物鑄器匠	2011-08-18	무형유산/공예기술/ 금속공예/금속공예	139
70	시도기념물 제21호	충주 이수일 묘소	忠州 李守一 墓所	1978-02-22	유적건조물/ 무덤/봉토묘	140
71	시도기념물 제27호	충주 박팽년 사당	忠州 朴彭年 祠堂	1978-10-27	유적건조물/인물사건/ 인물기념/사우	141
72	시도기념물 제31호	충주 남산성	忠州 南山城	1980-01-09	유적건조물/ 정치국방/성/성곽	143

연번	종목	명칭	명칭(한자)	지정일	분류	쪽
73	시도기념물 제67호	충주 임경업 묘소	忠州 林慶業 墓所	1984-12-31	유적건조물/무덤/기타	145
74	시도기념물 제81호	충주 문주리 요지	忠州 文周里 窯址	1988-09-30	유적건조물/산업생산/요업/기와가마	146
75	시도기념물 제100호	충주 미륵리 요지	忠州 彌勒里 窯址	1994-12-30	유적건조물/산업생산/요업/도자기가마	147
76	시도기념물 제110호	충주 대림산성	忠州 大林山城	1999-12-31	유적건조물/정치국방/성/성곽	148
77	시도기념물 제113호	충주 주정산 봉수	忠州 周井山 烽燧	2000-09-15	유적건조물/교통통신/통신/봉수	150
78	시도기념물 제114호	충주 김생사지	忠州 金生寺址	2000-12-22	유적건조물/종교신앙/불교/사찰	151
79	시도기념물 제119호	충주 조동리 고인돌	忠州 早洞里 支石墓	2001-09-14	유적건조물/무덤/지석묘	152
80	시도기념물 제126호	충주 조동리 유적	忠州 早洞里 遺蹟	2002-10-25	유적건조물/유물산포지/유적분포지	153
81	시도기념물 제129호	충주 팔봉서원	忠州 八峰書院	2003-06-13	유적건조물/교육문화/교육기관/서원	156
82	시도기념물 제133호	충주 신청리 고인돌	忠州 新淸里 支石墓	2004-11-26	유적건조물/무덤/지석묘	157
83	시도기념물 제136호	충주 부흥사 방단적석유구	忠州 富興寺 方壇積石遺構	2005-10-21	유적건조물/종교신앙/불교/탑	158
84	시도기념물 제137호	충주 견학리 토성	忠州 見鶴里 土城	2006-01-06	유적건조물/정치국방/성/성곽	159
85	시도기념물 제140호	충주 우천석·우평 묘소	忠州 禹天錫·禹倅 墓所	2007-03-09	유적건조물/무덤/봉토묘	161
86	시도기념물 제149호	충주 이시진 묘소	忠州 李時振 墓所	2010-12-10	유적건조물/무덤/봉토묘	163
87	시도기념물 제153호	충주 양능길·양여공 묘소	忠州 梁能吉·梁汝恭 墓所	2012-01-06	유적건조물/무덤	166
88	시도기념물 제165호	충주 김세렴 묘소	忠州 金世濂 墓所	2017-08-04	유적건조물/무덤/봉토묘	167
89	문화재자료 제19호	충주 영모사	忠州 永慕祠	1998-01-09	유적건조물/인물사건/인물기념/사우	168



연번	종목	명칭	명칭(한자)	지정일	분류	쪽
90	문화재자료 제43호	충주 송선사지 당간지주	忠州 崇善寺址 幢竿支柱	2004-09-17	유적건조물/ 종교신앙/불교/당간	169
91	문화재자료 제46호	충주 연안이씨 쌍효각	忠州 延安李氏 雙孝閣	2005-03-11	유적건조물/종교신앙/ 제사유적/산신당	170
92	문화재자료 제47호	충주 미륵대원지 석조보살의좌상	忠州 彌勒大院址 石造菩薩倚坐像	2005-05-06	유물/불교조각/ 석조/보살상	171
93	문화재자료 제48호	충주 문주리 석조여래좌상	忠州 文周里 石造如來坐像	2005-05-06	유물/불교조각/ 석조/불상	172
94	문화재자료 제50호	충주 신흥사 석조나한상군	忠州 新興寺 石造羅漢像群	2005-09-16	유물/불교조각/ 석조/불상	173
95	문화재자료 제52호	충주 지당리 석조여래입상	忠州 智堂里 石造如來立像	2006-03-03	유물/불교조각/ 석조/불상	174
96	문화재자료 제53호	충주 강천리 석조여래입상	忠州 江泉里 石造如來立像	2006-03-03	유물/불교조각/ 석조/불상	175
97	문화재자료 제54호	충주 청룡사지 석종형승탑	忠州 靑龍寺址 石鍾形僧塔	2006-03-03	유적건조물/ 종교신앙/불교/탑	176
98	문화재자료 제56호	충주 창룡사 다층청석탑	忠州 蒼龍寺 多層靑石塔	2006-06-30	유적건조물/ 종교신앙/불교/탑	177
99	문화재자료 제66호	충주 이시진 효자각	忠州 李時振 孝子閣	2009-05-08	유적건조물/인물사건/ 인물기념/사우	178
100	문화재자료 제69호	임경업 초상	林慶業 肖像	2009-12-04	유물/일반회화/ 인물화/초상화	97
101	문화재자료 제76호	충주 수회록	忠州 壽會錄	2010-07-23	기록유산/전적류/ 필사본/사본류	180
102	문화재자료 제78호	충주 고불선원 소조여래좌상	忠州 古佛禪院 塑造如來坐像	2010-11-05	유물/불교조각/ 소조/불상	182
103	문화재자료 제84호	충주 석보군 묘소	忠州 石保君 墓所	2011-03-04	유적건조물/ 무덤/봉토묘	183
104	문화재자료 제88호	충주 봉불사 석조약사여래입상	忠州 奉佛寺 石造藥師如來立像	2012-10-12	유물/불교조각/ 석조/불상	185
105	등록문화재 제683호	구 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	舊 朝鮮殖産銀行 忠州支店	2017-05-29	등록문화재	1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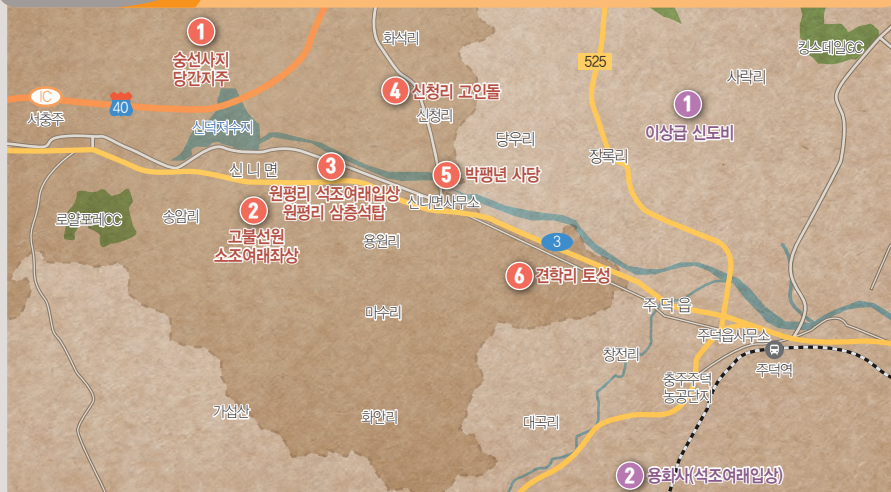


The background of the slide is a detailed, light-brown map of Chungcheong Province (충청도) in South Korea. The map shows the province's geographical features, including the Han River (한강) flowing through the center, the Taebaek Mountains (태백산맥) to the north, and the surrounding sea. The text is overlaid on the right side of the map.

IV. 충주의 지역별 지도와 답사코스 소개



① 신니면 ① 주덕읍



① 대소원면 ① 풍동 ① 살미면



행정구역별
문화재 및 관광지

면별 지도

① 수안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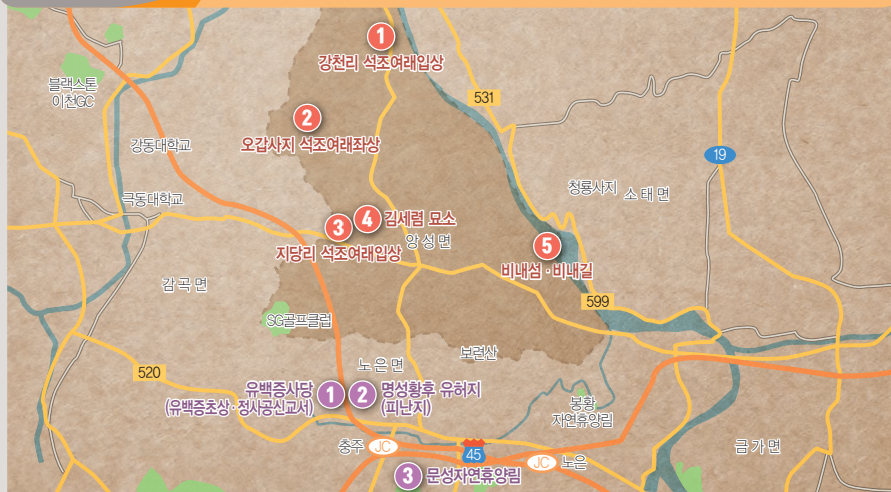
행정구역별
문화재 및 관광지

면별 지도

① 중앙탑면 ① 금가면



① 양성면 ① 노은면



① 소태면 ① 업정면



1박2일
코스

충주가 처음이라면! 1박2일 추천 여행



- 코스** 1일 충주박물관 · 중앙탑사적공원 → 누암리고분군 → 고구려비전시관 → 봉황리마애불상군 → 고구려천문과학관 2일 탄금대 → 충주세계무술박물관 → 국립충원문화재연구소 → 관아공원 → 충주향교
- 관람시간** 1일 충주박물관 · 중앙탑사적공원(2시간30분) → 누암리고분군(30분) → 고구려비전시관(30분) → 봉황리마애불상군(30분) → 고구려천문과학관(1시간) 2일 탄금대(1시간) → 충주세계무술박물관(40분) → 국립충원문화재연구소(1시간) → 관아공원(30분) → 충주향교(30분)
- 이동시간 (자동차)** 1일 충주박물관 · 중앙탑사적공원 → 누암리고분군(5분) → 고구려비전시관(5분) → 봉황리마애불상군(10분) → 고구려천문과학관(10분) 2일 탄금대 → 충주세계무술박물관(5분) → 국립충원문화재연구소(도보5분) → 관아공원(20분) → 충주향교(5분)

※ 관람시간 및 이동시간은 도로 사정 및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나절 코스

충주의 국보를 찾아 떠나는 여행



코스 청룡사지 → 고구려비전시관 → 중앙탑사적공원(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 국립충원문화재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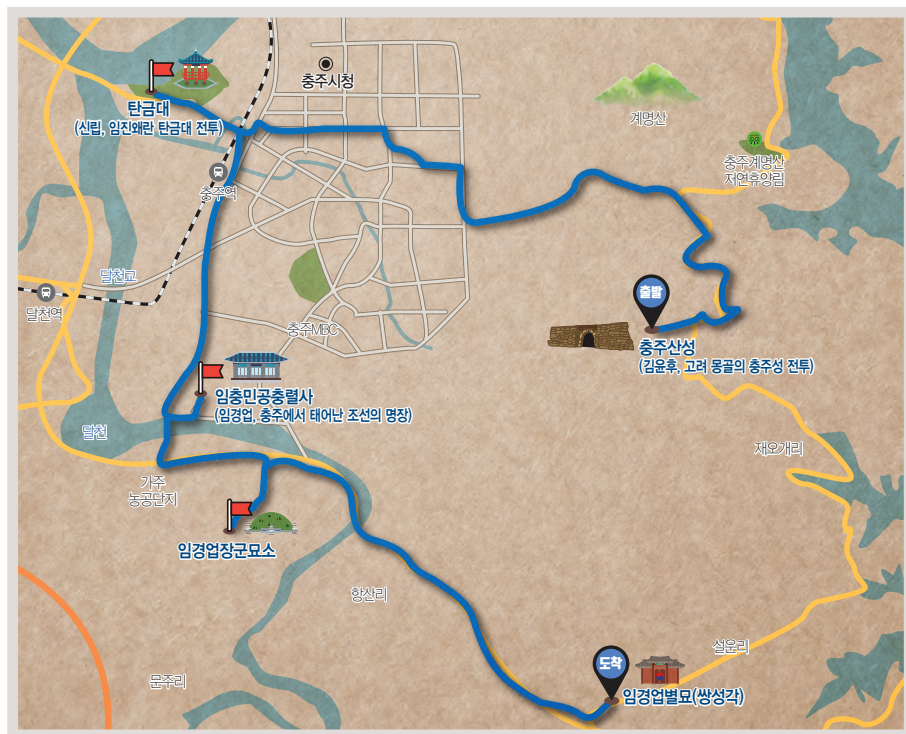
관람시간 청룡사지(50분) → 고구려비전시관(30분) → 중앙탑사적공원(40분) → 국립충원문화재연구소 전시실 및 어린이발굴체험장(1시간 20분)

이동시간 (자동차) 청룡사지 → 고구려비전시관(30분) → 중앙탑사적공원(8분) → 국립충원문화재연구소(15분)

※ 관람시간 및 이동시간은 도로 사정 및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 코스

충주의 명장, 김윤후·신립·임경업 장군의 흔적을 따라 떠나는 여행



코스 충주산성 → 탄금대 → 임충민공총렬사 → 임경업장군묘소 → 임경업별묘

관람시간 충주산성(2시간) → 탄금대(1시간) → 임충민공총렬사(30분) → 임경업장군묘소(20분) → 임경업별묘(20분)

이동시간 (자동차) 충주산성 → 탄금대(30분) → 임충민공총렬사(15분) → 임경업장군묘소(10분) → 임경업별묘(20분)

※ 관람시간 및 이동시간은 도로 사정 및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 또는
이틀
코스

어린이 체험 추천 코스!



코스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어린이발굴체험장 → 자연생태체험관 → 목계나루 강배체험관 → 탄금호국제조정경기장 → 고구려천문과학관

관람시간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어린이발굴체험장(1시간 20분) → 자연생태체험관(1시간 20분) → 목계나루 강배체험관(1시간) → 탄금호국제조정경기장(2시간) → 고구려천문과학관(1시간 30분)

이동시간 (자동차)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 자연생태체험관(15분) → 목계나루 강배체험관(25분) → 탄금호국제조정경기장(20분) → 고구려천문과학관(8분)

※ 관람시간 및 이동시간은 도로 사정 및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 코스

양성면 · 노은면 걷기 좋은 곳



코스 비내섬과 비내길 → 명성황후 유해지(피난지) → 지당리 석조여래입상 → 오갑사지 석조여래좌상
→ 강천리 석조여래입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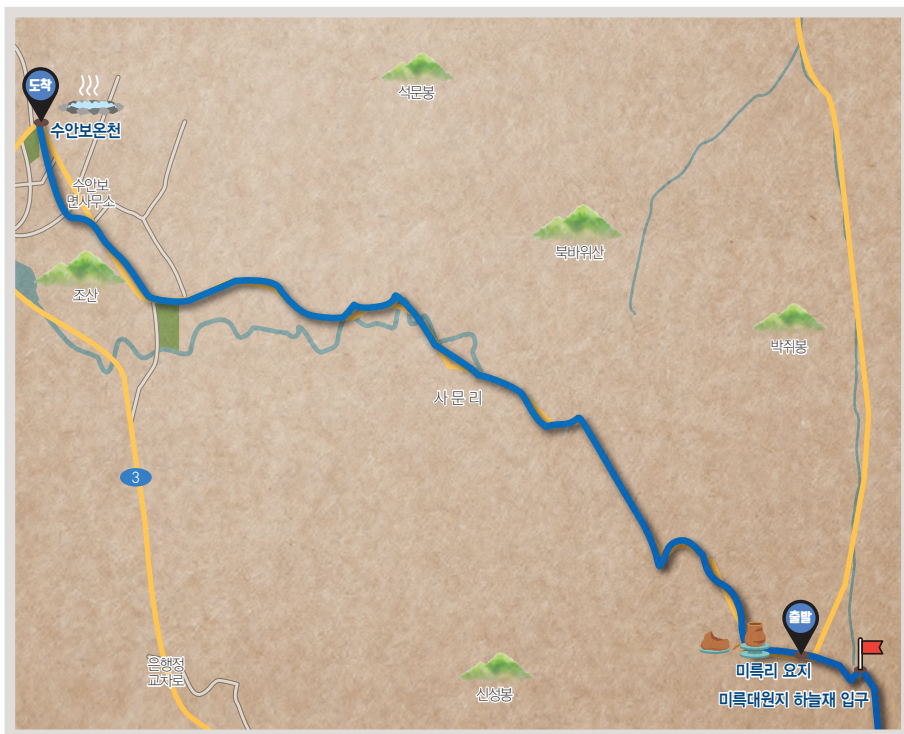
관람시간 비내섬과 비내길 트레킹(3시간) → 명성황후 유해지(30분) → 지당리 석조여래입상(15분) → 오갑사지 석조여래좌상(15분) → 강천리 석조여래입상(15분)

이동시간 (자동차) 비내길 → 명성황후 유해지(35분) → 지당리 석조여래입상(15분) → 오갑사지 석조여래좌상(20분) → 강천리 석조여래입상(10분)

※ 관람시간 및 이동시간은 도로 사정 및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 코스

수안보, 문화유산도 보고! 온천에서의 하룻밤!



코스 미륵리 요지 → 미륵대원지 → 하늘재 트래킹 → 수안보온천

관람시간 미륵리 요지(30분) → 미륵대원지(40분) → 하늘재 트래킹(2시간30분) → 수안보온천

이동시간 (자동차) 미륵리 요지 → 미륵대원지, 하늘재 입구(3분) → 수안보온천(15분)

※ 관람시간 및 이동시간은 도로 사정 및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 코스

자전거길 따라



코스 탁영대 → [출령다리 → 모원정 → 팔봉폭포(칼바위) → 문주리 와요지 → 팔봉서원] → 문주리 오충석탑 · 문주리 석조여래좌상 → 청간사 → 두정리 고분군 →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관람시간 탁영대(10분) → 출령다리(20분) → 모원정(10분) → 팔봉폭포(10분) → 문주리 와요지(10분) → 팔봉서원(10분) → 문주리 오충석탑 · 문주리 석조여래좌상(30분) → 청간사(30분) → 두정리 고분군(20분) →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30분)

이동시간 (자전거) 탁영대 → 출령다리(20분) → 모원정(10분) → 팔봉폭포(10분) → 문주리 와요지(5분) → 팔봉서원(5분) → 문주리 오충석탑 · 문주리 석조여래좌상(10분) → 청간사(10분) → 두정리 고분군(40분) →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90분)

※ 관람시간 및 이동시간은 도로 사정 및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 코스

충주의 임정면 문화재를 찾아
떠나는 과거 여행



코스 부흥사(방단적석유구) → 목계나루터 · 강배체험관 → 윤양계 고택 → 역정사지(대지국사탑비) → 경종대왕 태실 → 백운암(철조여래좌상) → 추평리 삼층석탑 → 신흥사(석조나한상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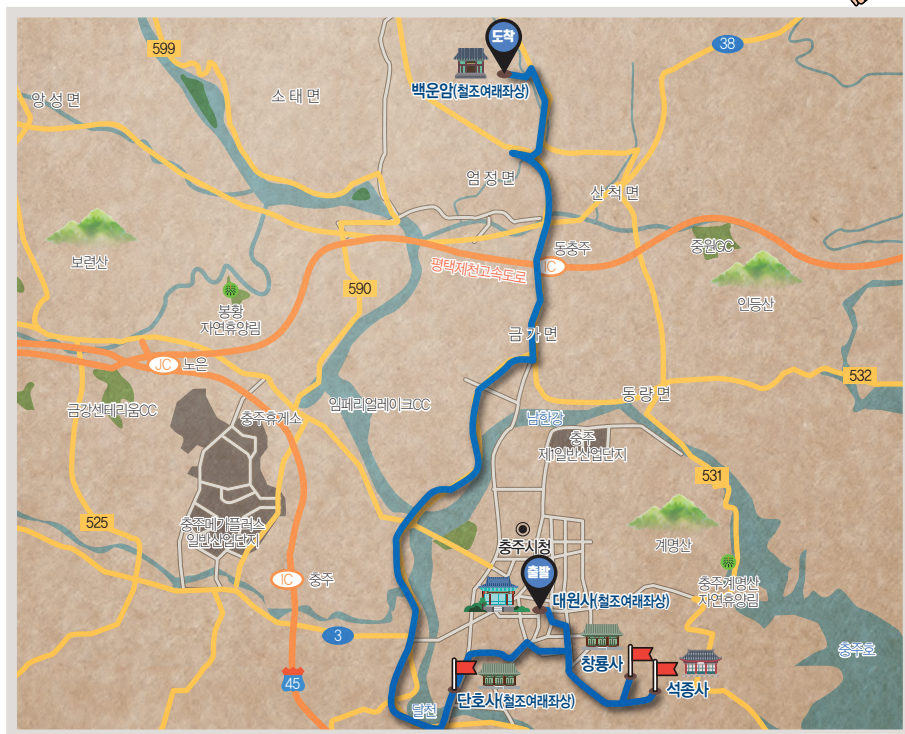
관람시간 부흥사(30분) → 목계나루터 · 강배체험관(강배 체험 포함 60분) → 윤양계고택(30분) → 역정사지(30분) → 경종대왕 태실(30분) → 백운암(60분) → 추평리 삼층석탑(20분) → 신흥사(30분)

이동시간 (자동차) 부흥사 → 목계나루터 · 강배체험관(10분) → 윤양계 고택(10분) → 역정사지(10분) → 경종대왕 태실(10분) → 백운암(10분) → 추평리 삼층석탑(10분) → 신흥사(15분)

※ 관람시간 및 이동시간은 도로 사정 및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 코스

충주의 사찰을 찾아서
충주의 보물 철불을 중심으로



코스 대원사(철조여래좌상) → 석종사 → 창룡사 → 단호사(철조여래좌상) → 백운암(철조여래좌상)

관람시간 대원사(40분) → 석종사(40분) → 창룡사(40분) → 단호사(40분) → 백운암(4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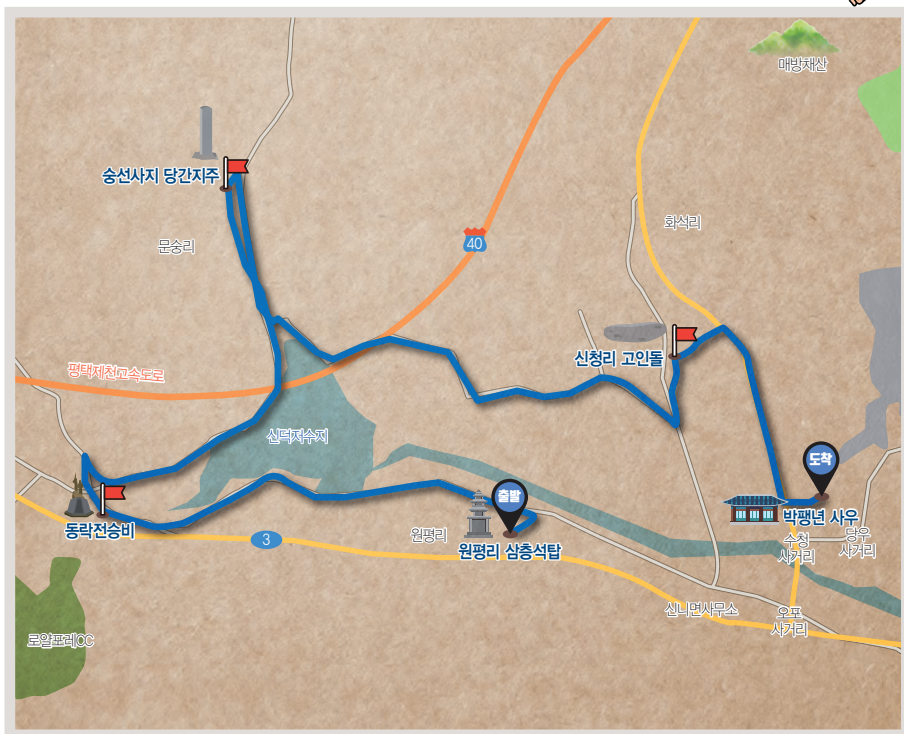
이동시간 (자동차) 대원사 → 석종사(20분) → 창룡사(10분) → 단호사(20분) → 백운암(40분)

※ 관람시간 및 이동시간은 도로 사정 및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 코스

충주 신니면의 문화유산을 찾아서



코스 원평리 삼층석탑 → 동락전승비 → 송선사지 당간지주 → 신청리 고인돌 → 박팽년 사우

관람시간 원평리 삼층석탑(20분) → 동락전승비(30분) → 송선사지 당간지주(20분) → 신청리 고인돌(20분) → 박팽년 사우(30분)

이동시간 (자동차) 원평리 삼층석탑 → 동락전승비(10분) → 송선사지 당간지주(15분) → 신청리 고인돌(10분) → 박팽년 사우(5분)

※ 관람시간 및 이동시간은 도로 사정 및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 코스

동량면, 충주호를 따라서



코스 충주호 선착장(충주호 관광선 충주나루) → 조동리선사유적박물관 → 조동리 고인돌 → 갯바위(관암) → 정토사지

이동시간 (자동차) 충주호 관광선 → 조동리선사유적박물관(10분) → 조동리 고인돌(5분) → 갯바위(3분, 도보 이동 가능) → 정토사지(15분)

※ 관람시간 및 이동시간은 도로 사정 및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 코스

중앙탑면, 삼국의 문화를 찾아서



코스 청명주, 충주 창동리 오층석탑 · 충주 창동리 석조약사여래입상 → 누암리 고분군 → 충주 고구려비 → 고구려천문과학관 → 봉황리 마애불상군 → 우리한글박물관 → 충주박물관,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술박물관

관람시간 충주 창동리 오층석탑(20분) · 충주 창동리석조약사여래입상(30분) → 누암리 고분군(30분) → 충주고구려비(30분) → 고구려천문과학관(120분) → 봉황리 마애불상군(30분) → 우리한글박물관(30분) → 충주박물관(30분),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30분), 술박물관(5분)

이동시간 (자동차) 충주 창동리 오층석탑 · 충주 창동리석조약사여래입상 → 누암리 고분군(5분) → 충주고구려비(5분) → 고구려천문과학관(5분) → 봉황리 마애불상군(10분) → 우리한글박물관(15분) → 충주박물관, 충주 탑평리칠층석탑 · 술박물관(15분)

※ 관람시간 및 이동시간은 도로 사정 및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國立中原文化財研究所)는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산하 지방연구소로 충북·강원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학술조사와 연구를 통하여 중원 문화의 내용과 발전과정 등을 밝히기 위해 2007년 12월에 개소하였습니다.

개소 이후 약 10여 년 동안 연구소는 중부내륙지역의 남한강 수계를 따라 번성했던 중원지역 고대문화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학술조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고고·역사자료를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충주 하구암리·누암리 고분군, 탑평리유적 및 칠금동 제철유적 등을 발굴조사하여 이곳 충주가 고대 삼국의 각축장이었고, 통일 이후 신라 중원정의 중심지였음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대 제철복원실험을 비롯, 전시실 및 어린이 발굴체험장 운영 등을 통해 감추어진 고대의 기술과 고고학에 대한 이해를 많은 이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지 충주시 남한강로 38

찾아가기 시내버스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일반 411 → 잔디구장 정류장 하차, 2개 정류장
자가차량 충주IC → 중부내륙고속도로(0.9km) → 중원대로(6.7km) → 충원대로(1.8km)

※ 전시실 화요일 ~ 토요일 09:00 ~ 18:00



문화유산 가이드북

충주의 보물지도

총괄	노명구(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장)
기획	김용민(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실장) 한지선, 정태은(이상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원고집필	한지선, 정태은, 김민지(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연구원) 이진영, 홍성연, 이경자, 정영자, 김동희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자원봉사자)
편집/교정	정태은, 김민지
발행일	2018년 12월 7일
발행처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國立中原文化財研究所) Jungwo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남한강로 38(금릉동 594)
연락처	Tel 043-850-7812 Fax 043-855-8974
홈페이지	http://nrich.go.kr/jungwon/index.do
디자인	지그래픽 Tel 042-256-5055 Fax 042-625-6882
ISBN	978-89-299-1453-0 93910
발간등록번호	11-1550159-000053-01



ISBN 978-89-299-1453-0 93910

nrch.go.kr/jungwon